hyunbulnews.com

현대불교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뀝니다.
-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제849호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음력 7월 18일 · 불기 2555년 · 주간)

투명성 강화가 불교의 살 길

교단자정센터, 조계종에 보조금사업 심의법 청원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쟁입찰 등을 골자로 한 '보조금사업 불사심의에 관한 법'이 청원돼 법제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8월 1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를 방문해 법안문과 제안 설명서를 전달했다. 청원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불사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경쟁입찰·하도급·선지급 법제화까지는 갈 길 멀어

자정센터는 법안을 통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불사심의위원회가 불사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했다. 심의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5인과 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불사심의위원회의 심사 범위는 보조금 사업 중 전체 소요경비 1억 이상인 불사로 규정했다. 심사 내용은 입찰,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물론 업자의 선정 및 제재까지도 담당케 했다. 또, 사찰별 불사집행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해 불사금 집행의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고자 했다.

'보조금사업 불사심의에 관한 법'은 시공업자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았다. 수의계약은 2억원 이하의 공사 중 특정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사대금도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시공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삼보정재의 누수를 차단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법안에서 각 사찰들이 당해 불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불사심의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 1억원 이상의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례에 벗어나고 불사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스님들로서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불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불사심의위원회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를 통해 징계를 처할 경우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스님들이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단발전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룸비니 보존에 한국 불교가 지원을"

반기문 UN사무총장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연임 확정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스님은 반 총장을 반기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단을 방문해 감사하다"며 "2000만 불자의 뜻을 모아 연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사무총장 선출 때도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인사하고 떠났다"며 "연임이 확정된 지금도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평화안정에는 종교의 역할이 크지만 종교간 이해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작은 갈등이 큰 갈등이 되고 큰 갈등이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 있다"며 "종교간 상호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불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작게는 한반도 평화 크게는 인류 평화에 불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반기문 총장은 네팔 룸비니의 부처님 성역이 방치된 것을 크게 안타까워했다. 반 총장은 자승 스님에게 2012년 네팔 방문 때 동참해 달라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구했다.

조동섭 기자

"지시 받고 검찰에 사건청탁했다"

BBS 장용진 노조위원장 기자회견서 양심선언 후 총무원에 관련내용 전해

"불교방송 보도국장 지시로 영담 스님의 개인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 적이 있다"

장용진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이 검찰출입기자로 활동할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인 영담 스님을 위해 검찰에 청탁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위원장은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장용진 위원장은 불교방송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2009년 1월경 부천지역 모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 처리를 위해 전화로 청탁했다"고 말했다. 또 "2009·2010년 법보신문 권모 기자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등과 관련해 검찰청 관계자를 만났고, 김영일 사장대행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출석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용진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김영일 사장대행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수사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장 위원장은 "사건 청탁은 회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회사 최고위직인 이사장에 관한 일이라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저질렀다"며 "돌이켜 생각하면 기자윤리나 사회정의 측면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장용진 위원장은 "모 부장검사로부터 '기자가 수사에 개입하면 곤란하다.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니 오늘 이야기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회사 측의 사건청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후 회사는 청탁을 거절한 자신을 춘천지사로 전보하고, 다른 법조계 출입기자들에게 대신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장 위원장은 "종단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면 관련증거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 사법적인 처벌도 감수하겠다. 불교방송에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견 후 장 위원장은 총무원장 4층을 방문, 사서팀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 9월 26일 재논의

BBS불교방송 이사장 선임이 연기됐다. 사장 선임은 이사장 선임에 맞춰 함께 미뤄졌다.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영담)는 8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5회 이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이사 감사) 선임, 이사장 선임, 사장 선임, 전북불교방송 설립 추진 승인, 기타안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사·감사 선임에서는 임기만료를 앞둔 영담 스님, 종하 스님, 구형선 이사의 연임이 결의됐다. 감사에는 일화 스님이 선임됐다.

조동섭 기자

헛소리가 사자후로 들리느냐

전국 사찰서 불기2555년 하안거 해제 법회

전국 100여 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온 2500여 운수납자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운수행각에 나섰다.

신묘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14일, 전국 사찰에서는 하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태고종 종정스님과 조계종 총림 방장스님 등 선지식들은 납자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해제법어에서 "납자가 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다면 헛소리도 사자후가 될 것이요, 탐욕에 물든 견해로써 법을 듣는다면 설사 사자후라고 할지라도 여우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며 "신묘년 하안거 한철 동안 정진한 힘은 해제 이후 경계를 만났을 때 과연 사자후가 나오는지 여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만행길 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깨침의 마음 밭에는 그 무엇이든 잘 자라지 않음이 없고 맺고 풂이 또한 따로 없는 법"이라며 "결제 동안 여러 가지 경계를 이겨내고 수행했으니 이제 사바로 나아가 철저히 점검해 흔들림 없는 마음밭을 쉼 없이 가꾸도록 하라"고 말했다.

해제법어 3면

조동섭 기자



"명박산성 어청수가 이사장이라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선출 앞두고 반대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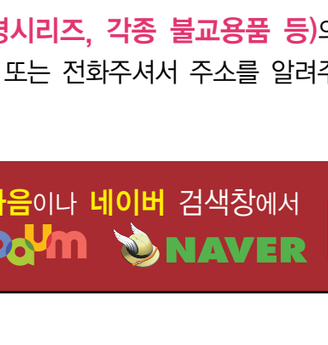
차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어청수 前 경찰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공원관리 정책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는 인물이 공단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8월 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자연·문화환경의 보전과 계승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이해관계자간 조정·화합 능력을 꼽았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 보전 활용 논의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8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1700년 불교문화 보전 활용은'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성보문화재연구원장 범하 스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가 참가한다.

조동섭 기자

849호 CONTENTS

특집 야단법석 5·8·9·11·12·13



한진중공업 해결 기원법회 2
능인선원 동대문 집회 6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 16·17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사경시리즈,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삼보불교카렌다
대표전화. 031) 732-9905 Fax. 031)732-897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B동 308호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관세음보살은 계시는가

부산 불교계, 한진중공업 원만한 해결 기원 법회


부산 불교계가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는 생명평화 법회를 가졌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산 불자들이 마음을 보탰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훈)는 8월 10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 인근에서 '한진중공업 문제해결과 김진숙 무사귀환을 위한 생명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행사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의 성명서 발표와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노동부 등 기관 방문에 이은 것이다. 행사에는 대불청 회원을 비롯해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대구 무심사 주지 법우 스님 등 지역불자들이 참가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님과 김진숙 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이 자리에 서있다"며 "중생의 신음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화답한다는 관세음보살님은 과연 계시는가. 관세음보살을 대신해야할 우리 불교인들 또한 귀가 멀어 묵묵부답인 것인가 자문하며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진보와 보수, 경영자와 노동자,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른다. 아는 것은 단 하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이라며 "도반들과 지극하고 정직하게, 만나고 대화해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답을 찾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우식 대불청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생명체는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며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하재훈 대불청 부산지구회장은 '한진중공업사태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 발원문'을 통해 "불자들이 갈등해소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에도 외면하며 살아온 죄를 진실로 참회한다"며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동료들의 생업을 위해 200일 넘게 높은 고공에서 온몸 불사르며 소신공양 올리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위해 자비의 실천자가 되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꼭 지켜낼 것"을 발원했다.

이에 앞선 9일 부산지역 종교계 지도자들도 한진중공업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범어사 주지 범여 스님, 태종사 회주 도성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 대표 정각 스님, 정영문 원로 목사 등이 참가했다.

조동섭 · 박지원 기자

동국대 전산원 교외 이전

일산캠퍼스 신축비용 승인

이사회도 모르고 진행돼 논란을 빚었던 동국대 전산원 문제가 교외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8월 10일 제264회차 이사회의를 열고, 전산원 이전을 위한 1000여 평 규모 65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을 승인했다. 또, 이전 후에도 기존 학과 중심으로 운영키로 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전환 계획은 백지화됐다.

전산원 사업전환 계획은 오영교 前 총장 당시 전산원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외부업체와 허위계약서에 날인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이사회의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추진 중인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건립을 승인했다. 일산 생명과학대학 강의동 및 약학대 건립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기채도 승인했다.

힐링센터는 양한방 종합검진, 메디컬 스킨케어 위주의 의료관광 사업과 통합기능의학, 힐링체험 등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진료영역 확대를 통한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이사회의 결의로 힐링센터는 국고 40억원(경북도 20억원, 경주시 20억원)에 자부담 30억원을 투입해 경주병원 부지 안에 연면적 4544㎡,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내년 말경 들어서게 된다.

이사회는 임기만료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법인위원 3인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과 종회의원 일문 · 학담 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개방이사추천위는 법인추천 이사 3명 외에 대학평의회 2명(김동진 의장, 박명희 교수), 산하학교 2명(오택원 동대부고 교장, 김용전 동대부여고 교장)으로 구성돼 있다.

합병을 위한 최종 법적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영석학원과의 문제는 이사장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동국대 일산캠퍼스 강의동과 약학대 신축에 따른 145억원의 기채 승인도 의결했다. 추후 바이오관 설립을 위한 270억원까지 포함되면 동국대의 금융비용은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희옥 총장은 "등록금만으로 학교시설을 갖추던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조동섭 · 이나은 기자


동국대 이사회는 8월 10일 제264회차 회의서 전산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자승 스님, 9월 프랑스 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와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7일~10월 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총무원장스님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불교의 국제구호 등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 시연회와 템플스테이 홍보 등도 계획됐다.

이 외에도 조계종 대표단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불교 문화체험 행사와 유네스코 본부 방문, 떼제 수행공동체 방문, 파리7대학 한국학과 방문, 파리 교민 · 불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자승 스님은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주지역을 순방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49재 비용 지불 과연 옳은 것일까

네티즌들, 49재 비용 지불 두고 열띤 토론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속담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건성으로 하고 잇속에만 마음을 둔다는 말이다.

일부 불자들은 스님들이 불자들의 고민과 상담을 들어주는 것보다 49재, 천도재에만 열을 올린다고 불만을 성토하기도 한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49재 비용 지불'이 과연 옳은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김 씨는 "종단 규정에 '49재수입'이라 해서 수입회계가 잡혀있다. 자발적인 보시라기보다 용역사업의 댓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과민반응일까"라며 "수행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경제행위는 공동체 다워야 한다. 자발적인 보시의 시스템화, 인생의 통과의례(생로병사)에 대한 기도에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보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씨는 김 씨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격을 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잃은 것"이라며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개인 경제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신도가 돈 낼 형편이 안돼도 무료로 기도에 동참시켜 제사를 올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승보살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출가자의 몫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강 씨는 "이러한 문제는 사부대중 모두와 인연된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봐야지 욕심 많은 사찰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수준이하의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금액을 정해 보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K씨는 "선진화된 시스템 혹은 신행활동을 위해 초하루, 보름, 제사 등에서 일요일, 휴일 가족들의 참여 보장 등으로 나눠 일상적인 정액 보시(마치 교회헌금식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지불보다 수입의 사용처를 따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스님은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齋)라는 의미는 첫째, 청정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널리 베풀어 공덕을 짓는다는 뜻이다"라며 "꼭 짚어야 한다면 공부하는 스님들 한테 베풀고 복지에 베푸는 식으로 회향 부분에서 짚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49재를 어떻게 하면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불교의식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굳이 공짜로 그리고 재치는 일이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문제를 삼으려면 그 재화의 사용처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반문했다.

이나은 기자

10 · 27법난 피해 신청 종단도 가능

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은 조계종이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국방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님들의 경우 출가 후 가족과 단절돼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피해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사 치유와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구비서류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런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10 · 27법난을 겪은 스님들과 종단의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10~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분단66년, 북녘의 문화 유산'을 주제로 북한 전통사찰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10일 개막식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주선 의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이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의 안내로 사진전을 둘러보는 모습.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께 드리는 글

한국불교를 비롯한 태고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와 관련하여 인공스님께서 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성명서 발표 및 신문기사를 보면서 종단과 학교에 대한 총무원장님의 남다른 애정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의 오해, 또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①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는 태고종에서 100%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는 태고종이 100% 출연한 학교법인이 아니며, 전체 설립자금 약100억원 중, 학교법인 설립자가 80%를 출연하였고, 태고종에서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20여 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태고종과 약정체결한 시점인 2002. 12. 7. 7개항에 관한 약정을 한후 2003년부터 분납하였습니다.

② 약정서 7개항 중, 제5항의 불이행으로 제7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습니다.

약정서 제5항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경영하던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이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태고종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태고종이 동방불교대학을 종립대학으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종단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학교 법인 측에서는 약조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고, 정관이 정하는 바대로 성실히 학교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③ 학교법인 동방대학교가 유지경영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태고종 종도들에게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교육발전과 종도들의 교육기회 제공 등에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도 한 바가 없다." 하였는데, 태고종 종단의 스님과 신도 등이 법인의 이사와 학교의 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여 종도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의 운영주체는 태고종이 아니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입니다.

"학교운영주체가 태고종이 되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2002. 12. 7. 작성한 약정서 이후, 2004. 9. 17. 학교 설립인가 시,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공증한 "학교법인 및 대학원대학교 운영에 관한 서약서" 제2항에는 "법인 설립대표자 및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법인운영 및 학교경영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학교법인과 대학원대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정관과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한다." 고 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현행법상 태고종 종단이 학교법인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으며, 법인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및 정관이나 이사회에 우선하여 초법적으로 태고종 종단이 직접 학교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 총무원측과 협의나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니며, 태고종 종단의 입장은 태고종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통해서 학교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인설립대표자측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이사장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운산스님 대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운산스님을 다시 선임했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태고종과 약조한 약정서 2항에 의하면, "한국불교 태고종 이운산 총무원장이 추천한 이사3명,

3면에 계속

하안거 해제법어 모음

한 여름 장마비가 지나간 산하에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산과 들을 물들였다. 수행에 멈춤이 없음에 하안거 기간 구도심을 불태운 납자와 재가불자들이 해제일을 맞아 만행에 들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한 총림, 제방 선원의 스님들은 납자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중단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전문은 인터넷 현대불교 · 현불뉴스에 있습니다.)

만행길에서 경계를 만나 사자후를 토하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섭현귀성(葉縣歸省) 선사에게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가 절을 하자 이에 물었습니다.

"그대는 조금 전에 어떤 도리를 알아차렸기에 나에게 절을 올렸는가?"

"그것은 제가 바로 본분의 목숨을 던진 경계였습니다.

뒷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산지우(徑山智愚) 선사는 법상에서 주장자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봉황은 봉황을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는구나."

'사자후'에 대하여 〈증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獅子吼無畏說 百獸聞之皆腦裂

사자의 포효처럼 두려운 상대가 없는 말씀이여! 모든 짐승이 듣고서 하나같이 뇌가 갈가리 찢어지노라.

영가현각 선사의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이것은 이미 뇌가 갈가리 찢겨지는 일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분별한다면 그 순간 여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삿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살을 파먹듯이 내 마음 속에 작은 망상은 점점 커져 결국 나를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납자가 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다면 헛소리도 사자후가 될 것이요, 납자가 탐욕에 물든 견해로써 법을 듣는다면 설사 사자후라고 할지라도 여우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덕산 선사는 누구라도 문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고, 임제 선사는 학인이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런 사자후도 눈 어두운 자들은 여우 울음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보리심이 대사자후요, 대비심이 대사자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묘년 하안거 한 철 동안 정진한 힘은 해제 이후 경계를 만났을 때, 과연 사자후가 나오는지 여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만행길 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獅子兒 騰空返擲 俊鷂子 不戀舊窠

사자는 허공으로 뛰어올랐다가 몸을 되돌려 던지고 날쌘 매는 해묵은 보금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구나.

깨침의 마음밭 쉼없이 가꾸도록 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깨침의 마음 밭에는 그 무엇이던 잘 자라지 않음이 없으며, 맺고 풀음이 또한 따로 없는 법이다.

하지만 업연이란 몸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중생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돌고 돌아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하였으니, 굶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 오기 마련이며, 진속의 경계 또한 분명한 것이다.

수좌들은 결제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를 이겨내고 득력을 쌓았으니 이제 사바로 나아가 또 다른 진속의 체험을 철저히 점검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밭을 쉼없이 가꾸도록 하라.

世變難知朝夕事
海波不絶古今聲
諸法自性將涅槃
誰有智言無密意

세상의 변화는 아침저녁 일을 알기 어려운데 바다물결은 옛과 이제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모든 법의 자성은 장차 열반인 것이니 누가 지혜롭게 말은 하나 그 비밀의 깊은 뜻은 모른다네.

조주는 천을 알고 백을 깨달았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운문 스님이 상당하여 말하되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아는 이도 있다"하였다. 이때 어떤 수행자가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학인이 처음 총림에 들어왔으니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니 조주 스님이 말씀 하시기를 "죽을 먹었느냐?" 수행자가 대답하되 "예 먹었습니다" 하였다. 조주 스님께서 다시 말씀 하시기를 "발우를 씻어라" 하니 그 수행자가 언하(言下)에 홀연히 깨닫고 당장에 쉬어서 생사의 끝나는 곳을 알았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은 정진하는 힘이 뛰어나서 조주 스님께서 100근이 넘는 짐을 그 어깨에 실어 주었거늘 수행자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단숨에 생사의 끝자락을 달려가서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마치 법왕(法王)의 지위를 범부에게 준 것 같다. 마음 속이 그 자리에서 태평해지면서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비한 원(願)을 실행하니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다.

조주가 사미 때에 은사스님과 함께 행각을 떠나 남전 스님에게 갔더니 마침 남전 스님이 누워 있었다. 예배를 마치니 스님께서 묻되 "요즘 어디서 떠났느냐" 조주가 대답하기를 "서상원에서 떠났습니다" "서상(瑞祥)을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졸고 계신 부처님만 보았습니다" 하였다. 남전 스님이 일어나 묻되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주인이 있습니다" 남전 스님이 다시 묻기를 "누가 그대의 주인이냐" 조주가 "첫봄이 아직 추우니 바라옵건데 조실스님께서는 법체 만강하옵소서" 하니 남전 스님은 유나를 불러서 이르기를 "이 사미를 특별한 곳에 인도하라"하였다.

다음 날 다시 와서 묻기를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하니 남전 스님은 일체 특별한 법을 쓰지 않고 진실 그대로를 조주에게 말하되 "평상심이 도니라?" 하였으니 조주가 이미 평상심을 깨달은 줄 안 때문이다. 조주가 다시 묻기를 "그대로 닦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전 스님이 말씀하되 "향해 나가려면 어긋난다" 한 것으로부터 "억지로 시비를 따지겠느냐" 하기에 여기에 이르러 조주는 천을 알고 백을 깨달았다.

이같이 도는 알거나 모르거나 속하지 않는다. 복을 갖춰야 한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남에게 전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경지가 어떤 것인가? 대중이 대답이 없거늘 잠자고 있다가 게송을 이르되

圍爐向禾通身煖 渡水敵氷鐵?寒
天上有星皆供北 家家門外直長安

화로를 끼고 불을 쪼이면 온 몸이 따숩고 얼음을 끼고 물을 건너면 뼈까지 시리다.

하늘의 별은 모두가 북극성을 따르고 집집마다 대문 밖은 집안으로 뚫렸다.

불퇴의 초심으로 다음의 해제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혜가 대사가 안심법문을 얻기 위해 팔을 끊었고, 육조는 허리에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상상지기(上上之機)처럼 단박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우직하고 미련하다 할 정도로 끈질기게 밀어 붙여 보십시오.

역대조사가 그랬듯이 우리도 구경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력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퇴의 초심입니다.

이것은 태산을 이루게 하는 한 줌의 흙이요, 넓은 바다가 깊은 물이 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이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제니 해제니 하는 그 이름에 놀아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참 결제에 들어갔다가 참 해제를 하고 나와 역대조사와 시은에 당당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아 용맹정진을 위한 다짐의 해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萬法由來空裏花
豈宜徒算海中沙
但從鐵壁銀山透
不問如何又若何

만법도 본래 허공 꽃과 같거늘
어찌 바다 속 모래알을 세려 하는가?
다만 은산과 철벽을 뚫을 지언 정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묻지 말지어다.

호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는 호법 불교

불교사회硏 호국불교세미나 발제자 '정권유착' 경계에 한 목소리

"호국의 본질은 호법에 있다. 호국불교를 환경보호, 인권보호, 민주주의 수호 형태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사에서 호국불교 전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호국불교의 본질은 호법'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어용불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사진)가 '경전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재검토', 김용태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사에서 호국 사례 검토와 호국불교',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국불교 재검토'를 주제로 나섰다.

조준호 교수는 호국불교를 정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 교수는 "호국의 개념은 본래 호법의 다른 말이다. 호국은 지배계층, 영토를 지키겠다는 좁은 의미가 아닌 불법, 불법의 땅, 만백성의 평화 등 보편적 진리를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호국경전은 민생고 해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인왕경〉 〈금광명경〉 〈법화경〉 등 호국삼부경을 예로 들어 "호국경전들에 자신이 속한 나라나 왕권이 수호돼야 한다는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호국경전들의 저변에는 민생고를 초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깔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준호 연구교수는 "호국불교는 공동체 살림의 승의제 차원의 호국과 세속적 방편 차원의 호국 이중적 구조로 현실에서 나타나는데 이중 본질인 승의제 차원은 반야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호국불교의 참정신을 살리자"며 △자신이 처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불교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불교 △국경을 초월한 '사방승가'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불교국가간 사방승가적 연대 구축) △범아시아 차원의 불교위성방송 설립 △NGO 활동 다양화 등을 방편으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날 호국불교가 세속적 방편 차원으로 흐른 까닭에 대해 왕권에 왕권의 탄압, 예속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의식이 작용해왔다고 했다.

조 교수는 "호국불교는 초기불교 등에 나타난 인종과 민족, 나라를 걸림 없이 넘나들며 가르침을 폈던 불교본연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처절한 단상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도 이날 토론에서 "사방승가 공동체 이익 행복 제도적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호국불교의 거론에 대해 "불교는 본래 '호국불교'가 아니고, 이 시대도 역시 '호국불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호국불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태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국불교의 호국은 왕권 우위의 역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호국불교가 부각된 시기는 일본식민지 시기로 식민지 유산에 대한 정신적 청산없이 호국불교 개념을 계승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도 "해방 이후에도 불교계는 호국불교 명목하에 정권유착을 유지했다. 불교계는 국가의 안녕보다 불법을 지키는 호법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9월 1일, 사찰법 제정 공청회 열린다

사찰법 제정을 위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마련된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9월 1일 14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 발제자로는 소위 위원장인 법안 스님이 나서며 토론자는 공찰과 사설사암, 본사, 총무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물색 중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사찰법은 사설사암과 산내암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담고 있어 논의 전부터 교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소위는 그동안 사찰법 제정안에 대한 여러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소위와 집행부측 제정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여 왔다.

박기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께 드리는 글

감사1명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개최 시, 이 이사회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운산측이 이사장을 -중략- 선임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사장은 태고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직책이 아닌 이사회에서 선임·의결한다고 약조하였습니다.

⑥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개방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님과 학교 이사회는 무관하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표 하였지만, 총무원장님이 현재 학교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총무원장님이 이사회에서 전 총무원장님이신 운산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무단퇴장 하였고, 운산스님 또한 태고종 이사 중 한 분입니다. 이사회 의결은 이사들 각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과정에서 총무원장님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⑦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에 방치되고 얼룩져 있다." 고 발표 하였는데, 학교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처리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총무원장님 말씀대로 부패와 비리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사로 재직 중인 총무원장님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 사안이므로 총무원장님도 이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법인의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⑧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시었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현재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2011. 4. 19. 경찰청에 "태고종에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보고 내지는 확인도 받은 바 없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었는지 수사해 달라." 는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성명서와 언론을 통해서 학교법인이 마치 부패한 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종단에서 동방대학원대학 사태 해결에 적극 참여 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는 학교법인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며 문제가 있는 학교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태는 총무원장님께서 진정서를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혼자서 문제를 만든 것이며, 이를 또 혼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⑨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학교법인 및 학교비 예·결산 심의 시, 이사회 참석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고, 이사회 회의록은 감독청에 보고되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이사가 자금의 흐름을 모르겠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총무원장님께서 이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불자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2년 전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학교법인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학교법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지나친 결과라 생각됩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인한 총무원장님의 행동을 불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여 존경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종단과 학교법인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자제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큰 틀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정통을 이어온 태고종의 총무원장스님에 걸맞는 존경받는 큰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1일

학교법인 동 방 대 학 교

일 주 문



혜국 스님 선문회 법회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8월 18~19일 영천 백흥암에서 간화선 특강을 개최한다.



용주사 금강경, 육조단경 경전 강좌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9월 3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 〈금강경〉, 〈육조단경〉 경전강좌를 개최한다.



월정사 참선 수련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13~17일 일반인 대상 참선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미산 스님, 우란분절 특별법회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8월 12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우란분절 특별법회에서 법문했다.



맑고향기롭게 승가원 봉사활동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현장 스님은 8월 21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장애아동과 여름물놀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 개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8월 12일 세계유산센터교육프로그램 특강을 개최했다.



교수불자연합회 하계해외성지순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8월 17~20일 인도 보타산으로 하계해외성지순례를 진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8월 24일~9월 21일까지 자원봉사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법과 상담법 등을 교육한다.

수불 스님, 동국대 국제선원장 위촉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8월 10일 동국대 국제선원장으로 위촉됐다. 수불 스님은 종립학교 선센터 설립의 원력으로 지난 5월 동국대에 국제선센터 건립 기금 50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약정액의 일부인 20억원을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제선원 개원식은 8월 말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자성과 쇄신 결사, 요건부터 누락

동국대 보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회서 강연



"자성과 쇄신 결사 명칭부터 잘못돼, 결사의 방향이 결사 이름이 돼서야."

동국대 선학과 보광 스님(사진)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무기관 조회에서 '신앙결사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 승규의 문란이 가져온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과 자정운동이며, 종도의 무사안일한 출가정신 상실과 불교의 시대적인 사회인식 변화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영산재를 예로 들며, "전통문화는 조계종 스스로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이 49재와 함께 영산재를 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정화 이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제는 전통문화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결사의 요건으로 ▷소의경전 ▷결사명칭 ▷회주 ▷결사청규 ▷결사문 ▷결사대중 ▷결사역할 분담 ▷신행법 ▷결사재정 ▷결사실천의 확인점검 등을 지목했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특히 대중이 함께 실천할 신앙생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보광 스님은 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의경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 NGO활동이 많아졌다"면서 "소의경전이 없으면 시민단체에 이용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통일 환경 등 사회운동을 할 때 부처님 교리와 사상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광 스님은 "호국불교를 주창했던 사명 스님은 〈법화경〉을 중시했고, 항상 품에 호신불을 지니고 다니며 염불했다"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옛 스님들은 사찰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잘 때에도 불감을 지니고 다니며 염불을 했다"고도 말했다.

보광 스님은 "자성과 쇄신의 결사는 결사의 방향이지 명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심인물인 회주가 없다" "결사에 필요한 청규도, 결사의 정신이 드러난 결사문도 없다" "결사참여자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회비를 내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사진제공=화계사 홍보팀

獨가톨릭 수사, 불교문화 체험

독일의 카톨릭 수도자들이 한국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해 눈길을 끈다. 크리스티안 테무 수사신부를 비롯한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독일인 수사 8명은 8월 10일 화계사에서 3박 4일간 불교 예절과 참선법 등을 익혔다.

주지 수암 스님과 진행된 차담에서 수암 스님은 수사들에게 "불교의 근본 핵심은 수행을 통해 절대 자유를 상징하는 자아를 찾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화두를 던졌다. **이상언 기자**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 개막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는 8월 7일 제11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다례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문화축제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 장욱 군위군수, 김제명 10교구 신도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화축제에서는 산사음악회와 뮤지컬 수로부인 공연, 대동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야간에는 일연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가 펼쳐졌다.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는 8월 28일 삼국유사 골든벨, 10월 15일 삼국유사 마라톤, 11월 24일 삼국유사 학술제와 문학제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내 발자국이 지금의 나를 증명"

선거 앞두고 돈봉투 파문 불국토 이사장 범산 스님



내년에 있을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말사주지스님들을 상대로 돈봉투가 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의 당사자는 범산 스님(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 사진)이다. 스님은 300만원씩을 말사주지 스님들에게 건넸다. 100만원은 백중을 맞아 낸 대중공양금으로, 200만원은 '기축생 이범산 본사 주지 당선 발원'을 적은 문구와 함께 전달했다.

범산 스님은 8월 8일 전화통화에서 "내가 기도비를 올린 것은 순수한 뜻이었다. 축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투표에서 나를 찍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가 되고자 발원해 여러 도량의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며 "'내가 삿된 생각으로 범어사 주지를 하려 한다면 꼭 떨어지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산 스님은 자신의 기도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범산 스님은 범어사에 승가대학을 만들고, 부산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스님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불국토가 1호이지 않느냐"며 "내가 돈봉투나 돌리는 인물이었다면 그동안 승가교육이나 복지에 전념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내 발자국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산 스님은 "기도비가 어느 선이 적정한지 다시 생각해서 부산의 모든 도량에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기도는 내 인생에서도 뜻 깊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 박지원 기자**

대중의 벗으로 삶의 에너지 전할 터

홍보대사 김태곤 박사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사회통합과 소통을 이끌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로 1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구자선, 이하 경불련) 홍보대사 김태곤 박사가 경불련 홍보에 나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철학이었으며 불교는 실용종교이었습니다.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앞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대중의 심신 치유에 앞장 설 것입니다. 대중적인 음악은 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불자 경제인들이 대중의 벗이 되고 삶에 에너지를 전하는 문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경불련 부총재 광옥 스님(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의 추천으로 홍보대사로 임명된 김태곤 박사는 "실크로드는 상인(商人)들이 만든 상로(商路)였지만 서방으로부터 불교나 이슬람교 등 문화와 문물 교류의 장이 됐다. 경불련의 활동이 실크로드 상인과 같을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통한 포교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치유예술, 대체의학 등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그는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김태곤 박사는 공주영상정보대학 대중음악과 학과장,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을 역임하고 필리핀 국립 이리스트 대학 상담학과 학과장으로 있다. 김 박사는 노래 '송학사' '망부석'으로 MBC 10대 가수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화노래 '아야 우지마라'로 KBS 세계 가요제 특별상을 수상했다.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종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제29대 주지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재적스님들께서는 전원 동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재적승의 자격이 중지됨은 물론
주지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 력 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8월 31일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문 의 : 061)754-5247. 061)754-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담

제3회 야단법석 토론 및 이모저모

대승의 뜻 바로 펼치는 수행 필요



백양사 야단법석이 8월 4~7일 진행됐다.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더위를 잊은 듯,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했다.

"밥을 만나면 밥을 먹고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신다. 천 겹, 만 겹이지만 사해가 한 집이로다. 모두가 인연 따라 얻어지는 것이나, 얻어지지 않는 것도 인연이다.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일이여! 본인은 자연인 줄 깨달으니 빗속에 밝은 달을 구경하고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을 대신한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의 법어를 시작으로 야단법석은 시작됐다.

여름 태양은 뜨거웠다. 8월 4일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는 산사의 풍경소리마저 더위에 묻힌 듯 했다. 오후 12시. 묵직한 더위를 뚫고 참사람 교육관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들었다. '수행결사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을 주제로 4일간 진행될 야단법석에 참가하는 이들이었다.

백양사 야단법석은 2009년 8월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같은 해 11월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진행됐던 야단법석에 이어 3번째 마련된 자리였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한국불교는 조선불교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조계종은 정화 60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을 주제법문으로 첫 법석이 열렸다. 이튿날인 5일에는 양산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를, 함양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이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강의했다. 6일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경〉에 담긴 수행결사',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의 의미'를 강의했다.

수행결사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소승불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스님들은 "대승불교의 수행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법 스님은 대승불교를 '부지깽이 수행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부지깽이는 아궁이에 있는 다른 나무가 잘 타도록 열심히 노력한 후 자신도 타고 없어진다. 부지깽이를 갖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슬픔·미움·화 등을 잘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 쓰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내 마음도 치유된다. 또한 부지깽이가 타고 사라지는 것이 열반과 같다. 그들을 위해서 지극하게 마음 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탁월한 길이며 이것이 곧 자타가 동시에 성불하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야단법석 청규에 따라 생활했다. 법석은 아침과 점심 3시간 자유시간을 빼 놓고 저녁 9시까지 진행됐다. 무더위에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다. 법석에 참여하는 일 외에도 예불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공양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산사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스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은 참가자들의 모습

참가자는 전 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참가자들 간 친분을 쌓고 대화를 나눌 기회는 더욱 많았다. 백양사를 둘러싼 백암산 절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다.

6일 저녁부터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대승불교에 속하는 한국불교의 기복적인 수행, 개인 수행에 그치는데 대한 자성과 사부대중의 수행결사에 뜻을 모았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토론에서 "승가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사부대중을 통칭해서 쓴다. 초기 불교에서 출재가로 우열을 따지지 않았다"며 사부대중이 함께할 때 불교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소승경전이 출가자를 위한 경전이라면 대승경전은 재가자를 위한 경


진행을 맡은 인례사 혜일 스님

참가자 줄어도 대화의 시간은 늘어
대승불교의 사회적 역할 더욱 커져
참여 불교,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
불교의 재가자 참여·역할 강조해

전"이라며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불교에서 재가자의 역할과 참여, 바른 수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불자들의 수동적인 자세나 기복, 위계질서에 따른 수행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기계적인 법문과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했다. 향봉 스님은 "형식적인 기도에 연연하지 말라. 못 먹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상에 대한 예우가 된다"고 말했다.

"승려가 되면 존경과 예배, 공양의 대상이 되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공양 올리는 것이 잘못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하라. 집착하지 말고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반추하는 성찰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지닌 사람임을 알라. 목탁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처님에게 10번이라도 위대하다고 기도하라.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당당하고 여유롭고 마음이 열리면 된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라."

향봉 스님의 주장이었다.

7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도 자기중심적인 수행에만 그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모두가 참여하는 불교,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시몽 스님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라면 대승불교의 면모를 갖춰야 발전해 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승려들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재가자들은 절에서 불공이나 제를 지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똑같은 불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문화가 불교계 내부의 자성을 통해 쇄신할 것을 주문했다.

시몽 스님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승가가 이뤄질 때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다.

"스님들만 불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할 때 불교는 물론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부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찰에서도 스님과 신도는 모두 개인 수행과 기도를 할 뿐 연결 고리는 없었다. 한국불교 전체를 일순간에 바꾸려는 것 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곳,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부터 불교의 발전은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토론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가자 수가 저조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야단법석 1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가한 한길로 씨는 "좋은 법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문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있었다. 김용유 씨는 "좋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니 좋기도 한데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씨도 "식견이 짧아 법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숙제로 가져 가겠다"고 평가했다.

박중근 익산불교신도회장은 "실천하지 못하는 불법이 아닌 집이나 직장 어디에서든 실천 할수 있는 불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아 여유를 찾아 온 참가자들에게 주제는 멀게만 느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진부한 주제, 재가자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주제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 중에는 대부분 재가자인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젊은 불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석을 펼친 스님과 참가자들 대부분은 4차 야단법석을 기대했다. "다음 야단법석에는 도반 한 명을 꼭 데리고 오겠다" "집에 가서 야단법석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홍보하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향봉 스님은 "4차 야단법석에서는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의 비판을 내용으로 법석을 열겠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특별취재팀 글=이상언·이나은·이은정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박재완 기자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넋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회나 있으면 눈이 벌게 유치하느라고 장 세월에 국력을 쏟아붓는 등 각종 합리화된 모리정치 놀이에 국민의 넋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이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공교육)실천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화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서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 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 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락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료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合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19㎝,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 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教育志士**(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 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활은 설립이후 〈3년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

“능인선원도 사기 당했다” VS “보증금 내놔라”

능인선원 케레스타 빌딩 갈등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자금을 투자한 동대문 케레스타 상가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회를 열고 건물의 소유권과 상생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일부 임차인들이 능인선원과 지광 스님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집회를 열어 갈등의 정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능인선원은 8월 10일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 앞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법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선 5일 선원 측은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능인선원도 이번 케레스타 사건의 피해자라며 법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차인들은 선원이 예고한 시간에 앞서 프레스타 빌딩 앞 광장을 차지하고 집회를 먼저 시작했다. 프레야임차인채권자연합회, 임차인연합위원회 등은 지급되지 않은 임차 보증금 70%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인이다. 보증금만 지급하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레스타 빌딩은 케이디프레야PFV가 임차인연합위원회 대표이자 능인선원 신도인 배관성 회장으로부터 임차인 명의의 가등기를 넘겨받고 본등기로 전환하면서 소유주가 됐다. 임차인들은 케이디프레야PFV 지분 94%가 능인선원 측 소유라며 지광 스님이 사태 해결을 위해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능인선원측은 선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배씨로 인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배관성 회장은 설비 가치를 부풀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혐의로 4월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배 회장이 대출받은 돈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능인선원은 그동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임차인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원 측은 당초 10시 30분 케레스타 빌딩 정문 광장에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집회로 광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11시 경 선원 신도들이 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즉각 저지하고 나서자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선원 신도들을 다른 공간으로 유도했다.

결국 선원 신도들은 임차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옆 공간에 자리를 잡고 법회를 시작했다. 양측이 케레스타 빌딩 정문 앞 광장을 분할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선원 신도들은 능인선원가와 〈반야심경〉, 지장보살정근 등을 하며 법회를 이어갔다. 선원 측에 우호적인 일부 임차인 모임의 관계자들이 법회를 방문해 선원 신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선원 측은 우호적인 임차인들도 있다며 신도들에게 이번 사태의 정당성과 선원의 권리를 설명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사이 지광 스님이 도착해 신도들을 응원했다.



지광 스님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도들이 뜻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광 스님은 “일부 사람들의 야욕에 흔들리지 말고 뜻과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것은 부처님 사업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도 찾아주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24시간 언제나 달려갑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소속 생활의례봉사단은 상장례 포교와 불교적 의례의 중요성을 신심을 다해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기 쉬운 상장례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펼치는 이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마저 숙연하게 만든다.

강호원 단장은 불교가 상장례에 관심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 단장은 “일상의 의례를 불교적 가치로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매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상장례 봉사를 위한 교육과 자문위원 스님들로부터 수시로 조언을 받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스님들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다림 의식을 재가자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깊은 발심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봉사단의 모습에 이런 우려는 금새 사그라진다.

염불 소리에 상주들 눈물
깊은 발심으로 무료 봉사

봉사단의 남모르는 노력과 무료 봉사로 상장례 의식을 진행하다보니 출범 1년 만에 불자들 사이의 인식이 높아졌다. 장례식장에서 염불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 있던 불자가 즉석에서 염불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병복 총무부장은 “불자님들의 많이 고마워한다. 우리의 염불 소리를 듣고 상주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병순 총무차장도 “평소에 몸이 안 좋아도 봉사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힘을 내서 참여 한다”고 밝혔다.

봉사단원들은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단원들은 봉사를 통해 삶의 변화를 느끼고 불법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정순진 재무부장 “상장례 봉사는 맹목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춘 봉사부장도 봉사단 참여 후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다고 한다. 유 부장은 “절에 다니다가 염불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생업 활동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보람을 느끼고, 배우는 것도 많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동은 상장례 봉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 혼례식, 이주 노동자 추모법회 등에서도 봉사단의 활동은 빛을 발한다. 특히 올해는 제1회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직접 대회에 출전도 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시연회도 열었다.

강호원 단장은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다. 불교 상장례의 생활 속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불자님들과 종단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02)720-1079 박기범 기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사회통합위, 평신도 협의체 제안

지속적 교류 · 소통 필요성

사회통합위원회가 종교계 평신도 대표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종교계 평신도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7월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했다. 7대 종단 평신도 대표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종교간 상호 존중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성직자 중심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같은 평신도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석구 위원장은 “평신도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충국 성불사 ‘불교교육관’ 중창불사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도량이 첫 삽을 떴다.

공군교육사령부는경남 8월 11일 진주시 소재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충국 성불사(주지 화엄)의 불교교육관 신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 짓게 될 불교교육관은 동시에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층 898㎡ 규모로 건립된다. 불교



교육관 불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법당의 전기온돌판넬, 창문 및 출입문 교체 등 개 · 보수불사가 이어져, 2012년 5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평화의 시작 원폭피해자 추모부터”

원폭피해 66주년 추모제
시민사회계와 공동 주최

한국인 원폭피해 6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8월 6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개최됐다.

올해 추모제는 그동안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조촐하게 진행되던 것을 합천평화의 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태양회, 합천 평화의집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추모제는 사진 및 영상전, 청소년 평화캠프 등이 진행됐다.


원폭피해 희생자 추모제가 올해는 시민사회의 관심속에 개최됐다.

윤여준 합천평화의집 원장(前 환경부 장관)은 “원폭피해자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여성불자 교육환경 개선 나선다

조계사 인근, 교육장 계획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여성 불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주력 사업인 교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2012년 ‘여성불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월 12일 밝혔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은 교육, 회의, 회원모임 등을 위해 매년 500만원 가량을 외부 대관료로 지출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처장은 “내년까지 조계사 인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대학생 불자들 한 자리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8월 11~14일 고창 선운사, 김제 금산사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Young Buddhist Camp, 이하 영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Maitreya(미륵)’라는 주제로 대불련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종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옇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젼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배움의 계절, 불교 박사 대거 탄생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11명 배출

배움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상반기 동국대 일반대학원에서 11명의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은 가을 학위수여자 중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에 △장정태 (응용불교학 전공, 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관계 연구-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김성옥 (불교교학 전공, 다르마끼르띠의 자증(自證) 연구) △자명 스님 (불교교학 전공,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 연구) △송인범 (선문화 전공, 깨달음의 구조와 본질 연구-초기불교와 조사선을 중심으로) △이남경 (선종사 전공, 불교수행법의 심리 치료적 적용에 관한 연구) △형운 스님 (응용선학 전공, 고승전의 선법 연구-선어 분석을 통하여) △문태준 (현대문학 전공, 서정주 시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심혜경 (고전문학 전공, 조선후기 소설의 윤회구조 연구) △박소영 (한국사학 전공, 고려후기 운묵(雲默)의 '석가여래행적송' 연구) △류형균 (미술사학 전공, 고려 사원 목탑지 연구) △양흥식 (동양사상 전공,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융화사상 연구) 등 11명을 배출했다.

불교 주제 석사로는 △손민아 (응용불교학 전공, '성업론'에 나타난 업의 성립과 아뢰야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왕섭 (불교교학 전공, 비량(比量)의 확실성 연구) △김영아(설해) (불교교학 전공, 결박(samyojana)과 자아관념 관계 연구) △고슬기 (불교교학 전공, 초기불교와 윌리엄 제임스의 자아관 비교 연구) △정원기(진량) (불교교학 전공, 초기불전의 오온통찰 연구) △고유경(주오) (불교교학 전공, 다르마끼르띠의 타심론증 연구) △기윤수 (불교사학 전공, 동악 이안눌의 불교관-시문학을 중심으로) △김애숙 (불교사학 전공, 혜림의 백묵론(白墨論) 연구) △홍현지 (응용선학 전공, 혜암현문의 선사상 연구) △신제식(법찬) (선학 전공, 법안문익의 선사상 연구) △문혜진 (인도철학 전공, 위대한 원숭이왕 자따까 연구) △권원제(원제) (인도불교 전공, 마하짯따리사까 숫따에 나타난 정견 연구) △김지연(정문) (인도불교 전공, 경량부와 설일체유부의 표업(表業) 연구) △최진영 (고전문학전공, 조선 중기 불가 유산기(遊山記) 연구) △이미정 (동양사학 전공 , 명말 '가흥대장경' 편수와 강남 거사) △김현수 (미술사학 전공, 조선후기 불화사(佛畵師) 임한 연구) △이광현 (미술사학 전공, 통일신라 금강역사상 연구 △최주연, 고려후기 협저보살상(夾紵菩薩像) 연구) △문용호 (미술사학 전공, 조선시대 아미타 정토도 연구) △박근남 (불교미술 전공, 조선 후반기 제석천도 연구) △주나래 (불교미술 전공, 천은사 아미타극락회도 연구) 등이다.

학위수여식은 8월 19일 단과대학 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8월 10일 진관사는 독립운동당시 사용된 태극기를 기념비로 제막했다.(上) 광복 66주년을 앞두고 불교계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下) **사진=박재완 기자**

상반기 불교박사 인터뷰 | 송인범 박사

"돈오에 대한 의심에서 깨달음 연구 시작"



"조사선의 돈오법에 대한 의심이 깨달음에 대한 연구로 나를 이끌었다."

상반기 박사 중 송인범 박사(선문화 전공 · 사진)는 '깨달음의 구조와 본질 연구 - 초기불교와 조사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박사의 지도교수는 현각 스님이다. 송 박사의 논문은 338P의 분량으로 매 챕터마다 도표를 통해 설명을 곁들인 점이 특징이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붓다의 깨달음의 이상과 구조, 행상과 구조, 조사의 깨달음의 이상과 구조, 행상과 구조로 나눠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송 박사가 생각하는 깨달음과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개념화 시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는 불교학자 다이세츠 스즈키의 말로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송 박사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다.

송 박사는 "붓다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현세의 삶을 '고'없이 '번뇌'없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특수 계층이 접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나 도달할 수없는 특별한 경지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송 박사는 "깨달음이 중생들이 감히 접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며 "붓다가 생로병사가 없었으면 여래나 등정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듯 탐욕을 제거하고 무명을 제거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 "붓다가 전하려는 가르침은 삶의 순간에서 마음 씀"

송 박사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실천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학식, 남녀, 사상, 국적을 떠나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조사선의 단박에 깨달았다는 문구에서 깨달음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단박에 깨달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단박에 깨달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가'는 의문이 계속 됐다고도 했다.

2010년 수십 년간 몸을 담았던 문화재청에서 나오며 차일피일 미루던 박사논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송 박사. 송 박사는 선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게 된 것이 하나의 인연법이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불교공부와는 본래 거리가 멀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심취해 성경을 읽고 관심이 많았다"며 "2005년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 우연히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 인연이었다"고 소개했다.

논문을 내고난 이후 송 박사의 깨달음에 대한 생각은 획득이나 도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명상센터 등에서 마음 편하게 마음공부를 하고 싶다는 송 박사에게 깨달음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마음가짐, 또는 방식이었다.

노덕현 기자

"만해의 불교 근대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석길암 금강대 HK센터 교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학술대회서

해방 이후에만도 정화운동과 1994년 종단개혁운동 등 종단 차원의 개혁운동만 해도 두 차례가 진행됐다. 또 개인 혹은, 개별 집단 차원에서 제기된 개혁론은 그 수를 헤아리기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만해 스님의 〈유신론〉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가 2011만해축전을 앞둔 8월 4일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만해학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불교 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날 '〈조선불교유신론〉,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석길암 금강대 HK센터 교수는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정체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 차별성을 위해 '근대화'로 지칭되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단절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봉암사 결사가 정화운동으로 이어지며 만해로 표상되던 수많은 불교의 근대는 묻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정화운동이라는 새로운 단절에도 불구하고 만해가 생각한 개혁, 그리고 구체적 시안은 시대의 역류를 비집고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며 "만해가 주장한 도심포교의 화두는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 시인, 불교 대강백, 대선사로 남긴 발자취는 크고 뚜렷하다"며 "만해 한용운의 삶을 우리 삶에 대입시켜 현실적인 대립과 소외 갈등을 해소하는 불교사상의 현실적 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해의 불교사상 및 계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김용담, 삶의 복원-한용운 사상의 계보 모색'과 유세종 한신대 교수의 '화엄과 혁명 - 54의 루쉰과 31의 한용운' 발제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일심교는 항일결사, 진관사는 항일지하본부"

김광식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항일 승려로 만해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 함께 백초월 스님을 같은 반열에 놓아야 한다. 백초월 스님의 일심교는 항일 운동의 비밀결사였으며, 진관사는 본부역할을 담당했다."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당시 발견된 항일자료를 계기로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사, 특히 초월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항일운동의 핵심적 위상을 지닌 도량으로 새롭게 부각됐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사진)는 8월 10일 진관사 청해루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과 진관사' 두 번째 학술대회에서 초월 스님의 일심교의 실체가 항일결사였다고 밝히며 초월 스님을 항일 승려로서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일심교'는 무엇보다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1939년 용산역 독립 낙서 사건으로 초월 스님과 함께 일심교의 70~80여 명에 달하는 승려들이 함께 체포, 구속되는 자료는 일심회가 비밀 결사체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 독립운동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의의와 위상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이런 초월 스님이 진관사에서 불교청년들을 상해 및 만주지역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진관사의 독립운동 차원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식 교수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초월 스님의 가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 진관사 독립운동본부로서 역할에 대한 연구,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의 비교 연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심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구성원의 성격이 궁금하다"며 "용성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외형상 유사점이 보이기도 한다. 세 스님의 관계를 이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주현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조선독립신문〉과 민족운동', 송명호 태극기전문가의 '진관사 태극기에 대한 재조명' 발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8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몸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축생 같다면… 그는 축생이다

법석 향봉 스님
'〈육조 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사와 스승을 찾아서 떠나는 길' 첫 번째 강사인 향봉 스님은 8월 4일 2차례에 걸쳐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향봉 스님은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육조단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향봉 스님은 "현대지식인들이 불교를 외면하는 이유는 구참자에 대한 한국불교의 형식과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를 비판하다

〈육조단경〉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겠다. 성철 스님은 스님의 저서인 〈선문정로(禪門正路)〉와 〈백일법문(白日法聞)〉에서 오매일여(寤寐一如)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간화선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은 몽중일여(夢中一如)에서 가일층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오매일여의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제방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수행승들이 자가 점검하는 데 있어 매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조금은 교정을 필요로 한다. 잘못된 수행관은 야단법석을 통해 지적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나만의 개인적인 수행력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어록을 근거로 밝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들은 낮에 깨어 있을 때나 밤에 잘 때나 똑같이 화두를 놓지 않고 생생하게 참구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다.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 잠 속에서도 들어야 하며, 만일 잠 속에서 화두를 놓치거나 망각, 또는 상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완의 깨달음으로서 돈오(頓悟)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됐다. 오매일여란 낱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능엄경〉이다. 〈능엄경〉 10권째에는 "생각이 다 없어지면 깨어있을 시 번뇌에서 자유롭고 잠을 잘 때는 망념에서 자유로워 낮과 밤이 한결 같다"고 기록돼 있다.

〈육조단경〉에서 혜능 선사가 말하고 있는 생각의 자유, 모양에서의 자유, 머묾에서의 자유가 곧 낮이나 밤이나 한결 같은 오매일여의 경지 일 터이다. 오매일여란 단어를 어록에 등장시킨 중국 몽산 선사나, 원오근 선사, 그리고 간화선을 재창한 대해종고 선사 역시 오(寤)와 매(寐), 보리와 번뇌를, 낮과 밤을 둘이 아닌 하나로 보란 뜻으로 오매일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잠이 깊이 든 단잠 속에서도 화두가 일여하다면 그는 화두의 노예일 뿐 진정한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의 선지식은 아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낮과 밤에 따라 생체 리듬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누워 5분도 안 돼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수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의 수행자들이 오매일여의 잘못된 수행관에서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바란다. 화두는 마음을 모아가는 길라잡이일 뿐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일 수는 없다. 깨닫는 순간 화두마저 군더더기일 수밖에 없다.

동서남북 중앙에 서있는 나…중도(中道)

부처님은 스승이요, 불교도들은 그의 제자일 뿐이다. 불교에는 섬겨야 할 신(神)이 없는데도, 사찰의 현주소는 섬겨야 할 신도 많고, 영험 있는 불보살도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부처님 역시 〈잡아함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보다 나은 행복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개신교의 예수 역시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행복추구"라고 정의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은 서쪽이라고 말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쪽이라고 봐야 하는가.

정답은 바로 모든 사람이 서 있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정한다. 그렇다면 동서남북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중도(中道)사상이다.

팔만사천경전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연기법칙(緣起法則)이고, 둘째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우리는 중도사상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中庸)' 사상과 불교의 중도를 혼용해 설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사는 5가지 생활지표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삼으라 했다. 하지만 이 5가지 덕목을 생활지표로 삼되, 넘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자사가 말하는 중용사상의 핵심내용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좌로도, 우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불교의 중도로 인식하고 있다.

한 생각만 열고 보면 이 자리가 사바예토가 아닌 극락정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말했다. 팔만대장경을 원효는 다섯 자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표현했다.

중국의 임제 선사는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뜻으로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서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만약 내 나이가 70세인데, 누가 인생 중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일깨워 준 중도사상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각의 윤회다. 몸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축생 같은 사람은 축생이나 다름없다. 싸움과 전쟁을 일삼는 자는 아수라의 다툼세계에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지옥이요, 열려 있으면 천국이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요, 불만과 권태로움 속에서 허덕인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 법이다.



향봉 스님은… 동진출가해 1962년 사미계, 196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교신문사 편집국장・주필・주간・부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감찰국장 포교부장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경승단 초대단장과 청평사・보광사・내장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에서 15년을 머물기도 했다. 1973년 9월 〈현대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겨울장마〉,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사람의길〉 등 20여 권이 있다.

한국불교 외면 당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탓
출가자는 재가자에 기와불사만 강요한다
절 많이 지으면 뭐하나 속은 썩고 있는데
한국불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산다

하지만 코 밑의 입만이 입이 아니다. 두 귀는 듣는 입이요, 두 눈은 보는 입이다. 두 개의 콧구멍은 냄새 맡은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모조리 조심하고 길들여야 할 또 다른 입인 것이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욕설과 기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코 밑의 입뿐이겠는가. 눈짓으로 말할 수 있고 얼굴 표정, 몸짓, 손짓으로도 얼마든지 긍정도 부정도 표현할 수 있다.

부처를 절대 멀리서 구하지 말라. 육조혜능 역시 정토 극락세계는 마음이 열려있으면 바로 앉은 이 자리가 극락이라고 말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主 而生基心)이라는 말이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마땅히 집착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즉, 이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태복음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시 열려 있다. 구하지 말라.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이 힘들다."

실천 수행을 으뜸으로 삼고, 깨달음을 이뤄 부처가 되는 것이 수행의 최고 목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생활이 곧 도(道)요, 평상심이 곧 극락이다.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육조혜능이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단(壇)을 쌓아서 전했다는 것으로 성스럽다는 뜻이다. 대승부 경전인 〈육조단경〉은 육조혜능의 설법집이지만 돈황본, 덕이본, 종보본 등 성립 연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수행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설해진 것이 아함부 경전이라면, 부처가 돌아가신 뒤 500년 후에 만들어진 경전은 대승부 경전은 다양한 것으로 포장돼 있다. 돈황본 〈육조단경〉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덕이본, 종보본은 드라마틱한 부분이 더해지고, 문장이 다듬어져 있다.

혜능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다. 〈육조단경〉은 깨달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빛줄기가 가득한 안내서이다. 〈육조단경〉은 승려의 가르침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인 경(經)으로 이름 붙여진 최초의 책이다. 〈육조단경〉은 진리로 가득하고 막힘없이 열려있다. 단경은 생각에서의 자유(無念), 모양에서의 자유(無相), 머묾에서의 자유(無住)를 가르치고 있다. 누구나 이 경전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리라. 물 맛도 먹어봐야 안다. 이 경전을 읽으며 육조혜능이 돼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상을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의발을 전하는 육조[五法傳衣]

〈육조단경〉에 보면 말씀이 열려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행자 혜능이 깨달음에 이른 과정은 아름답다. 스승인 오조 홍인의 파격적이고 탁월한 안목 또한 아름답다.

혜능 스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다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5조 홍인이 머무는 사찰에서 수행을 시작한다. 그는 방앗간에서 행자생활을 사면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는 신수의 게송을 들었다.

혜능은 이 게송을 듣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틀이 없는 것, 부처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을까보냐"라고 답했다.

5조 홍인은 행자의 깨달음을 인정했다. 이제 행자에 불과한 그를 홍인은 불러 둘만의 한차례 점검을 마친 후 달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의발을 전했다. 6조 혜능의 탄생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초입자가 그따위 말을 하냐"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불교는 망치로 깡그리 때려 부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승려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법상에 앉는다. 한국불교는 썩어빠졌다.

장삼도 마찬가지다. 더운 여름 더우면 최소한의 옷만 입어도 된다. 지금 한국불교가 형식과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지식인들은 불교를 외면한다. 승려들이 재가자에게 기와불사 같은 불사만 말하기 때문이다. 절 10곳을 짓고 탑을 100개 짓고 마는 것은 외형적인 팽창일 뿐이다.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불교다.

출가 20~30년 된 사람을 구참자라고 한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관습의 벽에 갇혀있다. 구참자에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서 "출가한지 20~30년 된 수행자에게 말 조심하라"고 조언 한다.

고시원에서 10~20년을 공부하고도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인생이 실패작인 것과 같다. 그런데 선방에서는 오랜 수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불교는 초등학생이 대학원생인 척하면서 죽비소리에 맞춰 잘못된 것을 반복할 뿐이다.

주지 취임식은 또 무엇인가. 삼국시대에 주지 이취임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주지 이력을 보면 10안거 성만, 20안거 성만이라고 한다. 한국불교는 지성인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육조단경〉을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육조혜능과 달리 연륜과 서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불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불기 2555년 대한불교대승종
봉 행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2555년 9월 1일 ~ 9월 3일 (음 8월4~8월6일)
■ 입 재 : 불기2555(2011)년 9월 1일 목 오후 3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3시까지 접수)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개인비품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2) 952-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1-9704-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대승종 교구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여여 무여 합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계율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해도 부처가 된다

혜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두 번째 법주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은 8월 5일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율보다 중요한 것이 계이다. 계는 참된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다"라며 "계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불교의 수행이 아니다.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해 계의 근본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법문했다.

계와 율이란

계율(戒律)이라는 것은 본래 '경계하다, 조심하고 주의하다, 타이르다'라는 뜻을 가지는 계(戒)와 법령(法令)을 뜻하는 율(律)이 복합된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는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착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착하지 못한 말이 입을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착하지 못한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뜻이다. 즉,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해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에 감동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면 삼귀의계가 성립된다. 이어 '이 목숨 다하도록 죽이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도둑질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사음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거짓말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술 마시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 오계가 성립된다.

오계에서는 특정 행위를 꼭 지키겠다가 아닌,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부득이하게 내가 파리 한 마리를 죽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살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계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십계, 구족계 등과 관계없는 자신만의 계를 맹세할 수 있다.

율은 다르다. 율은 규칙이고 규율이다. 강제적이다. 율은 계와 달리 반드시 그 규율을 지켜야만 한다. 율은 반드시 부처님만이 제정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제정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지켜야할 규율을 모아 놓은 것을 삼장(三藏)이라고 한다. 이 삼장 가운데 율장이 있다. 출가 수행자는 계를 자발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 율장에 의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있다. 예로 오계를 수지한 재가불자는 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참회하고 자기 마음이 편하도록 속죄물을 바치거나 참회기도를 올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는 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된다.

출가제자는 승가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오편칠취(五篇七聚)에 의해 죄의 무게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가령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오전 이상의 돈을 도둑질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바라이'라 해 교단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 13가지 죄를 지으면 6일 이상 외딴 곳에 따로 살면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죄에서 풀려날 때는 20인 이상의 승가에서 풀어줘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역경하는 스님이 '율(律)'을 '계(戒)'라고 번역한 것은, 타율적인 것이 있더라도 수행의 입장에서 자기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해 지키라는 뜻에서였다. "율은 불법의 수명이다. 율이 흥하면 불법이 성하고 율이 무너지면 불법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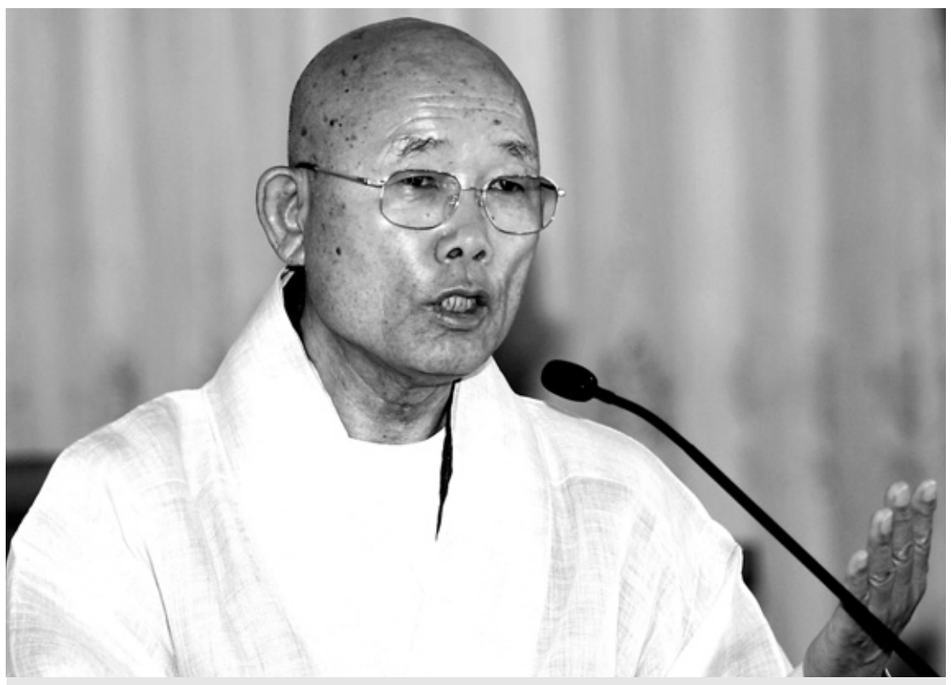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도, 율장도 없었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수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율장이 생긴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부터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500백 비구들은 몹시 슬퍼했다. 그때 발난타라는 이가 비구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며 "그대들은 근심말라. 세존이 멸도하시니 우리들은 자유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잔소리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불법 소멸을 걱정해 3개월 뒤 필발라국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을 초청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집했다. 그때 가장 먼저 율장이 편집됐다. 율장이 제정된 10가지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대중을 감싸 안아 주기 위함이다. 둘째 대중을 화합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대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다섯째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아직 불법을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이미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마음을 증장시키기 위함이다. 여덟째 현재 세상의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아홉째 후세의 탐욕으로 인한 나쁜 업을 끊기 위함이다. 열째 올바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계는 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은 남이 무서워 지키는 것이지만, 계는 참된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를 지키는 것은 글을 지키기보다,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율을 지켜도 불교의 수행이 아니다. 부처님도 유언 법문에서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다.

계의 사과(四科)

원효 스님은 "계의 조목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체득해 걸림 없이 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심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혜능 스님 역시 "마음 밭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이다"고 하셨다.

계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정할 수 있다. 신라시대 자장 스님은 출가해 산중에서 수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선덕여왕은 사신을 보내 자장 스님에게 국정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이 부탁을 거절하자, 선덕여왕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베어오라고 명했다. 이 말을 들은 자장 스님은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파계하고 100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장 스님 당시는 정식으로 계를 받기 이전이다. 이것은 '도를 이루기 전에는 결코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혜남 스님은… 혜남(慧南) 스님은 1963년 창녕 관용사에서 득도, 67년 부산 대각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을 강사로 전강을 받은 후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가 대정대학에서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법주사 승가대학에서 강주로 학인들을 지도했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제2대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도사 율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계(戒)는 습관 행위 도덕 경건의 뜻 있어
불교의 계는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
역경승이 율(律)을 계로 번역했던 까닭은
타율적인 것도 자기 수행으로 섭수하란 뜻

계라는 말의 어원은 범어로 시라이다. 습관, 행위, 도덕, 경건 등의 뜻이 있으며 넓은 뜻으로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두루 통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계를 받으면 계의 몸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계체라고 한다. 이것은 계법(戒法), 계체(戒體), 계행(戒行), 계상(戒相)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계법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십계, 구족계, 보살계 등을 말한다. 계법은 오로지 부처님만 제정할 수 있다. 계를 설명하는 사람도 참선에 대한 경험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계율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계체란 계의 몸, 계의 근본, 계의 본질이다. 계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계사스님의 작법에 의해 마음속으로 부처님 계법을 꼭 받아 지녀 파하지 않겠다는 굳을 결심을 가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계의 몸을 뜻한다. 계행이란 마음으로 맹세한 계체를 바탕으로 계법을 마음에 새기고 외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계상은 계행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 계체는 부파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형상이나 빛깔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뜻의 무표색(無表色)을 계체로 삼고 있다. 몸으로 짓는 업이나 입으로 짓는 업은 함께 무표색이라는 색법(色法)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량부(輕量部)에서는 무표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의 실천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고 실체는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소승의 계는 수계할 적에 "목숨이 다할 때까지"라고 시간적인 제한을 정해 놓고 계를 받는다.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를 몸과 목숨이 끊어질 때 까지만 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대승보살계에서는 한번 계를 받으면 영원히 계체를 잃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살영락경〉에서는 "일체의 보살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함으로써 체를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겠지만 마음은 다함이 없는 연고로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고 했다. 죽어서도 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범망경〉의 보살계

보살계는 심지계다. 마음으로 지키는 계다. 보리심은 아누다라삼먁삼보리심이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문수 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53선지식을 만날 때 "나는 이미 위없는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켰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에서 보리심은 아주 중요하다.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 미륵 보살은 "만일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려면 먼저 그 발을 편안하게 한 뒤에 활 쏘는 법을 익히듯, 부처님의 일체의 도리를 배우려 한다면 먼저 마땅히 보리심에 안주한 연후에 일체불법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는 "등불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백 천년의 어두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등불고 이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방의 안으로 들어가면 백천만억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지은 모든 번뇌 업장의 가지가지 장애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다.

보리심은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계를 파해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파계한 것이 아니다. 법안종의 제3조인 영명연수 선사는 "새벽에 계를 범해 응당 죄를 받아야 할 사람도 나중에 보리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를 성취해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망경〉의 보살계는 불승계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지만 세월에 걸쳐 지은 업장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중생들이 보살계를 받으면 자신의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계를 한번 받으면 계체는 영원해 금강보계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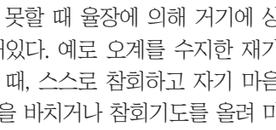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 〈법망경〉에서는 "법사의 말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계를 받으라고 했다. "계를 받고 범하면 보살이고, 계를 받지 않으면 외도이다"라는 말이 있다.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 계를 받아서 범하면 오히려 더 업장이 두터워질까봐 계를 받지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장이 두터울수록 계를 받아야 한다. 보살계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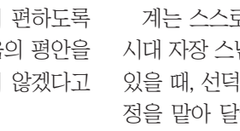
보살계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남에게 권해야 한다. 〈영락경〉에 이르기를 "만약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식(情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축생과 다름없고, 사람이라고 이름 할 수 없다. 보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어서 축생이라 부른다. 계를 범함은 있어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잃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보살계는 그 공덕을 설명해 아내, 남편, 아들, 딸, 며느리는 물론 친구, 일가친척 모두에게 권유해야 한다. 보살계는 받는 즉시 공덕이 된다. 〈문수보살경〉에는 "어떤 사람이 반야설함을 듣고 만약 비방을 일으켜 믿지 아니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 보다 수승하다"고 했다. 그러니 업장을 많을수록 보살계를 받아야 하며, 보살계를 받으면 업장이 소멸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유문암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 석조여래불

강진 옴천사… 7대 걸친 소장품

화산석인 유문암으로 조성된 석조여래좌상이 국내 최초로 전남 강진 옴천사(회주 정암)에서 발견돼 학계와 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이 석조여래좌상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석의 하나인 유문암으로 조성됐고, 얼굴은 목재로 조각해 결구조립법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형식의 불상이다. 특히 돌로 된 불상에 명주천으로 배접을 하여 개금을 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시·도 문화재 급' 감정
옴천사 신도 친견 기회 마련키로

문화재청 손영문 문화재 불상 전문위원은 결과 보고서에서 "촘촘한 나발로 조성된 머리에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형의 정상 계주를 갖고 있으며, 두터운 법의를 걸친 통견착의법과 가지런히 포개어 모은 선정인을 한 수인은 17새 조선시대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이어 "현재 전남의 17세기 불상중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는 불상이 양적으로 일부 남아 있으나, 이 지역의 불교조각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문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갑자기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결정이 작거나 유리질이며 암석 색깔이 밝고 구성 광물로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전암대자율 측정 및 방사성 동위 원소 비파괴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강진 옴천사 불상은 자연 암석을 이용해 제작된 유문암에 가까운 산성 화산암류로 추정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상 개금 전문가인 이경보 원장(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739호)도 옴천사 석조여래좌상의 특징으로 "개금은 일반적으로 목불, 토불, 지불을 재료로 조성된 불상은 보통 배접을 하여 개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옴천사 석조여래좌불처럼 석불에 배접을 하여 개금한 사례는 처음이다. 학계의 귀중한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7대를 이어 보관해온 정암 스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산석인 유문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인 만큼 소중한 문화재이다.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 잘 보존하고, 신도들이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석조여래좌상은 정암 스님의 은사인 정업 스님(前 선각종 종정)이 해남 대흥사에서 수행정진 할 때 은사인 각성 스님이 소중하게 보관해온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옴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문암으로 조성된 석조여래좌상

국가 지정전통사찰 제92호로 지정된 옴천사의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56㎝, 무릎너비 36㎝, 얼굴길이 11㎝, 귀 길이 12㎝, 불상복장은 개구부 7㎝×7㎝ 복장골 지름 5㎝, 깊이 12㎝불상 무게는 33.5㎏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처님 아들·딸로 무럭무럭 자라렴"

동련,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
정관 스님, 도반의 소중함 강조


회향법회에서 모든 어린이 참가자에게 정관 스님에게 마정수기를 받으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동련(이사장 심산)은 8월 7~9일 2박3일간 부산 수영구 영주암(회주 정관, 조계종 원로의원)에서 제1회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열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주최, 동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위원회 설립 이후 첫 전국 규모의 어린이불교학교라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가자는 선착순 350명에 한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50여 명의 어린이지도자 및 봉사자를 배치했다.

정관 스님은 "옷깃만 스쳐도 과거생의 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영주암에서 2박3일을 함께한 도반들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부처님의 자랑스런 아들·딸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진각종은 자성동이 풋살대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 포교 발판 기대
범종단 행사로 확장 계획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진각종립 경주 위덕대에서 8월 10~11일 이틀간 개막 됐다. 자성동이는 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진각종단의 애칭이다.

진각종은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불자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6년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진각종은 대회를 통해 어린 불자들이 종단발전과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심인당에서 16개팀 500여 명의 선수들과 중등부 6개 시범 선수단 그리고 학부모와 종단 관계자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여했다. 8강전은 대진추첨을 통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유치부 자성동이 친선경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화합의 장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까지 성적 위주 시상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일어난 팀들간의 불만을 보완해 개최 취지인 화합과 단합을 살려 매너플레이상 응원상 단합상 봉사상 예절상 질서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진각종 통리원은 자성동이 풋살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중등부 축구대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불교계 범종단 행사로 확장시켜 청소년 포교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은 포교를 위한 축구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포교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마음 가꾸기

익산 숭림사 템플스테이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사체험과 인성교육 및 한문을 익힐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8월5~7일 2박 3일간 31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숭림사 템플스테이는 발우공양, 예불, 108배, 참선, 명상, 운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직접 제작한 교재를 통해 배우는 한문 교실, 영어,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도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만독 관음 백일기도 3년 회향

9월 8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

8월 7일 자정 무렵. 태풍 무이파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한반도 남해와 서해상을 스쳐지나갔다. 옷깃 스치듯 태풍은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지만 일본과 맞닿은 부산 전역에는 폭풍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짓궂은 날씨는 천태종 삼광사의 3000여 불자들의 신심과 기도 원력을 이기지는 못했다.

삼광사에서는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일심청정 백만독 관음 백일기도'가 6월 1일~ 9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기도는 해를 거듭해 갈수록 불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기도 원력으로 이제는 어엿한 하루 일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매일 밤 11시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짧은 법문을 들은 후 바로 기도가 시작돼 새벽 3시 정각에 회향한다. 하지만 모든 불자들은 귀가하지 않고,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그리고 마을버스 첫 차가 산문을 통과하는 5시까지 법당에서 새우잠에 든다. 이렇게 밤을 새워 치열하게 염불수행을 한 불자들은 집으로 귀가해 가족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거나 곧장 직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옥 씨(58·부산진구 개금동)는 첫해에 비해 자유로워진 수행 환경이 누구보다 반갑다. 김씨는 "첫 해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반드시 지관전에 착석하고, 새벽 3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진해야한다는 철칙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은 직장이나 집안일 탓에 매일 정시에 동참하는 규율은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도는 11시에 시작하되 누구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 일찍 시작하든 서둘러 회향을 하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해를 거듭해갈수록 기도의 풍속도도 변했다. 첫 해에는 밤새도록 지도법사 스님의 집전에 맞춰 기도했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선배불자들의 안정된 관세음보살정근에 따라 초발심자들도 빠르게 배워나갔다.

이제는 스님이 처음 10분 정도만 이끌어주면 그 다음은 신도들이 기도의 중심에 서서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불자주도형 수행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웃집 도반의 권선으로 처음 참가한 이미수 씨(53·기장군 정관면)는 "절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아서 매일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버겁고 피곤해 기도 중간 중간에 선잠에 빠진다. 하지만 자율학습처럼 원하는 시간에 입재하고 회향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각과 사실의 혼동에서 벗어남이 '깨달음'이다

용타 스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금강경〉이 대승경전이라면 초기불교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고한 해탈을 원한다면 생활 속에 〈금강경〉이 있어야 한다."

용타 스님(함양 행복선원 회주)은 8월 5일 3번째 법석에서 '〈금강경〉의 생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용타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생활화를 강조하지만 '상(相)'에 대한 경계만 강조돼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전달되지 못했다"며 "발원하는 삶과 육바라밀을 실천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표상적인 관념으로 분별 시비 집착에서 벗어나는 '즉비(即非)' 수행법도 설명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금강경〉의 핵심

〈금강경〉은 한국 불교 소의경전으로 대승불교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공(空)은 대승불교의 대표개념이다. 〈금강경〉에는 공의 뜻이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 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금강경〉은 대승불교 초기에 만들어져 중국 선종 제5조 홍인 이래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원효 스님이 〈금강경소〉를 저술한 것을 비롯해 많은 주석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금강경〉은 사교(四敎: 능엄, 반야, 기신, 원각)중 반야부로 분류돼 스님들의 전문 교육기관인 강원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임에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전은 읽어서 뜻이 체화 돼야 한다. 경전의 뜻을 흡수하면서 경전의 뜻대로 살아 해탈을 해야 한다. 〈금강경〉이 삶이 되고 인품이 되려면 뜻이 체화 돼야 한다. 경전은 목적을 살려주는 수단 · 도구 · 방편이다. 금과옥조로 여기는 모든 경전은 뗏목과 같음을 잊지 말라.

〈금강경〉 핵심 메시지를 알고자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사성제(四聖諦), 12연기, 팔정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다. 이것이 오리지널 불교다. 〈금강경〉 이전에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부터 공부하라. 〈금강경〉은 연기법을 전하는 교재다.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초기 불교는 지식인을 위한 불교였다. 부처님의 근본불교를 이어받은 여러 부파불교들은 상근기(上根基) 외에 모든 중생 구제를 고민했고,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켰다.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첫째, 마음 깊은 곳부터 '무한 우주에 있는 유정무정, 유형무형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큰 발원(發願)이다.

둘째는 그 발원에 부응하는 중생제도를 위해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불을 돕겠다는 보살원(菩薩願)이다.

셋째는 육바라밀의 삶을 살되 육바라밀의 삶의 태도가 흔적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청정심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대승사상은 경전에 표기 하던 하지 않던 전제된 기초 신념이다.

〈금강경〉 역시 마찬가지다. '온 중생을 제도하리라' 고 발원하고, 제도의 길인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금강경〉의 무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곧 파상(破相;상을 깨뜨리다) 사상인 즉비(即非)를 강조하는 나머지 중요한 대승불교의 본 뜻이 부각되지 못했다.

〈금강경〉은 32분절로 분류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경의 구성은 도안(道安;314~385)이래 전통적으로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구분한다. 정종분에서 궁극의 깨달음[究竟覺]의 제1조건인 '구류중생(九類衆生; 卵生 胎生 濕生 化生 有色 無色 有想 無想 非有想非無想)을 모두 제도하리라' 고 서약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무아(無我) · 공(空)사상은 대승불교 이전에 많이 나왔다. 〈금강경〉이 대승 경전이라면 '모든 존재를 제도하리라' 서원하고, 그 제도 행위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최고의 진리를 배우고 닦으려는 마음을 낸 선남선녀는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의 내용이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무릇 있는바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고 말한다. 첫째와 둘째 구절은 모든 존재의 허망함을 일깨운 것으로 현실을 바로 보게 한 내용으로 '마음자세' 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셋째, 넷째 구절은 허망한 가운데 허망치 않은 존재(여래)를 말한 것으로 참된 수행방법과 목표의식을 뚜렷이 설파해 마음을 다스리도록 했다.



용타 스님은…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64년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동대학 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66~1974년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를 하던 스님은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1980년 동사섭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제 귀신사 회주,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를 맡고 있다. 석사 논문으로는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해탈 10분〉 등이 있다.

경전을 익어 뜻대로 살아야 해탈
대승은 '행동하되 걸림없는' 삶
〈금강경〉은 구유중생 제도가 바탕
'상(相)' 세우지 않는 실천 중요해

명료한 마음 다스리는 길 첫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발원' 이다. 진정으로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즉 마음이 허공처럼 자유롭고 바다처럼 자비로워 지는 마음으로 발원해야 한다. 온 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마음이 떨리는 감동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 하나만 간절하면 된다. 실천은 매일 반복해서 '온 중생을 제도하리라' 고 하루에 100번씩 100일만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면 반복한 것이 현실로 들어나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주를 보듬어 보라. 내 자식들을 보듬을 때 따뜻해지듯, 전 존재가 따뜻하게 안아진다.

발원기도를 반복하라. 일념(一念), 유심(唯心)이 반복하면 진리에 이른다. 성취하겠다는 목표의식 다음에는 목표실현을 위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태도가 중요하다. 해 놓고 생색을 내는 것을 상(相)이라고 한다. 행위를 하면서도 상(相)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는 육바라밀행을 해야 한다. 행하되 태도가 좋아야 한다. 이를 '즉비(即非)' 라고 한다.

깊은 사유 없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게 되면 상(相)없이 하라는 이야기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원과 육바라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비(卽非) 시명(是名)

〈금강경〉을 이해하기 이전에 삶부터 이해하라. 〈금강경〉이 목적인가, 우리 삶이 목적인가?

삶은 주객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주객의 만남이란 마음(識)이 육근(六根;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 육경(六境;色聲香味觸法)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인생을 살펴보자. 눈앞에 보이는 남편, 아이의 울음소리, 커피 향, 달콤한 꿀 맛, 산뜻한 바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그런데 주(主)인 마음에 객(客; 대상)인 남편, 아이의 울음, 커피 향, 꿀 맛, 바람, 어머니가 마음에 흔적으로 찍힌다. 이것은 분별, 시비, 집착이고, 촉수애취유(觸 · 受 · 愛 · 取 · 有) 곧 상처를 남긴다. 주객의 만남이 촉이다. 촉이 있으면 수(느낌)가 있고 느낌이 시작되면 애증이 시작된다. 좋은 것은 끌어들이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고 취한다. 취(取)하게 되면 내 아뢰야식에 쌓이게 된다.

인생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이다. 말이란 곧 개념과 명제이다. 명제는 개념에 엮어진 것이니 결국 말이란 개념일 뿐이다. 개념은 주관적인 표상(表象)이다. 표상은 관념이요 생각인 표상일 뿐 지칭하는 사물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과 사물 자체인 사실(事實)과 혼동하며 산다. 생각과 사실의 혼동에서 벗어난 심리상태를 '깨달음' 이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컵' 을 보이는 '컵' 그대로를 사실로 아는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 얼마나 숭엄한 깨달음인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몰(沒)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컵은 곧 컵이 아니다. 우리가 뱉어내는 무수한 개념들은 깨어있지 않는 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저승사자임을 알아야한다. 사람은 유 · 무형의 무수한 사물들을, 그 사물 자체(Ding an sich)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표상하는 관념물을 그 사물 자체인 것처럼 여긴다. 분별 시비 집착의 늪을 허우적거리며 무수한 고통과 싸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것처럼 사는 것이 고통 받는 중생들의 삶의 실상이다.

'A이다[常見]' 'B아니다[斷滅]' 의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해탈의 마음이 문제다. 상견이나 단멸이나 모두 마음에 찍히면 그것은 흠이 된다. 상견도 단멸도 모두 즉비로 부정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색도 공이요, 공도 공이다' 는 식의 명제가 가르침으로 내려오고 있다. 〈금강경〉의 '즉비(即非)' 는 '공(空)' 과 같은 뜻이다. 〈금강경〉은 비(非)로 부정하고 시명(是名)으로 살려내는 진공묘유를 드러내는 형식의 표현으로 현실과 이상을 한자리에서 구현해 내고 있다.

즉비가 수긍되는 순간 무념, 무상, 무주가 체험되는가 체험해 보라. 무념(無念)차원에서 허공같은 자성을 유념관조하고, 무상(無相) 차원에서 물 자체를 유념관조하고, 무주(無住)차원에서 걸림없는 삶을 유념관조하라. 이 경험을 1000번 정도 연습해보자.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편의상 '무엇' 이라고 표현 할 뿐, '무엇' 이라는 표상물은 결코 '무엇' 자체는 아닌 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면 된다. 즉비 경험 자체가 니르바나다.

부처님은 "이치가 그러하니 나 붓다는 그 이치대로 관조하므로 걸림없는 삶을 산다. 그러하니 제자들도 나 붓다처럼 이치를 깨닫고 이치대로 천하를 관조하며 걸림없는 삶을 살 것이며, 천하의 중생들도 그러하길 바란다"고 권장했다. 이때 이치란 연기법이요, 이치대로 관조함은 즉비, 무아, 비아, 무념, 무상, 무주 등이다. 걸림없는 삶이란 해탈 · 대자대비 · 니르바나이다.

즉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한 고비라면, 이 고비를 넘은 다음 즉비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형성된 습관성 업장을 즉비라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벗어나야 한다. 즉비를 이해하는 것이 돈오(頓悟)이며, 이것을 활용하여 습관성[업장]을 벗어나는 일이 점수(漸修)이다. 곧 〈금강경〉은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품을 요청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성취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사유(正思惟) 곧 사색이었다. 즉비 이해를 위한 비결은 사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승의 뜻은 간단하다. 소승이 '걸림없음' 이라면 대승은 '행동하되 걸림없음[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다.

특별취재팀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공부할 때는 잠자고 먹는 것 조차 모두 잊어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백양사 야단법석 마지막 법석은 8월 6일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로' 로 마무리 됐다. 시몽 스님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수행의 진전된 상황을 때에 따라 점검 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신속하게 배움을 실행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든지 수행을 하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나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지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몽 스님의 법문이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다

어떤 일에 뜻을 두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다. 반드시 스승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것처럼 스승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의 문에 들어선 스승을 찾아야 한다.

진실로 수행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수행법을 지도 받아 수행의 진전된 상황을 때에 따라 점검 받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불자들에게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황벽 스님은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야 말로 비상한 일이니, 절대 긴장해서 화두를 붙들고 한바탕 결판내야 한다. 한차례 뼈 속 깊이 파고드는 강추위를 지나지 않고서는 어찌 매화가 코끝을 스치는 향기를 맡으리"라고 하셨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실제 수행자가 지녀야 할 모습이다.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대 고행과 절대 긴장한 정진이 함께 있어야 한다.

배우는 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 된다. 부모형제와 친구는 물론 돌멩이 하나에서도 스승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은 배움을 준다. 특히 작은 가르침이라 해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공자의 정훈(庭訓)은 가정교훈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공자의 제자 진항이 어느 날 공자의 아들 백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선생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받으셨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백이는 "그런 일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뜰앞을 지나치려 하자 '시경을 읽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시경을 읽지 않으면 인정과 도리에 통하지 않아 바르게 말을 할 수 없다' 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시경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또 '예경을 읽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 제서야 예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두 마디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법이다. 인격체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는 바로 이런 인격체가 완성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해 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버지와 배우는 아들 사의 신뢰이다. 가르치려는 아버지와 배우려는 자식의 모습이 하 눈에 들어온다. 특히 군더더기의 말도 없이 배움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수행에 정진해야

스승을 찾게 된다면 단순히 학습하듯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예전 운문문언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목주 스님을 찾아가 도를 묻기로 했다. 목주 진손숙 스님은 운문 스님을 멀리서 보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운문 스님은 문을 두드리고 목주 스님에게 물었다.

"누구냐" "문언입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목주 스님은 문을 열고 운문 스님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곧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목주 스님은 운문 스님에게 자기의 일을 밝히러 왔다니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운문 스님은 사흘을 연달아 목주 스님을 찾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했고, 목주 스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여준 뒤 문을 걸어 잠갔다.

목주 스님은 결국 깨닫지 못하는 운문 스님에게 "이 도력찬 같은 놈아"라고 하며, 운문 스님을 밀어버리고 문을 닫으려했다. 그 순간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의 방에 쳐들어가기 위해 문 안으로 발을 들어



시몽 스님은… 1950년에 출생, 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5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8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1969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제주 법화사 주지 취임 후 30여 년간 제주불교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2008년 9월 18일 백양사 주지로 임명 돼 재직 중이다.

어떤 일 이루고자 할 때 혼자서는 무리
선재동자 구법행처럼 스승 찾아야 해
배우는 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 된다
부모형제 · 친구 · 돌맹이도 가르침 줘

놓자마자 목주 스님이 문을 힘껏 닫는 바람에 정강이가 부러지고 말았다.

스님은 결국 "악!"하며 소리를 질렀고, 순간 도를 깨쳤다. 이처럼 극도에 달해서 목숨을 걸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추가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분명히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기와 역량이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지난날 크게 통달한 사람들은 종지를 체득한 뒤, 굳게 문을 잠그고 깊숙이 숨었다. 그리고 맞고 거슬리는 방편을 사용해 일부러 해를 끼치고 노여움을 나타내 꾸짖고 매질하는 등의 백천가지 수단을 부려 학인을 시험코자 했다.

그런 고초를 거치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살짝 밀쳐주고 한 조각 말과 조그마한 방편을 베풀었다. 이는 마치 매우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얻은 듯 감로수를 부어 주는 것이다.

남악 스님은 혜능 스님에게 있은지 8년 만에 "설사 한 물건이라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며, 능 스님은 설봉 스님의 회상에서 15년 동안 좌복을 7개나 떨어뜨렸다. 영운 스님은 30년을 참구했고, 용천 스님은 40년을 스승 밑에 있었으며, 덕산 스님과 임제 스님도 오랜 세월 스승의 문하에서 참구했다.

도는 아무리 많은 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오묘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경솔하고 태만한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가 스님은 "분골쇄신해도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니 한 구절에 은연히 백억구절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선지식을 참방해 법문을 듣고 참선하는 것은 참된 마음을 찾아볼 양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다. 본래 우리들 마음은 깨끗하고 맑아서 그 자리가 부처님인데 무명에 가려 욕망과 애착심 때문에 참된 성품을 어둡게 만든다.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하니 알듯 하면서도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물건은 더욱 아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길에 서서 입이 쓰도록 정령하게 말씀한 것들이 이 마음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즐겁고 편안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낙처(落處)를 안다. 마음을 닦으면 모든 면에서 지혜스럽고 통찰력이 생긴다. 보검을 만드는 데도 쇠를 불에 달궈 자꾸 두드려 쇠똥을 모두 빼내고 쇠의 정수만 남아 아무 잡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두드린다. 그리고 다시 불에 달궈 최후에 온도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물에 담갔다 건져낼 때 거기에 묘가 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천진하고 깨끗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과 팔만사천번뇌가 순금에 잡철이 붙듯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마음도 올바르게 하고 그 마음속이 아무 잡된 생각이 없다면 순금이 되고 보검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감성적 가치생활에서 이성적 가치생활로 향상된다. 이성적 가치생활은 이성적인 것과 반이성적인 양 대립이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시간 공간적 존재다. 우리는 순수한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삶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다닌다.

생사적 인간의 존재는 감성적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주체적 인간에 있어서는 이성 반이성적인 것과 생사적인 존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근본 성격이 절대모순이어서 이것을 자각하는 데는 종교의 진실한 계기가 있다. 인간 자신이 절대모순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말 아니할 수도 없으며,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없다.

논리적으로 절대모순, 감성적으로 절대고민, 의지적으로 절대딜레마이다. 이 셋은 하나이며, 나의 자신이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절대 긴장함을 선(禪)에서는 대의단(大疑團)이라고 한다.

목주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지금까지 조실스님에게 법을 물었느냐"고 물었을 때, 임제 스님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가 바로 물을 수도 없고 묻지 아니할 수도 없는 대의단에 빠진 상황이다.

대의단은 주관과 객관이 분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혼연히 뭉쳐서 궁극적이고 근원적이면서 절대 주체적인 것이다. 임제 스님은 이런 경지를 "나도 옛날에 깨닫지 못했을 때, 깜깜해서 아득했다. 광음(光陰)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 뱃속은 불이 나고 마음은 바빴다"고 말했다.

임제 스님은 깨달음에 들어 "나의 견처를 가져 말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얻는 자는 바로 얻어서 오랫동안 수행했다는 세월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과정이 없으면 안된다. 공부할 때는 잠자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의 리듬을 잊어버려야 한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 자리가 정토고, 부처이다. 마음자리를 그대로 내려놓고, 부처님이 행하던 대로 따라하면 그만이다.

특별취재팀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사서 : 석윤오, 박선혜화) (예경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법진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울산종무원장 석현종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것이 緣起이다

도법 스님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네 번째 법주로 나선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은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을 주제로 법석을 열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와 사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은 '생명평화경'에 있다고 주장하며 생명평화경의 요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종교, 이념, 지역, 국가궤도를 넘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범종교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생명평화경은 불교경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서, 동양철학, 불교의 정신, 현대과학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불교이야기가 되고 성서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성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자기 중심, 승단 중심의 이기성, 불교라는 집단중심의 이기성에 빠지게 돼 현실적인 한계와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과 한국 대승불교의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대승불교 훼손 심각한 문제

성철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를 슬로건으로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활동을 했다.

성철 스님이 말한 '부처님 법대로'와 내가 파악한 '부처님 법대로'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 차이점을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면 초기불교, 대승불교의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초기불교도 부처님 법대로 살기위해 생긴 불교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작용과 한계가 나타나 다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면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초기불교도 대승불교도 모두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한 가르침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대승불교가 탄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는 한마디로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불교였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의 불교는 개인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부처님과 초기불교 수행자의 차이점이다.

출가 수행자들이 여러 활동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 승단 중심의 이기성, 불교라는 집단중심의 이기성에 빠지게 돼 현실적으로 한계와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불교 수행자들도 방향과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불교를 신행하는 재가자들도 몸살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불교와 수행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줄고 불신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로 돌아가보면 역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불교에서는 출가자 집단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철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법대로'는 매우 중국불교적이다. 은둔적이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대승불교가 겪고 있는 모순, 혼란, 부작용과 폐단이 나타나다 보니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된것, 못쓰는 것, 심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와는 다른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승불교의 미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요소들이 많다.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과 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내놓은 것이 생명평화경이다.

생명평화경은 불교경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서, 동양철학, 불교의 정신, 현대과학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불교이야기가 되고 성서적 사유방식으로 보면 성서가 된다. 종교, 이념, 지역, 국가궤도를 넘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범종교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

돌이켜 보면 문명사는 온통 인간의 생존과 자족의 한계를 넘어 이기적 소유욕을 좇는 분리, 분열, 대립, 투쟁의 세월이었다. 자아, 가족, 민족, 국가, 종교, 이념의 관점에서 편을 나누어 자유, 정의, 평화의 이름으로 상대의 생명을 죽이고 평화를 파괴하며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대문명의 실상이다.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 하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지식(말, 관념)에 빠져 구체적 사실과 진실인 실상의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삶을 다루어 왔던 것이다. 자기 색안경의 소견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다. 도구로 사용해야 할 생각과 언어와 지식에 매몰돼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왜곡과 갈등과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작심하고 중도, 실사구시, 과학적 태도와 방법으로 삶을, 생각과 지식과 언어를 다루어야 마땅하다.

다른 하나는 문제의 근저에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릇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보편적 진리인 존재의 실상에 근거하지 않은 이원론, 실체론의 세계관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현대인 대다수가 첫 단추를 잘못 꿴 상태에서 다음 단추를 계속 꿰듯이 어느 한 측면과 부분을 절대화시키거나 왜곡시킨 그릇된 실체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벽을 넘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세계관이 필요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의 실상에 일치되는 보편적인 모든 세계관을 함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생명평화경이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 사상가들은 화엄의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제망중중무진연기법"이라고 했다. 온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을 설하고 있을 뿐 연기법이 아닌 내용은 없다는 말이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는 본래 그물의 그물코처럼 불일불이의 생명 공동체이다.



도법 스님은… 한국 실천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제주 출생. 1965년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했다. 1990년 젊은 스님들의 수행단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다. 1995년 남원 실상자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농촌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 실상사를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1998년 조계종 종단분규 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분규를 정리했다. 이런 왕성한 활동으로 도법 스님은 2000년대 성철·서옹·원효 스님에 이어 존경받는 스님에 꼽히기도 했다. 금산사 부주지, 실상사 주지 등을 거쳐 불교귀농학교장, 지리산생명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장 등 여러 직함을 갖고 있다.

목 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물 마시고
되살아난 것보다 더한 기적있나
생명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일 없다
전도몽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

실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중중무진연기의 세계관을 대승불교 수행론과 연결시켜 보겠다. 대승불교인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갖고 논란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구보리는 눈으로 존재의 실상인 인드라망 세계관과 철학을 확립하는 일이고, 하화중생은 손발로 인드라망 세계관과 철학을 전심전력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때문에 존재의 실상, 즉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정체성에 충실하게 실천하면 자리이타가 동시에 실현된다.

지금 여기 나는 자연, 이웃, 부모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존재한다. 온통 대상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상대들은 나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진정성을 갖고 조건없이 실상의 내용대로 낮추고 비우고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자타가 함께 화목하고 평화로워진다. 자리이타가 동시에 실현된다.

여기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마셨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지 않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 그보다 더한 신비의 기적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더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 기적, 신비다. 구체적 실상이 그러한데 우리들은 일상의 신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전생을 본다, 미래를 예언한다, 물 위를 걷는다 등 이상한 짓을 해야 불가사의하다, 기적이다, 신비하다고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불가사의한 기적이, 거룩한 기적이 늘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고 특별한 것만 가치를 부여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소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생명평화(인드라망) 무늬 이야기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사회,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등 원초적 물음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물음을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한다. 지금 여기 내 삶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이해가 왜 그렇게 절실하고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삶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올바른 방향과 길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화두를 잘 붙잡고 살아야만 어떤 삶을 살아도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자리이타, 즉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인생의 화두를 놓고 살면 아무리 심산유곡에 들어가 도를 닦아도 또 다른 모순과 혼란에 빠져 헤매게 되는 헛수고의 인생,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서 지금 바로 붙잡고 가야할 인생의 화두인 지금 여기 내 삶의 실상에 대해 따져봐야 마땅하다.

인드라망무늬는 화엄의 연기적 세계관과 정신을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그림이다. 무늬의 제일 아래쪽이 지금 여기 나(인간)이다.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날짐승과 물짐승이다.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이고, 붉은 원형은 해 하얀 원형은 달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관념에 물들기 이전의 본래 청정한 무위자연의 우주 삼라만상과 인위적 관념에 물든 이후의 인간 사회가 그물의 그물코처럼 불일불이의 총체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단순화시켜 표현했다.

지금 지구촌에는 꿀벌들이 사라져간다고 한다. 꿀을 따러 나간 벌들이 전자파로 인해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지구촌에서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4년 안에 대재앙이 인류 사회에 덮쳐 온다고 한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사과, 포도, 쌀 등의 먹거리가 생산될 수 없다. 먹거리가 없는 인류의 삶이란 고통과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더 많이 더 편리를 좇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그릇된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 때문이다. 사람으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고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인류의 운명도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꿀벌과 내 생명의 관계처럼 모든 상대들과 내 생명이 불일불이적 관계로 이루어진 모습의 실상을 시각화한 것이 생명평화무늬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본래부터 분리 독립해서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상호의존성과 변화성의 진리에 의해 도전의 양면처럼 서로 의지하고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와 사회, 세계의 실상이다. 마치 그물의 그물코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이 살고 싶은 평화는 어떤 것일까. 불일불이의 동반자이므로 너와 나, 이웃과 이웃, 인간과 자연이 존재의 법칙인 모심과 섬김의 질서에 따라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평화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생명평화무늬는 지금 여기 나, 사회, 세계의 실상과 생명의 염원인 평화로운 삶, 사회 즉 자리이타의 길인 자기완성, 사회완성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평화무늬의 세계관과 철학에 근거한 구체적 실천수행으로 '생명평화 백대서원 절명상'을 만들었다. 생명평화 백대서원 절 명상은 지금 여기 현장에서 자리이타 즉 자기완성, 사회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평화수행론이다. 잘 듣고 음미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선의 꽃 피우니 법계가 무궁하고 창성하네!

보림사

외호문에서 만나는 천년의 바람

길가에 한 발 비켜 선 일주문이 이채로웠다. 현판을 걸지 않은 그 문에서 한 참 들어 온 곳에 주차장이 있고 '가지산(迦智山) 보림사(寶林寺)' 라는 두 줄 쓰기 세로 현판이 걸린 외호문(外護門)이 있다.

그리 크지 않지만 외 5포의 웅장한 포집인 외호문은 단정한 모습으로 절의 찬란한 역사를 말해 주는 듯 했다. 문 안쪽 외호문이라는 현판 위에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 이라는 글자에 나팔수씨의 눈이 고정됐다.

"연혁에 선종이 가장 먼저 들어 온 가람이라 했고 이 문에는 선종대가람이라고 했으니 보림사와 선종의 관계는 특별한가봐?"

"여보님,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보림사는 구산선문의 원조도량이야. 좀 어려운 얘기니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

"…"

사천문(四天門) 안쪽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다. 천왕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어정쩡하게 생겨먹은 생령들이 한쪽 다리를 떠받치고 있어 웃음이 났다. 양쪽 천왕들 앞에는 빨간 왕방울 귀걸이를 한 역사(力士)가 주먹을 쥐고 머리통을 쥐어박는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무섭지는 않다. 1515년에 나무로 조성한 보림사 사천왕은 보물 제1254호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로하신 목조사천왕상이셔. 중간 중간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아, 1515년에 모셨다고 했으니까, 500살이 넘으셨네."

전해지는 조선시대 목조사천왕상의 경우 1690년에 조성된 청도 적천사 사천왕상과 1702년의 남해 용문사, 1704년의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이 손꼽힌다.

아홉 산에 열린 아홉 도량의 수행가풍

보림사 경내를 들어서니 두 기의 3층 석탑과 석등이 대적광전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왼쪽에 대웅보전이 있고 그 뒤와 옆에 건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쌍3층 석탑은 석등과 함께 국보 제44호다. 높이는 서탑이 5.4m, 동탑이 5.9m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신라 경문왕 10년(870)에 세워 진 것으로 전한다. 신라시대 탑으로는 보기 드물게 탑의 윗부분인 상륜부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 탑과 석등 그리고 대적광전 안의 철불이 같은 시기에 조성됐다고 하니까 모두 1100년이 넘은 유물들이지."

"탑이 참 안정감 있고 멋있네. 위로 치솟는 지붕돌의 맵시가 예사롭지 않아."

부부는 합장 3배를 하고 철제 경계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탑을 한 바퀴 돌았다.

대적광전의 철조 비로자나 부처님은 암갈색의 몸체에서부터 강한 이미지였다. 국보 제117호이며 높이는 273.5m. 신라 858년 장사현 부수 김언경이 녹봉을 시주해 2500근의 철을 사서 조성 했다고 전한다. 보조체징 선사의 비문에는 860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858년에 제작하기 시작해 860년에 완성한 것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월급을 떼어내 부처님을 조성하고 그 부처님이 1100년이 넘도록 후손들에게 공양을 받고 있으니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덧없는 것 같아. 시간 그 자체에 길고 짧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삼배를 마치고 부부는 법당에 편한 자세로 앉았다.

"아까 구산선문 얘기 하다가 말았지? 우리나라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구산선문이야. 중국,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달마로부터 이어지는 선불교의 법통을 이어받은 스님들이 속속 귀국해 절을 세우는 일이 10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9곳의 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절이 모두 9곳이지.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남한에 8곳이 있고 북한의 해주지역에 한 곳이 있어."



보림사 내경. 보림사는 보조체징 선사가 중창했다.

도의국사의 법맥 이은 구산선문의 원조도량
창성탑 철불 사천왕상 등 역사 속 불심 만발

보림사를 중창한 보조체징(普照體澄; 804~880) 선사는 충남 공주출생으로 어릴 때 출가하여 염거(廉居; ?~844) 선사에게 인가를 받았다. 염거 선사는 도의(道義; ?~?) 선사의 제자다. 도의 선사는 서덕왕 5년(784)에 당나라로 구법유학을 떠나 대륙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했다. 강서성 홍주 개원사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4) 선사를 찾아 법을 물었다. 지장 선사는 도의 선사를 보고 한 눈에 큰 그릇임을 알았고 "참으로 법을 전수할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는가"라며 법을 전했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철불

도의 선사가 6조 혜능의 증손자뻘인 서당 지장에게서 선법을 배워 왔다는 것은 달마 이래로 중국대륙을 풍미한 선법의 적손이 되어서 귀국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 사회는 선불교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만만치 않았다. 도의 선사는 신라 사회가 선불교에 눈뜰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고 보고 설악산 동쪽 진전사에 은거했다. 거기서 염거 화상에게 법을 전하고 염거 선사가 억성사 등을 중심으로 선법을 펴나갈 무렵 보조 체징 스님을 제자로 인가해 법통을 잇게 한 것이다.

도의 선사가 칩거하는 동안 826년에 귀국한 흥척(洪陟; ?~?)선사가 왕실의 협조를 받아 남원에 실상사를 개창하니, 가장 먼저 열리는 산문이 된다. 구산선문의 성립 시기는 산문의 개산조(開山祖)가 당에서 귀국하는 연대를 따져보면 비교적 정확하다.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도의 국사는 821년에 귀국하지만 40년간 칩거를 하고 그의 법손 체징 선사는 840년에 귀국했다. 실상산문을 연 흥척 선사는 826년에 귀국했고 봉림산문을 연 현욱(玄昱; 787~868) 선사는 837년에 귀국해 제자 심희(審希)가 창원에 봉림사를 세워 봉림산파를 이뤘다. 곡성 태안사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惠哲; 784~861) 선사는 839년부터 태안사에서 선지를 편 것으로 전해진다.

사자산문의 개산조 도윤(道允; 800~868) 선사는 혜능의 법을 이은 남전보원(南泉普願)으로부터 인가받고 귀국해 쌍봉사에 머물렀고 그의 제자 징효절중(澄曉折中; 831~895)이 지금의 법흥사인 흥령사를 세워 사자산문을 열었다. 성주산문을 연 무염(無染; 800~888) 선사는 도의 국사가 귀국하던 821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사굴산문의 법일(梵日; 810~889) 선사는 847년에 귀국했다. 수미산문의 이엄(利嚴; 870~936) 선사의 귀국은 911년이고 희양산문 개산조 긍양(兢讓; 878~956) 선사는 고려 태조 7년인 924년에 귀국했다.

탑, 석등, 철불 등 천년 이상된 유물 즐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천왕상

"중요한 것은 산문은 아홉 곳으로 나눠졌지만 그 뿌리는 모두 6조 혜능 선사에게로 모아지므로 우리나라 선불교는 달마의 선불교를 이어받은 것이지."

"그렇게 족보를 따지니까 무슨 무협지의 당파를 따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림사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보조 체징 선사의 부도와 탑비야."

침묵으로 남은 가르침이 들리는가?

부부는 대적광전을 나와 곧바로 보물 제157호인 보초 체징 선사의 부도 창성탑(彰聖塔)과 보물 제158호인 탑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대웅보전과 지장전을 지나 파란 잔디가 덮인 언덕 위였다.

"창성탑이 탑의 이름인가?"

"왕이 하사한 탑 이름이야. 옛날에는 큰 스님이 입적하면 왕이 탑호를 하사하고 이름도 다시 내렸어. 시호(諡號)라고 하지. 보조라는 이름도 왕이 내린 시호야. 왕으로부터 탑호와 시호를 받을 정도면 거의 왕사나 국사급이라고 봐야지. 그런데 보림사는 체징 선사 입적 후 헌강왕이 선사의 시호와 탑호에다가 절 이름도 보림이라고 지어 줬어. 이 절이 선의 정통을 이은 곳임을 인증하는 의미에서지."

근래에 세운 사적비가 있고 그 옆에 보물 제158호 창성탑비가 11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서 있었다. 언덕 위쪽으로 20m가량 올라가 보물 제157호 창성탑 앞에서니 시간의 무상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다. 4.1m의 창성탑은 적당히 화려하고 적당히 단순했다. 부도의 뒤쪽에서서 보니 아침나절 비에 씻긴 보림사가 말쑥해 보였다. 창성탑 기왓골과 대웅보전 기왓골이 예와 오늘의 간격을 한 눈에 보여 줬다.

부부는 말없이 창성탑 주변을 서성거리다 대웅보전과 명부전을 참배했다. 명부전의 외벽에도 지옥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벽화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림 위쪽에 짧은 글이 적혀 있다.

이익 욕심 챙기기에 눈 먼 사람은
염라대왕 지옥열쇠를 풀고
맑은 행과 착한 생각 가진 사람은
아미타불 극락세계 영접을 하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since1973

12절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0부 이상 1,000원

3,000부 이상 800원

불교달력



[6절] 5호 연향이 머무는 곳

[12절] 12호 반야동자

규 격	호수	품 명	정 가	임시할인가(1부)
국6절 (6종)	1호	마음이 머무는 곳	1,900원	1,300원 (2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500원 ※3000부 주문시 1,100원
	2호	맑고 건강하게		
	3호	비 움		
	4호	산사로 가는 길		
	5호	연향이 머무는곳		
	6호	천진미소		
12절 (14종)	7호	가람의 향기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200원 ※3000부 주문시 800원
	8호	관 음 도		
	9호	기 달마도		
	10호	동자승의 하루		
	11호	물소리바람소리		
	12호	반야동자		
	13호	반야심경		
	14호	번 뇌		
	15호	부모은중경		
	16호	산사속의 건강백서		
	17호	연꽃이 있는 풍경		
	18호	지친 중생을 환하게 하소서		
	19호	차사랑이야기		
	20호	풍경소리		
차걸이 (4종)	21호	반야심(비닐)	800원	450원 (2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600원
	22호	반야심(홀더)		
	23호	신비의 달마도(비닐)		
	24호	신비의 달마도(홀더)		

규 격	호수	품 명	정 가	임시할인가(1부)
미 니 (5종)	25호	동승일기	800원	450원 (2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600원
	26호	연꽃향기		
	27호	천 진 불		
	28호	향기로운 말		
	29호	들에도 꽃이 피네(★일반)		
다이어리 (6종)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1,000원	650원 (2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800원
	31호	아름다운 꽃		
	32호	천진동자		
	33호	청 정		
	34호	행운의 달마도		
	35호	그리운산하(★일반)		
한 지	36호	우리도 연꽃 같이	2,000원	1,600원 (100부)
법보시선물용	37호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2,700원 봉투포함 (100부)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 협 : 121068-56-042256
◆우체국 : 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10〉
혜소국사 정현
(慧炤國師 鼎賢; 972~1054) 下

사회적 실천의 보살정신 텃밭 가꿔

정현 스님의 계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현을 비롯한 고려전기 법상종 승려들이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한 방생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금광명경〉은 보통 4천왕에 의한 국가 수호와 현세의 이익을 강조하는 호국경전으로 널리 읽혀진 경전이다. 흔히 호국불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경전이 바로 〈금광명경〉과 〈인왕호국반야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현 스님의 비명을 통해서 본다면, 국가불교적 성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안의 방생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적 실천이 더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음이 주목된다.

스님은 당시 법상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원주 법천사와 개성 현화사 주지로 주석했다. 중희13년(1044년)에 스님은 개경 광제사(廣濟寺) 절문 앞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을 초대해 차별 없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곳간에 쌓인 곡식을 탕진하도록 나누어주고도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다. 또 삼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해, 고갯길을 평탄하게 해 오가는 길손이 편하게 했고 도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했으며 여행객을 위한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스님의 이러한 활동들은 경론에서 권하고 있는 사회적 보시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 곧 보살행의 실천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시 고려에서 불교교단이 가졌던 사회적 역할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국가가 불교를 외호해주는 세속사회의 지원세력이라면, 반대로 불교교단은 그 세속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불교교단, 곧 승가공동체와 그 승가공동체가 속해 있는 세속사회는 단순히 종교공동체와 세속사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이와 잇몸의 관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천행이 정현 스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다.

절문 앞에 솥 걸고 밥 지어
굶주린 자들에게 식사 제공
당시 고려 불교교단이 가졌던
사회적 역할의 모습 보여줘

스님의 이 같은 대사회적 실천은 널리 알려져, 1046년 정종 말년에 궁궐의 초청을 받아 〈금광명경〉을 강의했고, 1048년의 기우제법회에서도 역시 8권 〈금광명경〉을 강의하고 있다. 이어 1049년에는 78세로 왕사에 책봉됐으며, 1054년 83세에는 마침내 국사의 위에 올랐으니, 스님이 생각하고 실천한 보살행이 당시 사회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실천행에 대한 긍정과 지지는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승됐는데, 그 실천의 현장을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 목격하고 〈고려도경〉에 소개했던 것이다.



홍제동 5층 석탑(보물 제166호). 고려시대의 화강암 석탑으로 1045년(고려 정종 11년)에 사현사(沙峴寺) 창건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홍제동 사현사 터에 있던 것을 시가지 확장공사로 인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사회적 보시활동을 실천한 정현 스님은 삼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해, 고갯길을 평탄하게 해 오가는 길손이 편하게 했고 도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여행객을 위한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흔히 불교사에서는 고려전기 법상종의 융성을 왕권중심 세력에 맞섰던 귀족세력의 옹호를 받은 불교교단의 융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한 지적은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융성에 이르는 전제조건은 불교의 핵심 주체인 승려 혹은 승려들의 공동체인 교단이 그 자체로서 행해야 할 실천의 덕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불교교단과 승려는 세속을 떠나 사회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며, 당연히 세속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세속의 구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행하는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불교는 더 이상 불교라는 테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불법을 불법답게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혜소국사 정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려전기의 법상종 출신 국사. 하지만 뒤를 이어 번성하게 되는 법상종의 성세는 그가 일구어놓은 사회적 실천의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이번 글은 서울대 남동신 선생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음을 밝힙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7
임제종의 개조 에사이(榮西) 下

차와 다도의 개조로도 알려진 인물

에사이는 천태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09년 막부의 핵심지인 카마쿠라(鎌倉)로 가서 포교할 것을 결심한다. 그곳에서 최고 지위인 쇼군[將軍]을 비롯해 무사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막부의 지지를 받고 쥬후쿠지[壽福寺]를 열어 선종 포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막부를 배경으로 쿄토에 최초의 선원인 켄닌지[建仁寺]를 열어 지관, 진언, 선의 삼종을 겸학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구세력과의 조화를 의도한 것으로 실은 새로운 종파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조동종의 조사 도겐[道元]이 제자로 입문했다고 전해진다.

에사이는 2년 후 〈일본불법중흥원문〉을 지어 세속화된 불법을 재건하기 위해 승원의 규칙인 선의 청규로써 계율을 부흥시키고, 진언밀교의 주력으로써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흥선호국론〉에서도 계율의 중요함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권두에서 선은 계율의 도움으로 인해 불법을 흥륭시키고 영구히 존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제종의 선승만이 아니라 중국 유학에서 배워온 기우(祈雨)의 수법에도 뛰어난, 밀교의 법을 익힌 승려이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다서(茶書) 지어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해

일반인들에게 에사이는 일본 최초의 다서(茶書)인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지어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 계기는 송(宋) 나라에서였다.

그는 순례 중 어느 날 몸의 이상을 느꼈다. 길을 멈추고 한 노점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차를 권했다. 다시 원래의 기운을 회복한 그는 차의 효용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천태산에서 선을 배울 때 선사들이 수행 중 잠을 물리치는데 차를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끽다양생기〉에 중국의 〈차경(茶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인용해 차의 효능, 차나무 재배법, 차 제조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록했다. 차는 중국 고대부터 약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전부터 중국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차를 의약으로써 취급, 이 서적을 의서(醫書)로 사용했다. 에사이는 이처럼 차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연으로 일본 차 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쿄토 켄닌지(建仁寺)의 방장

사실 에사이는 차의 정신적 세계나 의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가 전개된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다인이자 승려인 무라타 쥬코[村田珠光]가 다이토쿠지[大德寺]를 중심으로 그 길을 열었다. 이후 타케노 죠오[武野紹鷗]와 센노 리큐[千利休] 등으로 이어져 선수행에 기반한 차 세계의 전통이 확립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에사이의 끽다의 세계가 근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에사이는 동서일본을 역방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당시 조정과 막부는 구수도인 나라[奈良]의 불교를 부흥시키고자 했다.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쵸겐이 입적하자 조정은 에사이를 권진직(勸進職)에 임명했다. 중국에서의 초겐과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다.

임제종은 막부의 세력권 하에서 5산 제도로 인해 선종문학의 황금기를 낳았다. 14세기 중엽에는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성립과 함께 무소 소세키[夢窓疎石]를 개산조로 하는 텐류지[天竜寺]와 쇼코쿠지[相國寺]를 축으로 재편된다.

일본 임제종의 주류는 대혜 종고와 함께 원오 극근을 잇는 송조(宋朝)의 소수파인 호구소륭(虎丘紹隆)의 계통이다. 무엇보다도 임제종은 18세기에 중흥조인 하쿠은[白隱]으로 인해 집대성됐다. 그는 선어록을 재편해 공안을 체계화시켰다. 현재 임제종은 각각의 본산을 둔 14파를 이루고 있으며, 조동종 및 황벽종과 더불어 일본의 선종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⑰

구천의 비바람 허공에 개이니 달은 뭇 강의 한가운데 비치네

"출가해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의 편안함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위 글은 서산 대사의 글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통도사의 가풍은 대체로 어른을 잘 모시고 수순(隨順)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다. 경봉 스님은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셨던 분이다. 스님의 은사이신 성해(聖海; 1854~1927) 스님과의 인연이 그렇고, 사형인 구하(九河; 1872-1965) 스님과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가신 것이다. 〈삼소굴일지〉에 의하면 스님의 은사이신 성해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일정기간 지극정성으로 매일 〈화엄경〉을 독경하는 장면이 있다. 또 은사 스님의 원적(圓寂)에 시 한수 지은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공겁(空劫)전의 그림자 없는 나무가
우연히 봄바람 만나 세상에 나왔네
은사님 돌아간 곳 묻지를 말라.
신령한 광명 공적한 것이 이 영진(靈眞)일세. 그리고 은사스님의 백재(百齋)날에도 은사스님을 기리는 시 한 수를 지으셨는데
우리 스님 생전에 어지셨으니
응당 염왕이 칼을 풀고 맞았으리
오랜 세월 선정(禪定) 익히셨는데
기도하고 제사 지낸다면 도인들이 비웃으리 바다용이 트림하며 하늘로 날으고
어부는 낚시를 내리고 노를 젓는다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해 아무 일도 없는데 춘주(春酒)를 한 잔 더 기울이리"

이와 같이 은사스님을 위해 불공을 드리며 생각에 잠겨 시를 지은 모습을 생각해보면 스승과 제자사이의 각별한 인연을 느낄 수 있다. 사형인 구하 스님이 평소에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이를 안 스님은 사형스님 살아생전 글씨를 삼갔다고 한다.

경봉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

"오동잎이 우물가에 떨어지니 계수나무 가지에 가을이 온 줄 알겠고 가을물은 하늘가에 닿아 한빛이라 풍월이 함께 맑으니 이 밖에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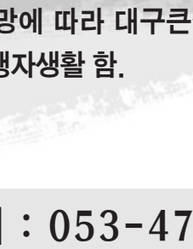
산명수려한 곳에서 주석하여 약을 달여 자신 뒤에는 건강이 어떠신지요. 법희선열의 맛이 독특하시니 평소부터 공경하고 또한 치하하여 왔습니다.

요즈음 한번 가서 진배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일이라서 자연히 뜻은 있어도 정성이 못 미치니 너그럽게 살피소서. 태산에는 반드시 사자가 있고 큰 바다에도 신룡이 숨어 있는 법인데 이 큰 사찰에 어찌 주인이 없겠습니까. 형주께서는 영축산의 원로이시며 또한 주인공이시니 이로부터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볼 수 있고, 스님의 일기에 사형스님의 입적(入寂)에 장례를 치르고 시 한수를 지으셨는데

"구천의 비바람이 허공에 개이니
달은 뭇 강의 물가운데 비치네
금수도 슬피 울고 산빛도 변하는데
단풍과 누른 국화가 옛 길을 통했네"

라는 구하(九河)라는 글자를 가지고 사형스님의 법을 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형사제(師兄師弟)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 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참나, 자성을 찾는 도반으로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 연 수 원 : 사 자 암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 (불사중) 총무원 직할 연수원에서 수행하실 (10월~)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 총 무 원 : 장 원 사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011-677-8525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 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 목 : 1. 범음범패학과 (교수 :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 법 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 태 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 이현주 님)
범음범패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게,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언사구성, 짓소리.
■ 스 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석,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게, 다게)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9재의식, 방생의식, 상용영반, 종사영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범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

초연함이 위기 대처의 비법, 문제해결은 자각에 달려



육문 스님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 회장

"길게는 시키지 마시오. 나는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도 많이 못해요"

스님은 첫 인사부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행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 (이하 선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육문 스님은 경북 군위 천년고찰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현재 스님은 2004년 3대 회장으로 취임해 7년째 선문회를 이끌고 있다.

선문회는 비구니 선원의 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참선 수행인을 위한 도량을 만드는 목적으로 2000년 4월 은해사 백흥선원에서 전국 35개 비구니 선원 중 21개 선원의 입승, 주지, 도감, 원주 등 27명이 모여 결성했다. 창립 이듬해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석남사 주지 영운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켰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선문회는 비구니 선원 회룡사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 중국 선 수행체험, 한국 비구니 선맥(禪脈) 계보정리, 담선(談禪)법회 및 방부와 입방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등을 통해 한국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다.

선문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의 공부내용, 행사자료 등을 정리해 〈선문담선록〉을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문회는 8월 18일부터 은해사 백흥암에서 1박 2일 동안 〈돈오입도요문론〉을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혜국 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한다.

육문 스님 한국 비구니 승단의 선풍을 잇는데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육문 스님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초발심이다. 스님은 공부가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이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 수행처를 만드는 일이었다.

1982년부터 팔공산 자락에 있는 백흥암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님은 1982년부터 10년에 걸쳐 극락전 개금불사를 비롯해 요사채 확장 개축, 설선당과 향적당을 불사했다. 그리고 스스로 주지의 권위도 내려놓았다. 공양간 채공, 밭 운력은 물론 절 앞까지 이어지는 길을 닦고 돌을 등짐으로 나르기도 했다.

열일곱 살에 어렵게 출가한 스님은 "부모에게 큰 빚을 지고 스님이 되었으니 문을 잠궈 놓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잘 먹고 잘 입는 편안한 수행은 하지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백흥암으로 출가한 행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하다. 행자들은 3년 동안 허락 없이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옷 한 벌도 닳도록 기워 입으며 초발심을 단속하며 지키게 했다. 그 엄하기가 서슬 같아서 절집에서 스님은 '팔공산 호랑이' 라는 별호를 얻기도 했다.

육문 스님은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을 철칙으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한다. 남에게 신세지는 일을 멀리하는 스님은 지금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다.

1998년 군위 법주사 주지로 온 육문 스님은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불사를 시작했다. 법주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80년)에 심지 국사가 창건한 군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지만 육문 스님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경내는 초라했다. 1년 만에 땅 다지기를 마치고 77평의 대웅전, 명부전, 선원, 법당 등 대불사를 진행 중이다.

육문 스님과의 만남에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이희숙 서울여대 외래교수가 함께 했다.

선문회(禪門會) 결성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16년 1월 만공 스님(1871~1946)의 영향으로 수덕사 견성암에 최초로 비구니 선원이 개설됐고, 1918년 통도사 옥련암이 최초 비구니 강원으로 정해지면서 비구니 강원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비구니 선원이 개설된 지 100년이 지나면서 기강이 흐트러지고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비구니 선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39군데나 되지만 수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공부도 하지 않으려 하고, 방부를 들여놓고도 말없이 다른 곳으로

개혁회의 주역, 종회의원 지내며
불평등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해
비구니 스님 종단 참여 발판 마련

가는 일도 잦습니다.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게 수행의 과정인데 서릿발 같은 어른스님들의 수행면모를 본받기는커녕 후배 수행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배울까 걱정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원의 기강을 세우고 황소라도 잡아서 문틈으로 밀어 넣어 보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24살, 처음 선방에 갔을 때 선방 스님들의 수행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밤 10시에 방선(放禪)을 했는데 눈을 떠보면 새벽 1시, 2시에도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이 저렇게 무섭게 정진을 하는 구나' 하며 일어나서 흉내라도 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이겨내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양진암에서 뵌 향곡 큰스님이 "육문아 너는 밤새 잠만 자고 도는 언제 깨칠 건고"하며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한국비구니 승가는 1600년 넘게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조계종 출가승의 절반이 비구니이고 또 최근 40여 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계종 종단에서는 비구니의 역할과 활동이 조금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구니 교단과 수행전통이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불교국가입니다. 비구니 구족계를 받는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 대만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15년전 만 해도 종단에서 비구니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때 비구니스님들의 참정권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중앙종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비구스님들은 팔경계(八敬戒)를 들어 비구니 참여를 반대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물이 든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참스님"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단 개혁회의는 종단 참여확대, 총무원 · 포교원 · 교육원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중앙종단 재정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종헌 개정은 개혁회의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다.

개혁종단 이후 조계종 종헌종법에도 '총무원장은 비구로 한다' 고 명시돼 있고,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중 비구니 정원은 10명으로 제한했다. 교구본사 주지에 비구니는 임명되지 못하고 산중총회에도 비구니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적이지 않는 불평등한 처사였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스님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육문 스님이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중앙종회회원으로 활동하며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스님께서는 스스로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가 여의치 않으면 자주 화장막에 들렀다고 하시던데, 어떤 연유이신가요?

-정진이 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맑게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때 정진이 잘 안 되면 '이 주인공 누구냐' 하고 계속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화장막으로 갔습니다.

우리 몸은 화장을 하고 나면 한 줌 밖에 안 됩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된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자연 사대(四大)에서 다 빌려온 것입니다. 50년이고 70년이고 우리가 실컷 써먹고 애착이 붙어 안 떨어지려고 해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느끼면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수행자라면

-방안에 앉아서 수행정진 하는 분도 훌륭하지만 민생에 뛰어들어 불보살의 역할을 하는 분은 정말 존경할만한 분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중생에게 회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전속 글자를 외워서 말하는 것은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수행정도와 근기에 맞춰 이야기 하면 듣는 사람도 신심이 나게 됩니다. 각고의 수행정진을 통해 얻은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소리가 돼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포교고 참된 중노릇입니다.

삶이 무척이나 고단한 요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 지 순 례

* 출 발 확 정
■ 8월 30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9월 16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 가이드. 기사 팁 $50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불교성지 단체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가능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 1,590,000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공동경비 $50



8월, 9월 출발 가능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4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59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용 왕 사

초개와 같은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아니면
나의사전엔 결코
굴하여 무릎 을 끓는 일은 없을 것 이다

6.29 민주화의 실천을 추구하는
하늘에 천명(天命)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 3일전
정식공문으로 전달한 동양제일의 심령학자
나라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금룡 김진걸 시집 피와 영혼의 소리 서시 중에서)

금룡 김진걸
- 초 대 월남참전 전우회
부산경남 상임부위원장

정신병 신병 무속생활 하기 싫은 분 무당 신 책임지고 떼어 드립니다.
철학 심령학 사업 송사 학업고시 등과 병원 등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고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처방 있습니다.

문의 : 051)852-5879 / 011-599- 5875 (사전예약) 부산 시청 뒤 양정쪽 100m

국가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불교의 꽃, 큰스승 용왕사 金龍大師

불자들에게 힘겨운 삶을 청량하게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하심(下心), 곧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부처님은 늘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했으며 인과를 철저히 믿고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위기에 초연해지십시오. 문제해결은 자각에 달렸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비구니 선원의 청규 기강한 목적으로
'선문회' 결성, 간화선 수행전통 이어
비구니 수행공간 위해 불사 매진중

그 답은 오로지 수행정진입니다. 수행정진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선해지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말과 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과응보가 있음을 잊지 말고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육문 스님은…

1946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962년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충남 문수사에서 성태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덕사에서 동산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 1970년~1980년 양진암, 내원사, 해인사 삼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후 197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9~1981년 동화사 양진암, 백흥암에서 입승을 역임하고 1981년 백흥암 도감을 지냈다. 1982~1998년 백흥암 극락전 개금불사, 설선당, 향적당을 불사하고 무이당과 요사채를 확장 개축 불사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 의원 및 상임의원, 11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0년 백흥암 선원장, 2004년 군위 법주사 주지, 백흥암 회주, 선문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 비구니 선맥의 역사〉

비구니 승단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선풍(禪風)이 크게 발전했다. 많은 고승이 나타나면서 단절되었던 비구니 법통도 되살아났다. 근대 비구니 선맥을 다시 일으킨 법희 스님, 부산 범어사 대성암에 최초의 비구니 선방을 개설한 만성 스님, 한국 비구니계 최대 문중을 형성한 선객 본공 스님, 개화기 신여성 운동을 주도하다 불문에 귀의한 일엽 스님, 일타 스님의 누이로 20여년간 견성암에 머물며 후학들을 가르쳤던 응민 스님 등은 모두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던 만공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특히 법희 스님(1887~1975)은 1901년 비구니 귀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덕사 견성암 비구니 총림원장으로 주석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월혜 스님은 묘엄 스님(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의 은사로, 청담 스님과의 인연으로 출가해 성철, 자운 스님 등의 영향을 받았다.

1962년 조계종이 성립된 이후 1968년 비구니들의 모임인 대한불교비구니 우담바라회(회장 은영, 천일, 지명 등)가 발족됐다. 정화운동에 동참하여 조계종 창립에 큰 기여를 한 비구니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단합하여 문중계보를 정리했다. 우담바라회는 1985년 9월 5일 석남사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재결성하고 종회 · 계단 등 종단의 종무행정에 참여하고 기여했다. 또 일엽 · 천일 · 광호 · 세등 스님은 대중 교화에 은영 · 자현 스님은 사회복지에 광호 스님은 해외포교에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1981년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해 대학교육도 권장함으로써 많은 비구니들이 비구니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경학을 시작하기도 했다. 현재 비구니 선원은 예산 견성암, 합천 광명선원, 경주 금련선원, 경주 금선서원, 고층 금탑사, 양산 내원사, 대구 내원암, 산청 대원사, 영천 백흥암, 논산 법계사, 용인 법륜사 제일선원, 예산 보덕사, 합천 보현암, 대전 보전암 복전선원, 대구 부도암, 월진 불영사, 합천 삼선암, 울산 석남사, 대전 세등선원, 보은 수정암, 서울 승가사, 남원 승련선원, 합천 양수암, 대구 양진암, 상주 용흥사,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 의정부 원효사, 완주 위봉사, 평창 육수암, 문경 윤필암, 평창 지장암, 장성 천진암, 보은 탈골암, 경산 향림사, 용인 화운사, 의정부 회룡사, 경주 흥륜사, 대구 기초선원 등 39곳이 있다.



선문회 10년 행보를 정리한 〈선문담선록〉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정진력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날씨 이야기이다. 아무리 낯선 자리라 해도 서로 가장 편한 대화가 날씨이기 때문이다. 웬 폭우가 전국을 강타한단 말인가. 만약 비가 시나브로 내렸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쉼 없이 거푸거푸 내린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낳았다.

우리말에 '낙숫물이 섬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다. 일을 함에 중단 없이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정진의 위대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본다.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오락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단어의 구성으로 보아 '재창조'라는 뜻이다. 이미 세상에 나왔거나 이룩된 것을 유용하고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레크레이션이 의도하는 바 일 것이다. 또 rebirth를 보자. 재생이나 환생이란 말이다. 삶의 대열에서 낙오되었다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다시 태어났다고도 한다. 같은 육신을 놓고 어떠한 정신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말이 정진이 아닐까 한다.

도량에 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봄이면 담홍색의 자태를 드러낸다. 요사이는 열매를 맺어 매일 크기와 굵기, 색의 농도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연약한 꽃잎이 변하여 열매를 맺었다.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저 복숭아 똘기는 언젠가는 불그스름한 빛깔로 익어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긴 시간도 필요하고 온도와 습도도 조절해 갈 것이다. 마침내 수밀도(水蜜桃)가 되어 복숭아화채로 올려 질 것이다. 여기서 또 부단한 정진의 묘미를 터득하게 된다.

정진(精進)을 범어로 vīrya 라고 한다. '용기, 용맹, 힘'을 뜻한다. 정진력의 력(力)은 bala 이다. '힘, 정당함'의 뜻이다. 동사는 bal 로 '숨쉬다, 곡식을 저장하다, 부를 지키다'는 뜻이 있다. 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단련된 근육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흔한 숨 쉬는 행위가 힘이라니 인도인의 사유세계가 우리의 석고화된 머리를 일깨운다. 단순한 숨, 들숨과 날숨이 어찌 힘이 될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부처님의 수식관을 상기시키면 의구심은 쉬 풀린다.

정진력이란 곧 숨쉬기에서 용기와 용맹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 어원 풀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거대한 밀림이나 설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그 단순한 호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만끽해 본다.

정진의 힘은 단순히 악을 쫓고, 선을 닦기 위한 노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의기는 세상을 뒤덮을 만 하다는 뜻의 역발산혜기개세(力拔山兮氣蓋世)한 항우(項羽) 장사가 육체의 힘을 드러냈고, 로마 공화국의 최후를 빛나게 한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Cicero)는 말의 힘을 보였다. 그리고 침묵으로 정진력을 드러낸 부처님의 정신의 힘은 그 무엇에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갖는다.

인도에서는 인생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젊음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젊음을 그들은 가장 재미없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초연함이다. 세상사에 초연하고 생존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근원을 공부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인이 되는 것이다. 걸림 없는 삶이다. 인도인들은 태생적으로 광대한 우주의 섭리를 거역하고자 하지 않았다. 생노병사의 싸이클에서 벗어나고자 허둥거리지도 않았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순환의 법칙을 숭고하게 수용하였다.

정진은 나숫물이 섬돌 뚫듯 중단없이
노력해 원하는 바를 성취 하는 것이다
참된 정진은 우치함을 깨우는 '각성제'

슬기로운 인간의 예지가 엿보인다.

정진이라고 하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채우게 된다고 가감법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의 충만함으로 이해하려고만 할 일도 아니다.

참된 정진이란 채우는 작업만이 아니라 가득 찼기에 포만감으로 주변을 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 볼 수 없었던 우치함을 일깨우는 각성제쯤으로 이해해 보자. 그렇게 되면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충족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모든 경기장에서 승리하고자 출발점에 서 있는 선수의 모습을 그려 본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며 전신에 식은땀이 흐를까. 반면에 관중석에 앉아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객의 여유로움에서 느끼는 기쁨은 더 클 수도 있다.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베블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린의 설이다. 예컨대 다이아몬드는 비싸면 비쌀수록 여성의 허영심을 사로잡게 된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점점 짝퉁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도 다름 아닌 허영심을 부추긴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본다. 정진의 힘은 베블린 효과도 이내 잠재울 수 있는 묘약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9

불법체류자 단속 나쁘지만은 않아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다문화구성원을 크게 보면, 노동이주민, 결혼이주민, 다문화자녀를 비롯해, 탈북민, 유학생, 난민, 재외동포, 화교, 불법체류자, 여행자 등 분류도 다양하게 나뉜다.

정부의 예산책정을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자녀포함 약 30만 4000명)에 대한 사업에 815.78억+@가 배정돼 예산중에서도 가장 크다. 그 외에 유학생(약 9만)에 대해서는 347억이며, 나머지 전체 이주민 150만 중에서 110만에 대한 사업예산은 70억도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난민대상 사업에는 2.4억, 범죄피해 이주여성 및 외국여성 대상 사업에는 30.78억, 외국인 주거지 개선 사업에는 7억 등이 배정되고 있다. 더 심하게는, 우리나라 다문화인구 중 3분의 2(전체 다문화인구 중 43.7%)나 차지하고 있는 최대다수인 외국인 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 관련 사업에서는 비예산, 즉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결혼이라는 장치가 더 확실한 우리사람이 된다는 의식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대다수가 국적취득과 거리가 멀어 이 문제도 심각하게 연구할 대상일 정도이다.

이 같은 편중 현상은 사업별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주민과 그 가족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는 주요 관심 대상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예산 배정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법무부나 기타 부서는 다문화 사업을 펼치긴 하지만, 뚜렷한 관심대상이 없다. 200개나 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산하의 사회통합이수기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이 각 지역에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군구 단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에서도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 편중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정부의 이민 다문화 행정의 불균형과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이다.

불법체류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이들을 출국시킬 귀환직업프로그램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체류자들은 도망을 간다. 이러한 모습에 눈살을 찡그리는 반다문화주의자들은 향후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것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법망을 지키기 위한 제도권 내의 사람들의 노력은 악한자로 치부해버리는 태세는 너무나 유치하다.



정부의 예산책정을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사업에 815.78억+@가 배정돼 예산중에서도 가장 큰 편으로 정부의 이민 다문화 행정의 불균형 문제점이 심각하다. 사진은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이주민 여성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함의 총 산물이니만큼, 연구하고 기획하고 바라보는 시각 또한 입체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잣대만 들이대서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되기 힘들다.

여러 선진 다문화국가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응용하되 우리의 제도 및 정서에 부합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활동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⑭

미녀는 복숭아를 좋아해

복숭아는 '신선(神仙)의 과일', '불로장생의 과일'로 알려져 있다. 서왕모는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곤륜산(崑崙山; 아름다운 옥이 많이 나는 산)에 사는데, 형상은 사람 같지만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더부룩한 머리에 꾸미개를 꽂고 있다. 서왕모가 가진 불사약이 '천도복숭아'였다. 서왕모는 잘 익은 복숭아 30개를 한무제(漢武帝)에게 선사했는데, 그 중 3개를 재상인 동방삭(東方朔)이 빼돌렸다. 이 복숭아 한 개를 먹으면 천 년을 살 수 있다고 했으니 동방삭은 3개를 먹고 3천년을 살았다. 서왕모는 자신이 가꾸는 '반도원(蟠桃園; 복숭아밭)'에서 백년에 한 번씩 반도회(蟠桃會; 복숭아 잔치)를 열었는데, 경비책임을 맡고 있던 '손오공'은 복숭아를 몽땅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됐다.

복숭아가 있는 곳은 이상향(理想鄕)이다.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무릉도원(武陵桃源)'에는 복숭아 밭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복숭아는 몸을 보양하는 효능이 뛰어나 기(氣)와 혈(血)을 더해 주며 간장과 심장의 기를 보양하는 효과가 크고, 또한 폐의 기를 보강해 주므로 폐질환 환자에게 좋으며 오래된 기침과 천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복사꽃 미녀'라는 말이 있듯이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예뻐지게 된다고 한다. 왜 그럴까?

미인의 조건이 많지만 일단 피부가 곱고 얼굴의 혈색이 좋으며 여드름이나 기미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변비가 없어야 하며 월경이 잘 통해야만 한다. 복숭아는 혈을 잘 순환시키며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므로 여성에게 좋은 과일이다. 한의서에도 복숭아를 얇게 썰어 말린 것을 먹으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했다.

복숭아에는 유익한 성분도 많다. 포도당, 과당, 유기산이 많아 식욕을 돋우고 피로회복에 좋다.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해독작용도 뛰어나다. 니코틴 제거 작용이 강하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좋고, 아스파라긴이 많아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항암 효과가 있고, 펙틴 함량이 높아 변비에 좋으며 대장암 예방 효과도 있다.



복숭아 과육도 약이지만 씨를 한약재로 쓰고 있다. '도인(桃仁)'이라고 하는데,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 부딪히거나 얻어맞아 멍이 든 것을 풀어준다. 여성의 생리불통을 치료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도 크다.

복숭아는 속이 냉한 분들에게 적합하다. 여름 과일은 대부분 서늘한 성질이어서 비위장이 냉한 분들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기 쉬운데,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이기에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노인들이 허약하고 진기가 부족하여 장이 건조한 경우에 기운이 나게 하고 장을 윤택하게 하여 변비에도 좋다. 그렇지만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열을 일으켜 부스럼이나 종기, 화농성 염증을 생기게 하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흔히 복숭아와 장어, 자라고기, 바닷게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8 - 붓다의 호흡법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2

앞서 설명했듯이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길고 짧음에 개의치 말고 단지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숨을 조작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마치 관찰자처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만약 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마음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둘째, 코 안으로 들어간 숨이나 윗입술 바깥으로 나간 숨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인중 주위에 있는 숨만 알아차리면 된다. 만약 숨을 따라다니면 마음이 산만해져 삼매를 완전하게 계발할 수 없을 것이다. 수행의 지침서인 청정도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지기의 비유가 나온다. 문지기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바깥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문에 다다른 사람들만을 주의 깊게 볼 뿐이다. 마찬가지로 수

숨에 대한 알아차림 지속하면
최상의 행복인 삼매에 들게 돼

행자는 아직 인중까지 오지 않은 숨이나 이미 인중을 지나간 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인중 주위의 숨만을 알아차릴 뿐이다.

만약 숨 자체에 30분 정도 고요히 있을 수 있게 되면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나아간다. 즉 한 지점에서 들숨의 처음부터 중간과 끝까지 또 날숨의 처음부터 중간과 끝까지 빈틈없이 알아차린다. 이때도 숨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그저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마음이 방황하거나 달아날 틈이 없어 마음의 고요함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치 호흡이 없어진 것처럼 숨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숨이 멈춘 것은 아니라 숨이 매우 미세해진 것이다. 숨은 매우 미세해졌지만 수행자의 알아차림(sati)은 아직 강하지 못해 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숨을 찾기 위해 숨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단지 침착하게 이전까지 숨을 관찰하던 그 곳에서 인내심과 알아차림을 가지고 기다리면 자연히 숨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다보면 알아차림이 매우 강해져서 아무리 미세한 숨일지라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 이르면 들숨날숨이 빛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빛과 숨이 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숨이 빛의 형태로 바뀐 것을 들숨날숨의 표상(nimitta, 니밋따)이라고 한다. 처음에 표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표상으로 대상을 전환하지 말고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나아가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다.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다보면 숨이 점점 미세해지면서 숨에 대한 알아차림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표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때의 표상을 닮은 표상이라고 한다. 닮은 표상은 매우 밝고 안정적이며 매혹적이며 삼매의 진정한 대상이 된다.

닮은 표상이 생기게 되면 삼매에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닮은 표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다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닮은 표상에 몰입이 되는데 이를 삼매(samadhi)라고 한다. 삼매는 형상, 소리, 몸의 감촉 등의 외부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닮은 표상에만 오랜 시간 고요히 머물러있는 상태를 말한다.

삼매는 고요함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색계 4가지 삼매와 무색계 4가지 삼매로 분류되는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는 색계4선정에 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삼매를 닦는 이익이 무엇인가? 삼매를 성취함으로써 오는 가장 큰 이익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극복하여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삼매에서 출정하면 마음이 매우 밝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적합해지는데 이런 마음을 법을 관찰하는 것으로 돌리게 되면 법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는 깊은 지혜를 계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삼매는 지혜를 계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삼매의 다른 이익 하나는 감각적 쾌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삼매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최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 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 설립은 세계인류평화와 자비광명을 지구촌 중생들에게 전법하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업적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

삼다도三多島에서 태어난 혜성慧星

1914년(甲寅年)10월 10일, 그날도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이천 서씨가문에 영광을 가져왔으니 섬마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혜성의 탄생이었다.

그날 어머니의 꿈에 한라산 꼭대기에서 긴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성성한 누런 도포를 입은 한 도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삼장전인「三藏傳印」이라고 새겨진 옥도장을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훗날 귀댁에 삼장법사「三藏道師」가 나올 것이며 나는「백운사」에서 온 도승이라고 말 하고 사라졌다. 그 뒤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세계불교의 거성인 법왕 삼장법사 일붕 서경보 큰스님이셨다.

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성품이 온순하였으며, 5~6세가 되면서 글을 배웠고 10세 전에〈사서삼경〉등을 외다시피 했으며 10세가 지나면서 유서에 대하여 그 뜻을 깨치기에 이르자 15세 약관의 나이에 마을의 훈장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산길을 따라 오르다 법화사(현재의 삼방굴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염불소리에 발을 멈추게 되었다. 스님은 19세가 되던 해 어느 날 비장한 결심을 하고 법화사스님을 찾아가서 출가승이 될 것을 간곡히 발원하였다. 스님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산방굴사」에서 강혜월스님으로부터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아 그의 법제자가 되어 진리체득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산방굴사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스님을 뜻한바 있어 지리산 화엄사로 옮겼고, 31세가 되던 1935년 가을에는 전북 전주 위봉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를 이수하였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는 서울 동대문 밖 개운사 대원암 강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다음해 포광스님이 계시는 전북 김제에 있는 金山寺를 찾아 고명하신 김포광스님으로부터 「식수행상」의 강론을 받으시고, 26세 되던 해인 1940년 20대의 청년학인으로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청년 일붕 서경보는 제주도 고향을 뒤고 두고 육지를 향하여 처음으로 화엄사에서 시작하여 대원사 강원과, 오대산 선방에서도 배움의 열망은 계속되었다. 31세가 되던 해 일본 경도에 있는 임제전문학교에 입학하셨고, 1946년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귀국하여 동국대학교에 편입하여 1950년에 동대학을 졸업하였다.

승복 외교관으로 세계전법 활동

1958년 세계5차 방콕 국제불교회의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버어마(현 미얀마)상가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 후 미국 탬플대학에 종교학 주임교수로 한국불교의 선을 가르치고 포교활동을 펴나갔다.

특히 인상 깊은 일은 1967년 7월 25일 한국인 승려로는 최초로 미국땅을 밟았다. 스님은 도미하여 1개월간 미국 6개주에서 선서화전, 좌선회, 강연회, 원계식 세미나를 개최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뉴멕시코주에서는 스님을 맞아 유례가 없는 동양인에게는 처음으로 1979년 8월 17일을「서경보 박사 기념일」로 제정하고 환영하여 미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1978년 8월 미국을 순방 포교시 백악관으로 직접 카터대통령을 예방하여 자신의 선서화 한 폭을 증정하였는데 귀국 후 카터대통령이 천서로 답례를 해왔으며,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을 일붕선원으로 보내 스님에게 미행정부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실로 한미 양국간의 유대강화에 큰 공로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에 취임

세계인류평화 및 세계전법과 세계불교인의 단합을 위하여 W · F · B총회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주장하여,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위원회를 1986년 한국에 설치하고, 1987년 9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주제하였으며, 1986년 유엔 산하기구인(UN-NGO)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한국본부를 유치하고, UN전권대사로 임명받아 국제적으로 활동하였으며, W · F · B 제16차 총회에서 1990년 제17차 W · F · B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제17차 세계불교도 서울대회 대회장으로서 1990년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세계 40개국 3백여 명의 세계 각국 고승들이 참석하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3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회식과 함께 판차실라 수계법회를 성대히 가졌으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와 알버트 슈버이저 재단으로부터 세계인류학상을 받아 W · F · B 역사상 최대의 대성황을 이루어 세계불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스님은 미국, 일본, 소련, 인도, 영국, 몽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40국을 비롯하여 국내외 157개국 5,200여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세계불교초대법왕으로 추대되어 '불교의 UN'과 같은 기구인 '세계불교법왕청'이란 기구를 만들어 초대법왕에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스님은 1991년 1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삼장법사 일붕 서경보 법왕에게 감사장을 보내면서 한 · 미양국간의 우호증진과 우정을 도모하자는 친서를 보내왔다.

세계적인 선서화 예술 및 석학으로 인정

수십 년 동안 선과 함께 살아왔고 참선의 경지를 즐기고 음미하고 미소하면서 지내온 것이 생활의 전부인 스님은 7세 때부터 왕의지의 습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사체를 16년간 연마한 끝에 선을 통하여 독창적인 힘을 체득한 선서화는 불교예술의 새로운 창조로서 지대한 업적을 쌓았다.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 일붕 서경보 큰스님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명문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만 126개를 취득함으로써 그의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저서만도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1024종을 저술하였으며,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비가 전국 도처에 758개를 건립하셨으며, 세계방방 곳곳에 6,000여명의 일붕법왕문도와 기네스 4관왕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대종사 원적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이 불기 254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세계불교초대 법왕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법납 64세로 원적에 드셨다. 영결식을 마치고 일붕큰스님의 법구는 1천 오백여 만장을 앞세우고 의령일붕사에서 오후 7시부터 법구를 연화대로 옮겨 1만 5천명의 참배객이 지켜보는 다비식이 진행됐다.

7월 3일 사리 습골 결과 영공 큰스님, 봉주 큰스님, 경우 큰스님의 증명으로 편골 사리 16과, 두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사리 15과, 치아사리 9과, 점사리 5과, 주홍사리 7과, 뇌수사리 9과, 쇄사리 6과, 미색사리 1과, 대소오색 영롱한 사리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현되었다.
현재 큰스님 사리는 일붕사 경내 사리탑에 안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일체 유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홍보한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초대법왕에 대한 업적사업을 시작하다.

일붕 초대법왕께서 원적에 드신 이후 당시 비설실장을 지낸 담화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초대법왕의 업적사업을 시작하여 청소년 장학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지원, 문화예술계지원, 재외동포지원 사업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세계만방에 일붕큰스님의 업적조명과 함께 불교를 홍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으로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번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 설립은 뜻있는 문도들이 모여 함께 법인 설립에 동참했다. 앞으로 저희 문도회는 이번 중국구화산 김지장왕보살앙찬비 재 건립(오는 8월 22일 제막식)과 함께 부산 88올림픽 성공기원비등 시비와 동상, 흉상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 연수원과 금강계단은 법왕청 제2청사에 두고 일붕스님을 존경하는 스님 및 불자들이 일붕스님의 문도가 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 부득하게 법왕청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도들과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스님 및 불자들은 국제회의장과 요사채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붕법왕문도회의 회원 접수는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며, 접수대상자는 우선 정식문도로 건당증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건당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계를 받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새로이 법연을 맺고자 하는 스님 및 불자들은 법왕청 금강계단에서 오는 10월 10일 제1차 건당의식을 봉행 할 예정이며, 계사와 증명을 모신 다음 계첩을 받으면 공동의장 명의로 문도증서를 받고 회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문도회는 오는 10월 9 ~ 10일(2일간)법왕청 제2청사에서 9일 3000배 철야정진기도 및 10일 법왕의 날 행사를 봉행 할 예정이며, 3000배를 통과하는 모든 불자 및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진다.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앙찬시비 재 건립불사 동참자 명단 (무순)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 시비 재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도기 김팔영 / 월호 박팔봉
명예총재 : 봉암 장연종
일붕국제문화상 위원장 : 호암 이배영
이　　사 : 신법진, 김혜운, 주도화, 박지광, 정문봉, 윤붕안,
감　　사 : 박도천, 김청산
사무총장 : 석무각 / 이사장 : 이담화
자문위원 : 김무찰, 석법상, 석보리, 석지명, 유법천, 석연화, 석청암, 김원각, 석태함, 도종묵, 남강수, 김흥국, 석송산, 현당, 김활선, 송해, 이월호, 석청하, 이길종, 엄태복, 불두화, 옥련화, 대혜심, 백련화, 홍연심, 백연화, 최창복, 신순분, 정해수, 연화스님
동참자 : 박상희, 조호철, 김숙희, 차정자, 김영돈, 유천환, 박우승, 배윤담, 송장규, 강이빈, 사상철, 민영환, 송정운, 조성자, 정은숙, 강순풍, 강태유, 강태길, 김호윤, 김병준, 장무중, 장진근, 장영근, 장유근, 장도현, 김칠석, 정도원, 강정명, 김소희, 변은영, 김태형, 강주영, 김민준, 김나영, 강수영, 박정배, 유명환, 강후남, 김형곤, 김영곤, 김종성, 이영희, 박종한, 이정인, 이정하, 이종인, 이상우, 이민우, 정현욱, 정종훈, 이경재, 이승민, 이지영, 류일한, 김영균, 김은경, 유돈석, 유형균, 정윤석, 김영기, 정재돈, 지광수, 황스미에, 지준호, 강현님, 지연희, 지연주, 지헌, 강민지, 강유찬, 김경한, 김선미, 김경호, 김보련, 김재곤, 김근아, 김승범, 김형조, 김보경, 이수덕, 하석준, 김정희, 박용호, 박용길, 김월숙, 정명호, 김연이, 서성원, 서경원, 서철원, 임행순, 김도원, 김태원, 김동하, 김영배, 박점순, 김효정, 김연희, 김경자, 한승종, 한광수, 한종근, 유재옥, 양희용, 한애숙, 양덕규, 한인숙, 이승철, 김형규, 한희숙, 김진영, 김진욱, 송창영, 김동우, 이삼순, 이종태,박순임, 박구만, 최학순, 박성민, 박성연, 김재천, 최현순, 김연경, 김연우, 김지후, 최성우, 김은숙, 최원서, 최승연, 최준혁, 이운영, 최문경, 이근찬, 이수진, 최성호, 김희진, 최경현, 박근남, 이양선, 신창현, 마미향, 신은비, 김태준, 최한옥, 이정길, 이민행, 양소순, 노소영, 한혜경, 김우성, 오부흥, 강남숙, 김성구, 김은정, 김영락, 김명락, 김순미, 변경란, 이말선, 김정화, 김숙임, 김차순, 장은영, 백순옥, 이초남, 정문자, 박재금, 박정윤, 박송희, 박송림, 미소화, 손상의, 이선희, 권성민, 주우종, 이순덕, 이계순외 지정여행사로는 (주)비마관광 정설립 사장이 선정되어 함께 동참합니다.

중국구화산 김지장보살 앙찬비 재 건립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님 및 사부대중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서는 말보다 실천하고 문도님들의 복지는 물론 앞으로도 큰스님의 업적을 조명하고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홍보에 열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후 원 금 ◇

· 은행명 : 하나은행, 후원금계좌
· 예금주 : (사) 일붕법왕문도회
· 계좌번호 : 011-3417-1010-604 입니다.

저희 문도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면
은행 계좌번호는 쉽게 기억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일붕법왕문도회 ☎ 02)3417-1010

삼사일체-일붕일붕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에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일붕국제문화상 위원회 위원장에 호암 이배영(전 은평구청장)을 내정하였습니다.
일붕국제평화상 위원회 위원장에는 추후 스님으로 추대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일붕국제문화상과 평화상을 큰스님께서 설립하여 시상을 해 왔으나 1996년 이후 중단되어 저희 문도회에서 이를 관리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목적

본 법인은 불타의 진리와 대자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일생동안 남북평화 통일을 염원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758개의 평화통일 기원시비를 건립하시고 6,000여명이 넘는 제자들을 배출하여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일붕 서경보큰스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로 불교홍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통합과 호국불교를 통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일붕 큰스님들의 업적과 자료를 기리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한국불교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불교문화 창달과 중생제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사업 ◇

1. 일붕법왕스님의 업적사업을 조명함.
2. 일붕법왕스님의 유물(사리)보존 및 박물관 건립
3. 일붕법왕스님의 수행과정에 대한 자료 발굴 조사
4. 일붕법왕장학회 설립
5. 일붕법왕스님 추모제 봉행
6. 평화통일기원 일붕시비 및 동상 흉상 관리 및 보존사업
7. 일붕국제문화상 및 국제평화상 시상
8. 세계불교도 우호증진과 국제 교류사업
9. 일붕법왕스님 건립사찰관리 및 유지보존사업
10. 일붕문도 회보지 발행
11. 호국불교를 통한 문도들의 단합 및 지원 사업
12. 본 법인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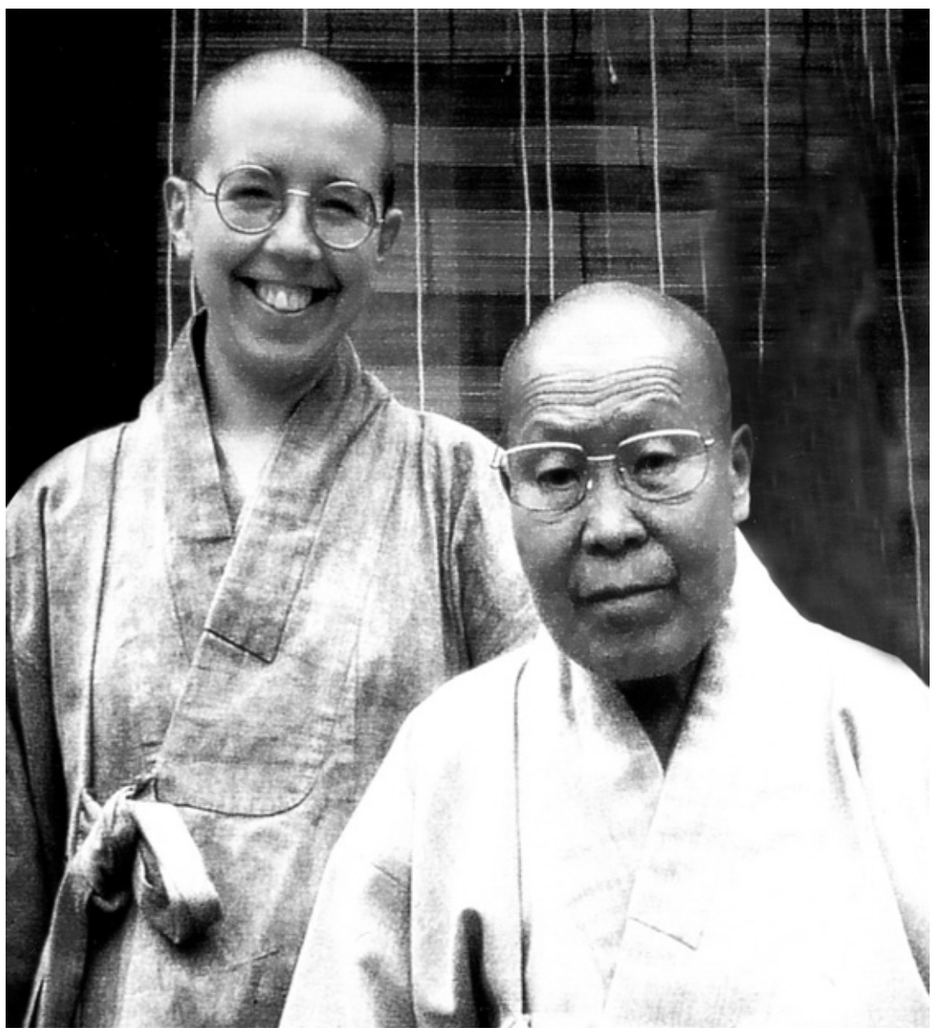
■ 사. 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그렇지만'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下心



(왼쪽)마르틴 배췔러와 은사인 선경 스님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밝혀

"나는 서양에서 자라고 말을 잘해 궁지에 몰릴 때 마다 난처한 자리를 모면하는 것에 익숙했다. 한국선방에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자주했던 '그렇지만' 이라는 말 대신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배워야 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 하심(下心)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댐을 건설하는 엔지니어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 전역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던 마르틴 배췔러(Martine Batchelor)는 어릴 때부터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세상을 다 누비고자 했다. 그는 십대 때부터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 저널리스트를 꿈꿨다.

18살의 어린 배췔러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법구경〉을 통해 저널리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22세가 되던 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모은 500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오게 된다. 사회의 모순에 분개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한 소녀는 세상이 아닌 자신을 바꾸고자 결심한다.

배췔러는 1975~1985년 10년 간 구산 스님 문하로 출가해 한국에서 비구니로 살았다. 인본주의자였던 배췔러의 부모님들은 "네가 비구니가 된다고? 절대 못해. 그러기에는 너는 너무 독립적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배췔러의 승려 생활에 아주 회의적이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췔러는 한국 선방 스케줄에 따라 수행자의 삶을 살기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배췔러는 공동생활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공동으로 울력을 하거나, 대중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늦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산보나 강가에 앉아 명상을 즐겼다.

배췔러는 "시간이 지나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화합을 깨는 것임을 깨달았고, 서서히 자신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출가 10년을 낮추다〉는 10년 동안 출가 수행자로 살았던 마르틴 배췔러의 삶과 수행 기록물이다. 그가 한국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속에서 명상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었다. 책에는 프랑스 인본주의자에서 선 수행자가 되기까지 저자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개인적 삶이 아닌 선경 스님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서 출가자들의 삶과 수행에 대해 더 면밀히 말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저자는 1980~1982년 동안 은사스님으로 모셨던 선경 스님(1903~1994)을 통해 삶의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된다. 저자는 10년 동안 묵묵히 산중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선경 스님의 인생역정을 충실히 기록해 책에 함께 담았다. 전통 한국과 근대적 한국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했던 선경 스님의 이야기는 저자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줬다.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저자는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생활을 상세히 들려준다. 책은 무엇보다 비구니의 삶과 역사의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한국불교를 여성의 역사,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 한국 비구니와 수행전통의 살아있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가 10년 나를 낮추다|마르틴 배췔러 지음|조은수 옮김|웅진뜰 펴냄|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염불수행은 광명의 물결



백송(百松)이라 칭송받던 원효 대사를 흠모해 같은 음의 법호를 쓰는 백송 (百松) 정목 스님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라〉라는 펴내 원효 대사의 일심정토 염불수행법을 재해석했다. 스님은 염불수행의 깨달음은 아미타파(阿彌陀波), 즉 광명의 물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염불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계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수행이다. 이 깨달음을 법으로 삼아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삶을 가치관으로 실현하는 것이 원효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이다.

정목 스님은 원효 대사의 저술을 번역하고 강의해 오면서 일심정토 염불수행의 이론 정립과 실천 수행을 지속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님은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신심 안심 발심 수행 정정취 회향 일심증득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런 지적은 교학과 수행이 별개인 것처럼 여겨지는 불교 수행 및 신행 체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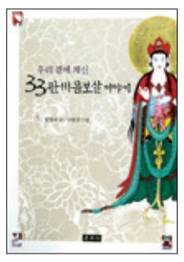
스님은 염불행자가 대승의 유일한 법인 일심 및 성소작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윤회의 삶을 끊어버리는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해 염불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정목 스님은 "염불행자가 염불하는 것은 아마존 강의 날개짓 하는 나비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으로 자리이타와 전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 정목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4000원

박기범 기자

33관세음보살의 인연담



불교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존재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 이 가장 인기 있다. 관세음보살은 일반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인 보살로, 수많은 불자들이 전국 곳곳의 관음기도 도량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열렬히 신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중생과 함께 하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존재로, 중생을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현실적이고 현세이익적인 보살이다.

책은 33분의 관세음에 대해 살펴보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며, 그들은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떻게 형상화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33분의 관세음보살 화신이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 줬는지에 대한 인연담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방경일 지음|남종진 그림|운주사 펴냄|1만3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8/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기도	법륜	정토
4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5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6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7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8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9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10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코이케 스님이 전하는 부처의 말



부처의 말|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양영철 옮김 21세기북스 펴냄|1만3000원

부처님 말씀은 좋다. 어떤 이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감동을 받고, 어떤 이는 위안을 받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말씀은 많다. 그 수도 헤아리기 어렵거니와 언제 어느 것을 읽어야 할지를 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팔만대장경을 날마다 일독(一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현대어로 추린 〈부처의 말〉은 이런 고민을 한방에 날려주는 책이다.

책은 〈법구경〉과 〈상윳타니까야〉 등 초기 경전을 내용으로 한다. 책은 ▷화내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업을 바꿔라 ▷친구를 선택한다 ▷행복을 알다 ▷자신을 알다 ▷몸을 바라보다 ▷자유로워지다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고통과 기쁨의 원인을 12가지 주제로 나눠 190가지의 말씀을 담고 있다.

책장을 넘겨보면, 책은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지낸다, 인색한 자신을 극복한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등 저자만의 세세한 분류법으로 감동을 주는 경구만을 추려 놓았다.

저자 코이케 스님도 "집워 치워 버릴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어쩌나"하고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면 책에 담은 경구들을 읽고 자신을 다잡았다고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책에 담긴 매우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부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단언한다.

스님은 "이 책을 읽는 이의 마음속에 바람이 불거나 혹은 고요함이 생기거나, 깨달음이 생기거나, 얽매이던 것에서 손을 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거나, 분노의 불이 꺼지는 효과가 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학문적 의의'나 '깊이' '공부'를 바라고는 이 책을 읽지 말라"는 충고까지 곁들이면서.

저자는 "부처의 말은 가식이 없고 알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면 아무런 울림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여유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긴다면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좋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저자의 의도처럼 무심코 펼쳤을 때, 거기 적혀 있는 부처의 말이 읽는 이의 마음속에 스르륵 스며들게 한다. 책에 따라 소리 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는 것은 어떨까?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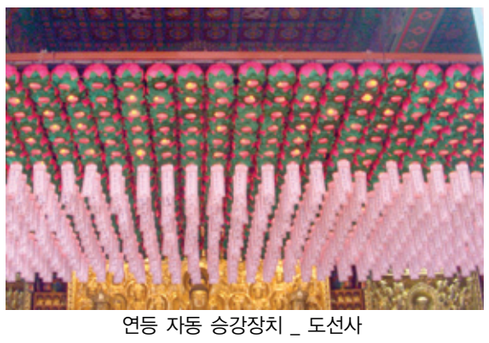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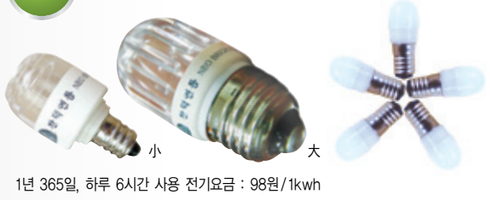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국립민속博 인도신화 특별전



10명의 화신들. 비쉬누의 10명의 화신(아바타)을 표현한 세밀화. 비쉬누의 모든 화신을 함께 그려놓은 그림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부와 명예의 신 가네샤. 가네샤는 원래 군중의 지배자란 뜻이다. 쉬바와 파르바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가네샤의 외모는 코끼리 얼굴에 긴 코가 있고, 이빨은 하나이며, 팔은 넷이고, 툭 내민 배에는 뱀으로 띠를 두르고 쥐를 타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숭배되고 있다.

인도에는 3억 3000 종류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크게 자연 숭배와 관련 있는 베다 신들과 힌두 신화속의 신들로 구분되며, 비슈누[天神]와 시바신[明王]은 힌두교의 2대신으로 인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IT강국인 인도는 '발리우드(Bollywood)'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IT와 영화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들을 구현해주는 주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래를 이끄는 인도인들의 상상력의 원천은 그들의 신화(神話)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다문화 특별전 '인도로 떠나는 신화여행' 전을 9월 19일 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2009년부터 세계 문화에 대한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시작된 것으로 올해에는 인도의 의례와 종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로 마련됐다.

전시는 ▷인도와 인도의 종교 ▷신들의 이야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등 3부로 구성돼 인도와 힌두 신화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태양신인 수리야와 힌두교의 대표적 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과 관련된 신상, 부조, 공예품, 의례 도구들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의 단오날을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인도 태양신 수리야에서 어원이 비롯된다고 한다.

시바신의 자식이며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네샤는 부와 명예의 신으로 인도 곳곳에서 가네샤를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슈누는 10개의 화신인 아바타(avatar)를 갖고 있는데 부처는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이다.

전시에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 지금도 드라마로 제작돼 방영중인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이야기를 담은 세밀화 등도 소개된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인도 가정집의 신단을 재현해 현재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내려있는 종교적 심성도 엿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 행위 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 · 경제적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전시를 통해 인도 문화와 우리 문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3704-3114 이나은 기자

韓·日 오가며 기록한 식민의 흔적들

다큐사진가 이재갑, '상처 위로 핀 풀꽃' 展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마을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곳이 일본의 어떤 지역인지도,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은 오키나와 요미탄 촌 근처 '한의비'가 있는 곳에 와서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의 내막을 알게 된다.

「나의 원적(본적)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808번지'다.」

일본 군수물자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징용당하고 억압받던 그곳에서 비문 밑 새겨진 돌에 자신의 본적과 같은 희생자의 주소를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진가 이재갑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내가 해야만 되는 작업"이라고 결심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진으로 끈질기게 기록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그가 8월 26일까지 대구 태갤러리에서 '상처위로 핀 풀꽃' 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사진가 이재갑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카메라에 담은 한국 속의 일본문화와 일본에서의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흔적을 모아 마련됐다.

이재갑의 사진기는 흐르는 시간의 자취와 변해가는 사물의 형태에 대한 관찰을 넘어선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한 세기 전의 역사와 유령처럼 떠도는 식민지의 잔영을 우리 앞에 불러낸다.

되새기고 싶지 않은 치욕의 상처라 하더라도 사진을 통해 일제를 통한 근대화, 그 고통의 기록이 가지는 그 의미를 곱씹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다.

전시공간인 태갤러리는 대구의 종로에 위치한 곳으로 일제시대에 지어진 양조장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다. 대구의 도심지에 원형그대로 보존된 일제시대의 건물은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시각적 충격을 자아낸다.

이재갑은 "이 작업은 아직 진행중이다. 섣부른 사진적 결론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과정을 통한 역사읽기와 일본 내 남아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일본은 4개의 섬과 9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5개지역을 답사했다. 최북단 홋카이도현까지 작업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길 위에서 발견한 조선의 아픈 역사는 내게 말을 한다. 패전과 동시에 멈춰버린 빈 공간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도저히 지나쳐버릴 수 없는 그들의 일상은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인을 다룬 〈또 하나의 한국인〉展, 경산코발트 광산의 학살사건을 다룬 〈잃어버린 기억〉 展 등의 작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평가받는 이재갑의 30년 사진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053)252-2517 이나은 기자







①후쿠오카 조선 초·중급학교: 2004년 4월 이전까지 사용하던 후쿠오카 재일조선인학교 운동장으로 우리 정서가 스며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우렁찬 기상과 힘이 느껴진다.
②후쿠오카 야하타 제철소 홍보부스: 과거 야하타 제철소를 리모델링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든 홍보부스다.
③ 오사카 포병 창 화학 분석소: 완성한지 100년이 넘었다는 초소와 화학전에 대비한 포병 창 분석소로 현재는 비어 있다.

서동의 꿈과 미륵의 통일

전북 익산서 백제 무왕展

8월 31일까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로 유명한 백제 무왕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가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8월 31일까지 열린다.

'서동의 꿈 미륵의 통일 - 백제 무왕'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무왕의 익산 경영, 사비궁과 익산왕궁, 무왕의 야심과 카리스마' 등 3개 소주제로 열리며 왕궁리 유적과 관북리 유적 출토 유물 비교를 통해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의 의미를 전달한다.

전시되는 주요 유물은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병과 사리내함, 왕궁리유적 출토 유물(금제품, 녹유호, 토기완, 벼루, 짚신, 정원석 등), 제석사지 출토유물(천부상, 악귀상, 소조상, 연화문수막새, 벽체편, 벽화편 등) 등 174건 189점이이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용의 아들, 서동 왕이 되다', '무왕이 정복해야만 했던 나라 신라', '무왕의 왕비 사탁씨와 선화공주', '무왕과 미륵사' 등 4개의 테마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삼국유사 무왕조 등 관련 문헌자료, 미륵사지 석탑 사리기 일괄을 비롯한 미륵사지 출토유물, 산성 출토유물을 전시한다. (063)859-4632 이나은 기자

불영TV, '대불정능엄신주' 발매

도민 스님의 육성 담아

오디오CD, DVD 제작



죽림사 주지 도민 스님의 육성을 담은 '대불정능엄신주' 음반이 나왔다.

불영TV는 도민 스님의 대불정능엄신주를 녹음한 오디오 CD와 동영상 DVD를 제작했다.

성철 스님은 한국전쟁이 지난 후(1952년경)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 생으로 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대참회'와 새로 음역한 '능엄주'를 외우고, 아비라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비라 기도는 '옴 아비라 훔 캄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장궤합장을 하고 외우는 기도로,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이다.

불영TV는 "성철 스님의 말을 잇기 위해 더 많은 불자들에게 능엄주를 보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가격 1만 5000원. (02)2236-7209

이나은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부동산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 강의 요청시
(5인이상. 1시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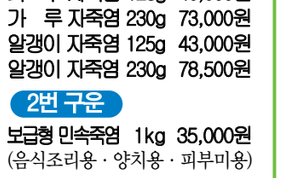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갈상

8각좌대칠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밭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일하는곳 : 054) 773-8533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2〉 – 숲을 보는 이, 나무를 보는 이 ②

이게 뭐지?

이 프로그램을 따라해 보면

① 자녀와 소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② 자녀와 부모가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③ 생활 속에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는 마음공부

자녀는 부모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보여주고 있는 것' 을 먼저 배운다.

부모는 자녀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좋은 것만을 배우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부모가 자신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언행과 사고방식을 흡수한다. 어쩌면 자녀와의 갈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잠시 마음을 활짝 열고 자녀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자신과 똑같은 말투, 상대를 대하는 태도, 삶에 대한 긍정과 부정성이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란 공간은 자녀에게 있어 부모가 '알고 있는 것' 이 아닌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것' 을 배움터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으로 할애된 시간동안 학생이 배우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대신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말과 뜻과 행동을 배운다. 수업시간, 쉬는 시간, 발표를 시킬 때, 공부를 못하거나, 숙제를 잘 안하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친 일 등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보여주는 모습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배우고 공감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이번 주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어서 알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부모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주의 주제는 다른 생명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므로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야 할 활동이 될 수도 있다. 한 주 동안 실제 생활에 직접 활용해 가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변화를 경험해 보도록 하자.

오늘의 마음공부 : 다른 존재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 부모 지도용

■ 활동1. 개구리 상담가 되어 보기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공동체임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주변 사물의 시야를 통해 주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키운다.

① 상담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우물 안 개구리의 상담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본다. (활동지 '우물 안 개구리' 활용)

이 상담활동은 자녀에게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가족이 있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생명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② 위 활동이 끝난 뒤 또 다른 역할을 설정해 부모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녀가 상담 선생님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 상담놀이를 이어갈 수 있다. 이때에는 자녀에게 충고하려 하거나 끼어들지 말고 진지하게 자녀의 상담 내용을 경청하여 자녀의 주변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자리를 만들어 본다.

■ 활동2. 사과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사과를 관찰하고, 먹고,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한다. 활동 1에 이어 나와 주변의 존재가 모두가 모습은 달라도 같은 토대를 가지고 있는 생명공동체이며 더불어 순환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① 사과를 씻어 두 개를 마련한다. 사과를 가지고 사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반으로 쪼개서 그 속의 씨앗과 씨앗속의 사과나무가 될 수 있는 구조들도 관찰한 다음 사과를 먹는다. '사과야 너는 어디서 왔니?' 를 읽으며 사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씨앗에 물과 태양(불), 바람, 흙(양분)이 더해져서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열매가 되어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한 단계씩 질문을 주고받으며 알아본다. (활동지 '사과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활용)

②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예로 들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사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적용해 본다.

③ 단계에 따라 이런 과정이 서로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와 다른 존재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다.

또 존재가 이루어지고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다.

다음 주까지 같이 해봐요

한 주 동안 생활 속에서 틈틈이 다음 내용으로 자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주변에 있는 사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그 사물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그 사물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한주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물이 되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세요.

〈예시〉
안녕? 나는 강아지야. 사람들은 나를 귀여워 해주어도 나는 정말 정말 힘들어.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하랴, 달리랴, 그럴 땐 정말 귀찮아.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는데, 모두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말야. 그리고 주인과 함께 산책하러 얼핏 길을 가다보면 버려진 개를 보았지. 그 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개에게 마음을 전했어. 빨리 좋은 주인 만나 잘 살라고. 나는 뛰고 싶은데 주인은 나를 품안에 꼭 안고 있을 때, 너무너무 덥고 빠져 나가고 싶어. 앞으로 우리 개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을 알아줘.

※체험수기를 보내주세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 또는 기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내용이나 소감 등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독자분들께는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초 · 중등용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bohyung@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오늘의 마음공부 : 다른 존재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 자녀 활동용

〈활동 1〉 우물 안 개구리

"난 지금 많이 슬퍼. 가끔 머리 위에서 '개굴아'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는 내가 딸꾹질을 할 때나 엄마가 보고 싶어 울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비슷해서 깜짝 놀란단다.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보니 아주 밝더라. 가끔 동그란 물체가 불쑥 나타나서는 '개굴아' 하고 부르지만 그게 뭐지? 주변에는 나 밖에 없는데 말이야."

험! _____

"괴로운 것은 그 소리와 함께 뭔가가 떨어져서 물을 튀기는 거야. 물속으로 떨어진 건 뭐지? 금방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번은 그것에 맞은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해 버렸어."

험! _____

"도대체 나는 어디 살고 있는 것일까?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몸과 툭 튀어 나온 큰 눈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우울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험! _____

"나는 궁금한 게 참 많아.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친구라곤 이끼 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친구는 태어나서 움직여 본적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모르고 피곤하다고 잠만 잔단다. 그래서 혼자서 매일 '저 위쪽엔 뭐가 있을까? 저 곳에 나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

험! _____

"어제는 용기를 내어 위로 올라가는데 뭔가가 갑자기 나타나 '개굴이다'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숨어 있다가 내려와 버렸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험! _____

※ 개구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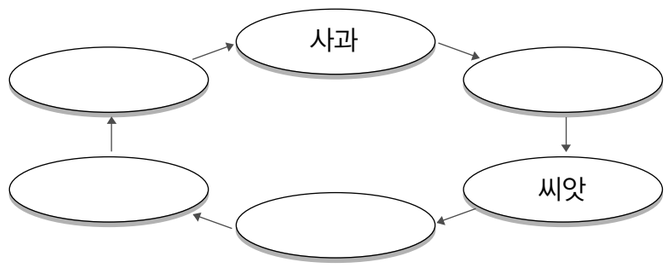
※ 내가 개구리의 상담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 개구리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활동 2〉 사과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나는 사과야. 내 몸은 빨갛고 아직 덜 익은 부분은 햇살을 덜 받아서 푸르스름하지. 나는 지금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어. 내 몸이 익어가고 있어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아. 나는 햇살을 먹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빛으로 가득하단다. 내 안에는 지금 나를 매달고 있는 나무도 들어있어. 태어나기 전에는 그 나무 속에 있었어. 그래서 땅 속 뿌리에서 물을 힘차게 빨아올릴 때의 시원하고 당당한 힘도 나의 일부란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냐구? 그때 나는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씨앗이었어. 나는 땅 에 떨어졌어. 누군가가 작은 씨앗인 나를 땅 에 던졌거든. 쏟아지는 비와 바람은 나를 땅 속에 밀어넣어 주었고 겨우내 흙은 나를 감싸주었어. 씨앗이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글쎄, 나와 같이 땅에 떨어졌던 다른 씨앗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는 본 적이 있어. 그 친구는 죽을 때 말했어. " 너무 슬퍼하지마. 난 죽어서 썩으면 너의 몸속으로도 들어가 한 몸이 될꺼야." 그런데 정말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흙이 되어 내 몸 속으로도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도 가는 것을 느꼈지. 그럼 물과 바람과 흙이 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했을까? 너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니?

※ 사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 주변의 사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다음 사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 사물이 이루어지고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본지와 한마음과학원 공동기획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annam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한국구술인물사⑯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대불련 운동의 새로운 지평

산업화 시대, 질곡의 역사가 시작되다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최연은 1976년 대불련 회장으로 학생들의 불교운동을 이끌었다. 1955년생인 그가 태어난 해에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됐다. 최연은 불교인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최연은 1960년대에 성장해 1970년대 대학생으로서 학생운동에 가담했고, 1980년대는 신군부 정권에 대항했다. 독재에 항거했던 그의 증언에는 '엄혹', '질곡'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최연은 파사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에 항거했다.

"아버지가 김천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잘 알다시피 전쟁 이후라, 제가 클 때에는 먹을 것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최연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여러 남매가 있는 가정이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개발이라는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는 또 다른 질곡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회고한다.

"1960년대는 사회에 질곡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사회가 산업화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인권 등이 많이 무시됐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위한 국가적 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단위가 해체되고, 또 마을 공동체들이 해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60~70년대 초였습니다."

개발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또한 모순과 질곡이 따랐다. 60년대부터 산업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맞췄다. 그 때문에 최연은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물론 마을공동체까지 무너졌음을 아쉬워한다. 특히 미국이 원조한 옥수수빵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교사들의 언행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친의 공무원 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도 고교 때부터 학자금을 조달을 위해 중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를 시작했다고 털어놓는다.



(오른쪽)불교사회연구원 최연 원장의 모습.

"인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벌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중3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7남매의 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최연은 과외를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예반, 웅변,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불교학생회 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한 것이지요."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⑧ – 등장인물 소개 4

어떻게 노래와 음악으로 중생을 교화했을까?

수많은 경전 속에서 천룡팔부 신장의 대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발군의 체력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신에도 능하며 예술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대개 오프닝에서 부처님의 위엄을 강조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의 비중으로 출연할 뿐,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본능은 감출 수 없는 법, 그들은 법회에 등장할 때 종종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최대한 살려서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장엄하고 여법한 무대를 만들어내곤 한다.

예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팔부신장들

요즘도 좋은 공연을 한 편 보려면 적지 않은 출혈을 해야 한다. 하물며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예술'을 아예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자리에서는 이런 천계의 존재들이 앞 다투어 찾아와 꽃이며 춤, 소리공양을 올렸다고 한다. 만약 중생들이 부처님의 설법과 함께 이런 음악을 접했다면 그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압도됐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음악을 비롯한 팔부신장들의 이런 재능 보시는 사람들이 설령 법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동해 신심이 솟구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음악과 무용 등의 예술은 매우 직접적으로 본능을 자극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중생교화에 있어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긴나라왕의 음악과 같은 최고의 작품을 무상(無償)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신비로운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법문을 들으러 왔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불법에 교화된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재능을 보시한 팔부신장 중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긴나라(緊那羅)이다.



긴나라 삽화=김영수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시했던 긴나라(緊那羅)

긴나라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인지 짐승인지 새인지 일정하지 않은 상상의 존재이다. 혹자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말의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그 형상도 일정한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성별은 모호하고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특징은 머리 위에 달린 한 개의 뿔이다.

이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불확실하지만 성격과 직업은 오히려 확실하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긴나라는 제석천의 악신(樂神) 가운데 하나이다.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음악을 하는 천계의 악신(樂神)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대수긴나라왕소문경〉에서 천관보살은 후세 사람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 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부처님께 묻는다.

"이 대수긴나라왕은 어떻게 거문고와 묘한 노랫소리와 갖가지 음악소리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긴나라의 음악이 자기만족을 위해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지라는 점이다. 즉, 한 마디 말조차 없더라도 오로지 예술(소리)로써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은 중생이 스스로 감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㊳ 용장사

경주 남산은 부처님 나라

경주 남산 중턱에 '용장사지(茸長寺址)'가 있다. 용장사는 신라인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장소다. 용장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태현 스님은 법상종의 인물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삼국유사〉에는 "태현은 총혜롭고 명철하며 정세하고 명민해 판단과 분별이 분명했다. 대게 상종(법상종)의 이치가 매우 그윽하고 깊어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중략) 태현은 삿되고 그릇된 것을 간청하고 그 심오한 것을 통달하여 그 이치를 분석했다. 그래서 후진들도 그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국의 학자들도 그것을 배워 자기들의 안목으로 삼았던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용장사지 삼륜대좌불

태현 스님의 법상종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은 한국의 법상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태현 스님이 용장사에서 주석했다면 용장사는 한국에 있어서 법상종의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 상으로도 법상종의 인물들이 염미륵(念彌勒)의 실천행을 수행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법상종 신앙의 흔적이 살아있는 사지라고 할 것이다.

용장사에는 법상종의 흔적 담겨
용장사 골짜기 석조여래좌상은
〈삼국유사〉에 미륵상으로 기록

현재 용장사지에는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茸長寺谷 石造如來坐像)'과 삼층석탑 마애여래 좌상이 남아있다. 석조여래좌상은 장육존상으로 머리 부분은 없어지고 손과 몸체 일부가 남아있다. 커다란 대좌에 비해서 불상은 작은 편이다. 1923년 봄 대좌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복구했는데 1932년 도괴된 것을 다시 복구했다고 한다.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은 양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으며, 옷자락이 대좌(臺座) 윗부분까지 흘러내리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자락을 봐도 화려함이 돋보인다. 일제당시에는 옷자락의 매듭 때문에 승려형식의 조각으로 여기기도 했고, 고유섭 선생은 미륵보살상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불상의 머리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무어라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 불상의 대좌는 자연기단 위에 있는 3층탑이라 생각될 만큼 특이한 원형(圓形)인데, 맨 윗 단에는 연꽃무늬를 새겨 놓았다. 화순운주사에서나 보이는 탑의 모양과 닮아 있는 대좌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여겨진다.

석불은 석불 자체의 사실적 표현이 작품의 격을 높여주며, 태현 스님의 활동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불상은 태현 스님의 설화와 관련이 있는 불상으로 여겨진다. 공중에 떠 있는 듯 한 높은 대좌에 앉아서 남산자락을 내려다보는 이 불상은 보살상인지 불상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오는 미륵상으로 보인다. 태현 스님이 미륵상을 돌았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이 불상의 대좌가 마치 탑과 같아서 탑돌이의 풍습과도 연관 지어서 볼 수 있다.

산등성이의 높은 대지는 마치 도솔정토같이 느껴진다. 경주 남산을 불국토로 만든 신라인들의 상상력이 태현 스님을 통해 도솔정토를 구현한 것이 아닐까? 도솔천에 있는 미륵을 향한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경주 남산 깊은 골짜기를 지난 산등성이에 아름다운 미륵정토 세계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태현 스님이 매일 미륵상 주위를 돌고 미륵상도 태현 스님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기록에서 살아 있는 미륵의 자애로움이 오늘도 남산에서 느껴진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종 합 반 : 10인 이내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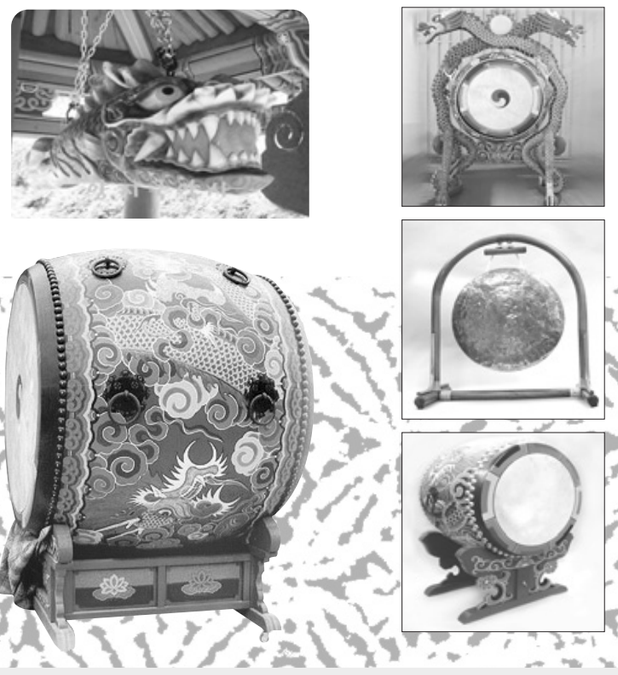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교(진실)와 과학(사실), 둘 다 언어의 감옥 속에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불교와 과학의 대화'를 주제로 8월 4일~9월 1일 특강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강의가 8월 4일 봉은선원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온 자연과학자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진화 생물학자로 종교에 비판적인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강연했다.

9·11테러 이후 종교는 중요한 이슈와 논쟁의 대상이 됐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종교논쟁은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사이언스북 刊)가 출간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봉은사와 사이언스북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5회 연속 강연을 개최한다.

정리=천진영 기자



장대익 교수
기독교는 과학과 경쟁관계
불교는 과학을 포용하지만
'모든 진리는 다 불교內' 식
비논리적이고 근거 부족해

VS



우희종 교수
과학은 언어의 확장일 뿐
진실은 언어 너머의 것
종교는 진실을 추구해
근본 메시지에 집중해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익 교수

왜 〈종교 전쟁〉인가?

종교 분야는 성역처럼 도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희종 교수, 장대익 교수는 종교를 제대로 해부해보자 〈종교전쟁〉을 펴냈습니다. 우선, 책이 나오고 나서 제목에 대해 "왜 하필 전쟁이냐?"는 비평이 많았습니다. 제목에 나온 전쟁의 의미는 종교에 대한 도전과 연구가 '지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 과학과 종교, 불교와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황우석 박사를 옹호한 불교는 블랙홀

"200만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온누리에 펼쳐질 생명과 자비다."

2008년 7월 조계사에서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는 불자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황 박사의 연구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황 박사의 연구를 칭송하던 각계각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불교단체들만 황 박사를 끝까지 지지 했습니다. 저는 불교와 줄기세포 연구가 무슨 인연이 있기에 불교에서만 유독 황 박사를 감싸는지 궁금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불교계의 반응에 대해 도법 스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생명 윤리관에 과연 줄기 세포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황우석 박사가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래도 돼는 것인가? 불교인들은 불교가 '과학적 종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반응은 전혀 불교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황우석 감싸기는 한국에서 급성장한 기독교 세력에 대한 불교계의 피해의식이나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한겨레 2006. 2. 1.)

저는 도법 스님이 황우석 사태를 통찰력 있게 비평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합리적인 사고를 빨아들여 자기 확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불교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우석 사태에서 불자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불교도 '정신적 블랙홀'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언어에 매달리는 표층 종교 때문에 종교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오강남, 성혜영 지음, p.49)

종교에 대해 본격적인 무신론적 논란이 일자 한편에서는 "표층종교만 문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표층이고 심층입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구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은사 땅밟기 사건, MB의 무릎기도 사건 등 비상식적인 사건도 있지만 교회와 절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수능 100일 기도'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의식을 표층 종교라고 말한다면 심층 종교는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불교의 담론이 불편한 이유

과학자로서 불교와 과학의 담론이 편하지만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교가 현대 과학적 사유를 선취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대표적인 양자역학 같은 이론은 불교적 세계관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학) / 진실 (종교)

그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발전한 현대 과학을 불교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교 교리 내에 과학적 사유가 싹의 형태로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 안에 생태학적 이론이 다 포함돼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불교 생태학'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가 현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에 관해서 만큼은 불교가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 우희종 교수의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169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 교수님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사실(facts)입니다. 사실을 추구 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합의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종교도 사회적 합의와 편집을 통해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과 진실은 많은 범위를 함께 합니다. 우 교수님이 진실을 '가치과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아도 '가치와 의미' 조차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과학과 종교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기독교와 과학은 자주 거론되는데 불교와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에도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왜 존재 하는가 의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은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종교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의 자세를 이야기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왜 새겨졌습니까?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이치를 널리 알리고자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일미진중함시방'

과학적 지식은 프랙탈(fractal) 구조를 지닙니다. 프랙탈(fractal: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구조란 불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는 〈화엄경〉 구절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티끌 안에 전 우주가 다 들어 있고 우주도 한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 범위가 작고 크건 그 속성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2500년 전의 지식세계를 살펴봅시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식의 사유와 과학의 발전으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지식의 양은 너무 다르지만 근본적인 우리 삶의 희로애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21세기 과학에 대한 근간은 이미 100년 전 뉴턴의 양자역학 즉, 환원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인 환원주의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환원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다주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1=2' 라는 환원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이고 관계론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언어의 감옥

우리는 언어의 감옥, 개념의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은 그 감옥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줍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사유와 언어의 범위를 넘어 섭니다. 진실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항상 우리가 수용하며 공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실입니다. 수백 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실(facts)은 특정시대에 다수가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지구의 모습은 평평했습니다. 수평선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면 화형 당했을 것입니다. 또 지구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태양계를 돈다는 지동설과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상충된 것 아냐

종교와 과학이 상반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의 발전은 종교와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 이전의 과학과 싸워서 이길 때 발전 합니다.

진실(종교) / 사실 (과학)

그래서 과학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앞서 장대익 교수가 종교가 사회 현황이나 심지어 과학적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하자면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막고자 종교가 개입해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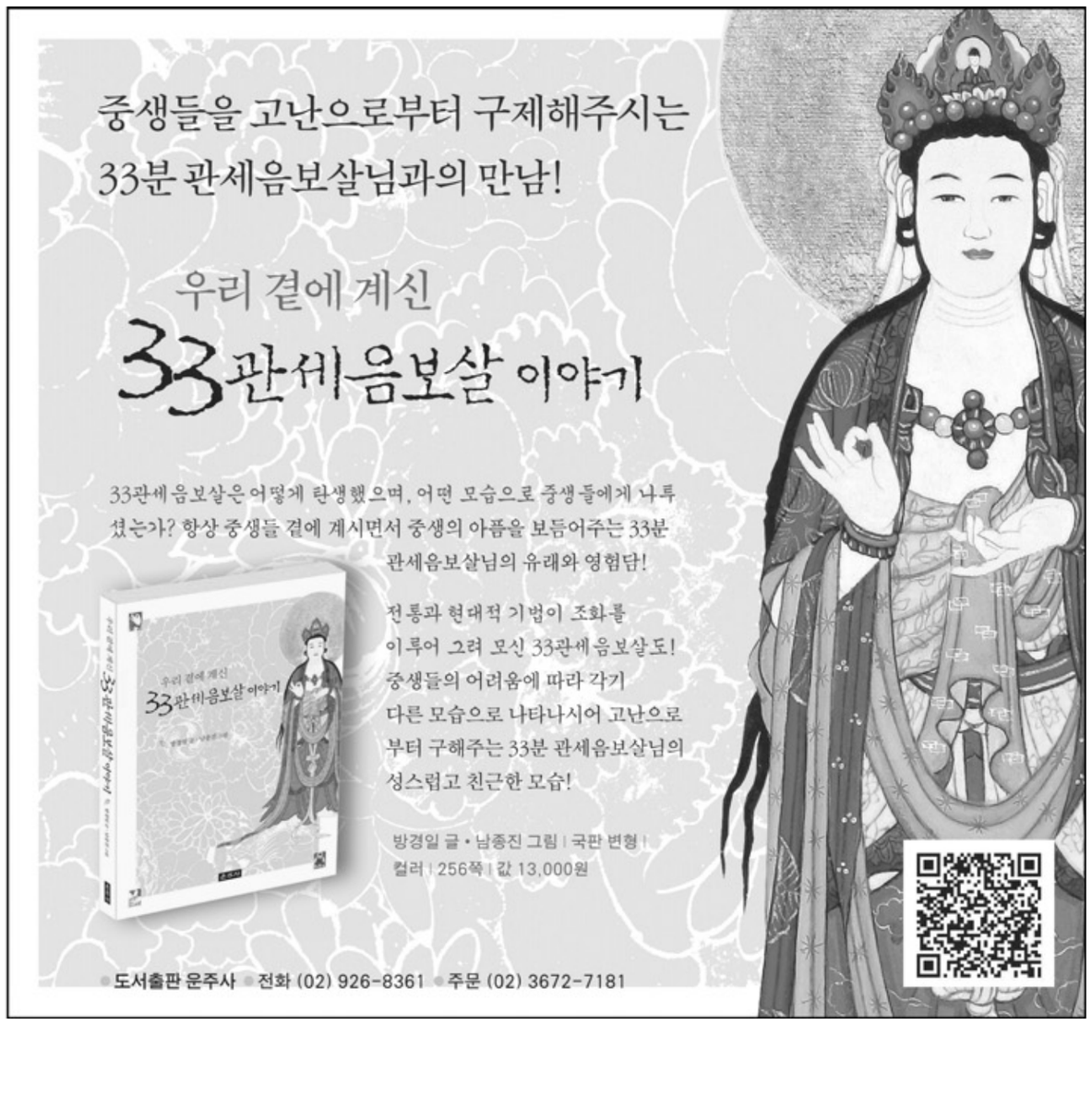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에서 오강남 교수가 말한 표층 종교는 아마 '제도화된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층 종교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전하고자하는 메시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과학의 발전이 다르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불교와 기독교, 종교와 과학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와 과학은 둘이 아닌 하나

불교는 과학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 된다고 보지만 동시에 손가락과 달이 둘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과학의 논의는 기독교와 과학과의 논의보다 훨씬 풍성하고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불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유정·무정의 세계를 포함해 말하므로 자연과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의식 무료 학인모집

기초과정 속성 3개월 완성
바라 작법무 3개월 수료
이론 및 실기, 사물 직강, 회심곡, 화청, 천도재, 49재, 점안식, 산신재.
승려분은 무료, 일반인 10만원
010-3193-3689
부산 금정산 해인사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뻔헷 치유요법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수년간 피공, 뻔헷 치유요법사 스님
- 병원에서 못고치는 불치병
- 병명없이 고통 받는분
불사에 도움 주시면 어디라도 출장 가능함.
010-5509-7696
월정 토굴 스님

오랫동안 있을곳 찾습니다

사주명리,명상치유,
빙의령치유,기치유등
방편력 보유
▷52세,비구
010-4876-1042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신병치유 및 대화

031)666-7732
010-5472-5928
청운사 경담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 •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011-716-3811

법문 써드립니다

스토리텔링 작가의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포교법문!
<각종행사연설문. 법문집>
전화: 010- 9773- 4909
카페: http://cafe.naver.com/jobcoachings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부산, 문현동
010-4575-3300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부산 일광, 55세 이하
010-3553-0993

청정하고 조용한 수행처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도반으로 함께 할
40대후반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053)617-0666
010-8890-6869

승납 10년 전후 40대 중,후반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공양주 구함

가족과 같이
오실분 환영
50~60대
▷대전 동구
010-5209-7420

부전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님 모십니다.

▷충남 부여
041)835-39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문경
010-3784-1106

아주 특수한 기도법

☎ 032)664-0048 / 011-741-0867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
011-9317-9181

산세좋은 사찰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환영, 전남보성
010-7135-8592

절에서 스님과 평생 같이 기도하며 여생을 보낼 분

(처사님이나 보살님, 부부환영)
공양주와 사무보살 구함
▷서울 중랑구
010-4667-2313

불자님으로서 본인 또는 자녀 및 친척중, 신병으로 고행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무보시로서 치료함.

(신병, 우울증, 정신병 전문)
054)338-5353. 336-2828
011-814-6677 법륜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순천 전통사찰
010-4174-74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02)353-5016

남,여 노래에 관심이 있는 불자가수 모집합니다

국악가요, 전통가요, 민요, 목탁, 태징, 영산작법범패, 불교의식, 천도재의식 전수
• 50~60대 불심이 있는분, 공양주 구합니다.
• 행자모집(40~50대)숙식제공, 체계적으로 수행공부
010-5883-2255
중앙녹음스투디오 녹음실 (주)이산

큰 법 당 건 립 불 사

◆ 평생 절에서 지내 실 분 ◆ 스님 되실 분 (남,여 나이불문)
◆ 종단 등록하실 분 (포교당, 토굴)

세계불교 지장선종 총본찰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
054)383-8553 /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www.jijangsw.com cafe.daum.net/jijangsw

빙의,불치병(청소년빙의100%완치)

영적장애, 신병, 무병, 우울, 불감증, 중풍, 업병으로 인한 각종 암(유방암,자궁암), 불면증, 이명, 귀접, 불임, 원인모를 질병, 악몽, 가위눌림, 팔 · 다리마비, 신병으로 고통받는 분, 알콜중독(바람, 도벽), 구병시식, 영가천도 낙태영천도 업병 100% 벗어날 수 있음.
(영가천도,구병시식) 「퇴마비법전수」(신기있는 보살, 법사 대상)
약사영험가피내린 금산스님 김해 약천사
010-4590-48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50~60대 초반 (숙식제공)
▷진해
055)552-5111
010-2805-846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경 축

불기 2555년 8월 7일 (사)민족불교조계종 총본산에서는 초대 총무원장 원당 스님의 임기를 중도에 마무리하고 2대 총무원장 동천 월광 스님을 새로이 추대하여 취임하셨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기 2555년 8월 10일
대종사 종정 법보 와 종도 사부대중 일동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경북 봉화 토굴 무료임대

- 비구니스님
- 승적증명서, 신원증명서 각 1통

무료 2년 임대해 드립니다.
070-4123-5199

배우자를 찾습니다

저는 58세(女)입니다.
평생 함께 사실 배우자를 찾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시고 함께 도반처럼 마음공부하며 사실 남자분을 찾습니다.
010-7251-0203

종단 명칭 변경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이
2011년 8월 8일부로 종단명칭을
'대한불교삼보종' 으로
변경하였음을 제방에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덕 산**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승복 · 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 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1-742-845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100m 즉시법회가능함

- 위치 : 전북 정읍
- 법당 : 17평
- 요사 : 35평
- 부지 : 97평
- 가액 : 1억2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2억 7천

011-9901-3530

임법당안내

- 위치 :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40평, 건평 30평
- 삼존불, 후불, 산신,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 도시가스
- 양도가 : 1억 6천 5백만원 (6천 5백 융자)

010-4925-3779
010-2202-2222

포교원 안내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이룩하여,스님이나보살님께양도

010-8667-1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즉시 입주 가능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08-47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8681-1574

토지 안내

- 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 계획 관리지역 전 : 426평
- 포장도접, 전기, 계곡
- 주변환경 깨끗하고 혐오시설 없음
- 가액: 2500만원

010-6460-1316

포교원(급)월세,전세

- 수원시외버스터미널 1KM 주택가
- 지하 약 50평
- 법당1, 스님방1, 스님 샤워실1
- 공양실1, 샤워실1, 창고1
- 칸막이 모두 되어 있음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87-15중앙하이츠빌라 B01호 상가

011-279-3538
010-3391-353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평수 3층 약 3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및 기타시설 A급, 방2칸, 공양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 몸만 오시면 됨

010-3198-0968
010-2948-711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수정산 등산로 전망 좋음
- 대지 50평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40평
- 방4개, 창고 10평,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5천만원(조정가능)

010-4601-78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54평
-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일안면
- 대지 48평, 전답 100평
- 도로접, 뒷에는 산
- 양명한 남향
- 가액 2천만원
- 절 충안됨

053)615-0666

농가주택(급)안내

경북 영양읍 관내
대지 95평
건물 포함 2500만원
급 양도

010-3538-221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시세 : 7억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5평
- 가액 : 7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절충가능)

010-2034-7799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최적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터미널옆
- 가게 2칸 합쳐 만듬
- 법당완비, 방3칸, 주방, 화장실 몸만오시면 됩니다
- 금달마 수십장 포함
-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7711-79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시내 근교 야산)
- 법당 10평, 산신각
- 전답 약 1000평
- 요사채 2동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5317-7736

사찰 안내

- 경북 영천 마을 끝, 산 밑 양지자락
- 대지 텃밭 포함 300평
- 신축건물 80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법당 내부 - 석가모니불, 문수 보현 지장 보살 후불, 지장, 신장, 산신탱화
- 가액: 3억 2천만원

010-9065-7716

암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좌2동 1328번지 영남아파트 상가
- 약 9평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6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 비구니스님 최적

010-9243-835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법당(조립식)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세면장,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 입구(서암교) 산어산자락 낙동강변
- 전망 최상 (버스종점 바로앞 98번 97번 창원-김해)
- 경전철 5분거리 (부산) 5분거리
- 대웅전, 산신각, 관음입상, 방사 5개, 창고 3개
- 샤워실 3개, 친견실, 공양간 남여 화장실 각각
- 승용차 30대 주차가능(김로단, 칠성탑)

055)333-7612
010-4485-88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관악구 봉천동
- 평수 : 50여평(3층 전체)
- 시설 :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2)887-21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시내 근교 야산)
- 법당 10평, 산신각
- 전답 약 1000평
- 요사채 2동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5317-7736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찰양도하실분

20억선에서
사찰전세나
양도하실 분
연락주세요

장소: 경기 일원이나 부산, 울산

011-9093-0108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현대식건물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불심의 고장!

-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몸만 오시면, 경제가 살고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1,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함

010-2812-4848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찰 안내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
- 대지 230평, 법당25평
- 공양간 25평(방1, 욕실)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 가액 : 상담 후 절충

054)334-669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사미리
- 대지 220평, 법당 20평
- 창고1, 방1, 공양간1
- 전기 수도 시설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6천만원(가격절충)

010-8562-789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낙동강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4평 (2층 법당 증축 실내 계단 서치)
- 전: 200평 (현 감나무 식재)
- 뒷산 끼고 울타리 대나무 숲
- 기도처 및 포교원 적격 적벽돌 주택
- 가액: 몽땅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천 7백만 포함) 절충가능

010-7490-5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찰 안내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
- 대지 230평, 법당25평
- 공양간 25평(방1, 욕실)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 가액 : 상담 후 절충

054)334-669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찰양도하실분

20억선에서
사찰전세나
양도하실 분
연락주세요

장소: 경기 일원이나 부산, 울산

011-9093-0108

단독임법당(급)안내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대지 25평, 건평 약 30평
- 방2, 시설 A급
- 스님 병안중
- 가액: 땅 1평 60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7-215-3195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10-3306-066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범일동
- 보림극장 뒷산북도로
- 대지 : 98평
- 건물 100평
- 법당, 요사채, 텃밭(도심속 산사)
- 가액: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5000만원)

010-2563-555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낙동강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4평 (2층 법당 증축 실내 계단 서치)
- 전: 200평 (현 감나무 식재)
- 뒷산 끼고 울타리 대나무 숲
- 기도처 및 포교원 적격 적벽돌 주택
- 가액: 몽땅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천 7백만 포함) 절충가능

010-7490-5051

사찰 용도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 경치 좋고 교통편리
- 대지 58평, 황토목재집
- 건평 23평, 방 3칸
- 다용도실1, 화장실1, 거실1, 기름보일러
- 국유지 800평 사용허가 필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30-598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창원시 봉곡동 2층 30평가량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55)277-0146

단독임법당(급)안내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대지 25평, 건평 약 30평
- 방2, 시설 A급
- 스님 병안중
- 가액: 땅 1평 60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7-215-3195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10-3306-066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낙동강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4평 (2층 법당 증축 실내 계단 서치)
- 전: 200평 (현 감나무 식재)
- 뒷산 끼고 울타리 대나무 숲
- 기도처 및 포교원 적격 적벽돌 주택
- 가액: 몽땅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천 7백만 포함) 절충가능

010-7490-5051

사찰 용도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 경치 좋고 교통편리
- 대지 58평, 황토목재집
- 건평 23평, 방 3칸
- 다용도실1, 화장실1, 거실1, 기름보일러
- 국유지 800평 사용허가 필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30-598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창원시 봉곡동 2층 30평가량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55)277-0146

포교원 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500만원

010-2878-3380

사찰 안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삼존불,후불,신중,지장,산신,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 법당 15평, 스님방 5평, 주방, 시설완비
- 수원역에서 5분거리
- 경기도청 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무료제공

031)243-4872
010-9017-487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사미리
- 대지 220평, 법당 20평
- 창고1, 방1, 공양간1
- 전기 수도 시설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6천만원(가격절충)

010-8562-789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낙동강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4평 (2층 법당 증축 실내 계단 서치)
- 전: 200평 (현 감나무 식재)
- 뒷산 끼고 울타리 대나무 숲
- 기도처 및 포교원 적격 적벽돌 주택
- 가액: 몽땅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천 7백만 포함) 절충가능

010-7490-5051

사찰 안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삼존불,후불,신중,지장,산신,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 법당 15평, 스님방 5평, 주방, 시설완비
- 수원역에서 5분거리
- 경기도청 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무료제공

031)243-4872
010-9017-487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사미리
- 대지 220평, 법당 20평
- 창고1, 방1, 공양간1
- 전기 수도 시설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6천만원(가격절충)

010-8562-789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낙동강 인접
- 대지 202평, 건평 34평 (2층 법당 증축 실내 계단 서치)
- 전: 200평 (현 감나무 식재)
- 뒷산 끼고 울타리 대나무 숲
- 기도처 및 포교원 적격 적벽돌 주택
- 가액: 몽땅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천 7백만 포함) 절충가능

010-7490-5051

사찰 안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 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내부관리상태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넌 주인이 자기 말도 못 알아봐? 여기 있잖아, 칸타카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2)

난다는 대답 없이 밤하늘을 바라봤다. 눈썹 모양의 달이 바다 위에 곱게 떠 있었다.

"무니 네 생일, 이제 사흘 후로구나."

"그건 왜? 생일 같은 거,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 지 알잖아."

"걱정 마, 축하 같은 건 안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 출발은 네 생일에 하는 걸로 하자."

난다는 바닥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하지만 무니는 벌떡 일어나 답답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잠은 이미 다 달아났다. '생일이라니.' 무니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무니는 의식적으로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아마 난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잠든 친구를 바라봤다. 자신보다 생일도 빠르고 키도 훨씬 크지만, 거기 누워있는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사흘 후면 자신은 열두 살이 된다. 그날은 마을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진 지 이 년 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윽고 사흘이 지났다. 카필라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소년은 잠부의 동쪽 끝 바닷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먼저 일어난 사람은 무니였다. 오늘은 그의 생일, 새로운 무니가 태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무니는 목걸이를 꺼내 내려다보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누프르산에서 깨어나 뭔가 불길한 예감에 마을까지 내달렸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했다.

"일찍 일어났네?"

막 상념에 빠져가던 무니를 깨운 건 난다였다. 무니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제 오늘로 사흘째야. 어떻게 할 거야?"

"출발해야지. 일단 칸타카 상태 좀 보고 이야기하자."

난다는 언제나처럼 책가방부터 챙기며 말했다. 마지막 날, 유리 영감이 마구간에서 주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다 타버린 마을을 정신없이 헤맸던 두 사람이 그걸 열어볼 정신이 들었던 건 한참 후였다. 거기에는 리시 아시타의 예언서, 사르나트의 바퀴, 그리고 유리 영감이 그들을 위해 남긴 비망록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를 본 난다는 또 참지 못해 목 놓아 엉엉 울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다니. 아니, 아직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건가. 무니는 오늘따라 그 가방이 새삼스레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며 칸타카가 있던 곳으로 향해 가는 난다를 쳐다봤다. 그런데 칸타카가 보이지 않았다!

"칸타카는 어디로 갔어?"

어리둥절한 표정의 무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지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삽화 · 김흥인

"넌 주인이 자기 말도 못 알아봐? 여기 있잖아, 칸타카."

난다는 늠름하게 서 있는 흰 말의 목덜미를 두들기며 말했다.

"무니는 이제 너 못 알아본다. 어쩌지?"

그는 짐짓 큰일이라는 듯 팔짱을 끼며 칸타카와 무니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러자 가만히 서 있던 말이 꼬리를 흔들며 무니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예의 그 풀피리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던 무니가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너 칸타카 맞구나!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야, 아무리 칸타카가 이상한 소릴 잘 낸다고 하지만, 인간의 언어까지는 무리라구."

무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칸타카를 쳐다봤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좀 이상하잖아. 내 생일과 칸타카 생일이 같고, 너는 내 생일에 출발하자고 했는데, 칸타카는 갑자기 이렇게 커버렸어. 또 너 혼자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럼. 물론이지!"

난다는 그야말로 당연하다는 말투로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런 말 듣겠다는 거냐? 도대체 뭐야, 뭐냐고!"

그러나 난다는 계속 대답 없이 싱글거리기만 했다. 때마침 데비의 하품 소리가 들려왔다.

"아. 데비, 일어났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는 데비를 보고 난다가 말했다. 무니의 눈총을 피할 수 있어 잘 됐다는 말투였다.

칸타카와 남카 사이에서 자고 있던 데비는 한 쪽이 빈 걸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윽고 무니 앞에 있는 칸타카를 발견하고는 일어나 쪼르르 그 다리에 가서 매달렸다.

"칸타카. 칸타카야."

"하하. 데비는 금방 알아보네?"

"뭐야. 저 녀석들."

무니는 한껏 다정해 보이는 칸타카와 데비를 번갈아가며 입을 삐죽거렸다.

"근데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암리타의 말."

난다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씨익 웃어보였다. 무니는 '바로 그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암리타의 말…"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무니의 예상외의 태도에 난다는 흠칫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금세 무니는 안 그래도 나온 입술을 더욱 부풀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라고 할 줄 알았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하하. 알았어, 알았다구.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말이지…"

사실 그 동안 무니와 난다는 칸타카가 여전히 전혀 자라지 않은 망아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었다. 생각해보면 의문을 품을 법도 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칸타카는 그냥 칸타카일 뿐이었다. 어쩌면 낯선 세계 속으로 매일매일 걸어 들어가는 그들의 여정 자체가 가장 큰 의문이며 신비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만약 난다가 연금술사의 책장에서 그 책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도 칸타카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무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였으리라. 그가 발견한 책의 제목은 〈암리타의 열두 가지 신비〉였다. 그 책의 표지에는 누가 봐도 칸타카라고 생각할 만한 망아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난다가 암리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불사의 생명액' 이라는 뜻으로 최초의 신들이 탄생한 이후, 이를 두고 오랜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 정도였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칸타카를 두고 '암리타의 말' 이라 했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 알아본 것일 뿐, 열두 가지의 신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책에 의하면,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커다란 이야기에 슬쩍 감춰지긴 했지만,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특히 탐험가나 연금술사에게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 열두 가지의 사물을 말했다.

처음에 신들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암리타를 찾아 지금은 모래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우유의 대양을 저어갔다고 한다. 그 불사의 생명액이 대양의 중심에서 솟아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에서 그 중심 역시 위치를 바꿔가고 있었고 암리타를 발견해 길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힘든 열두 번의 시도 끝에 열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암리타를 구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들이 실패했던 시도들의 결과물이 바로 열두 가지의 신비였다. 그 열두 번의 시도에서 신들은 불사의 생명액 대신 다른 신비로운 것들을 길어 올렸고, 그것들 중에는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나무, 줄지 않는 소떼, 모든 것을 기억하는 책, 그리고 나는 말 등이 있었다고 말이다. 난다가 바로 이 '나는 말' 이라는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칸타카를 '암리타의 말' 이라고 했던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었다. 살펴본 결과, 책의 내용 역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 말이 흰색이라는 것은 대단한 근거가 되지 못했지만 다른 말과는 구분되는 특이한 소리를 낸다는 것과 성장 주기가 4년이라는 점, 한 리시가 나는 말을 데리고 수메루 산을 떠난 이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전설 등 많은 사실들이 칸타카의 경우와 거의 모두 들어맞았다. 즉 '암리타의 말' 이라는 건, 암리타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나는 말' 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난다는 "그러니까 이제 날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그럼 이제 슬슬 출발하는 거야?"

어느 새 칸타카의 등에 올라 탄 무니가 발끝으로 친구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그런 무니의 등 뒤에서는 데비가 생글생글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다 역시 데비를 향해 웃어주고는 칸타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정말 날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야? 책에 그런 건 안 나와 있었어?"

한껏 속을 끓인 후에야 난다로부터 '암리타의 말' 과 칸타카에 대해서 들었던 무니는 그건 또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응. 그냥 그런 게 나왔다더라, 하는 내용뿐이었어. 사전에도 '암리타의 말' 이라는 항목에 대해선 간단한 설명 밖에 없고 말이야. 할아버지도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부르신 것일 테니까."

무니와 칸타카의 생일을 기다리는 동안 난다는 '암리타의 말' 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라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책 모두를 뒤졌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칸타카가 정말 책에 나왔던 그 말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버린 녀석을 보자니 '역시 맞았구나!' 하는 기쁨은 잠시 반짝하고 말았을 뿐, '어떻게 해야 날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궁리 때문에 점점 머릿속이 무거워졌다.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0-3406-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사찰 예정

◐ **경남 진주시내**에 노유자 및 종교시설 허가 받아 거의 완공중인 6층빌딩으로 연건평 640평 1층 어린이집, 2층 종무소 및 방사, 3층 선방, 4층 법당, 반지하 식당, 지하2층 기계실 및 홀 15인승 엘리베이터 설치.

◐ 건물은 다용도로 활용가능 1,500평 이상의 사찰 사용 용지에 승용차 2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음.

◐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하여 접근성이 좋음.

◐ 시내 중심에 있는 선학산 공원 입구로써 많은 시민들의 산행 등산로로 이용해서 사찰 홍보에 좋음.

◐ 건축불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조달 관계로 사정상 임대를 우선으로 하되, 건축목적에 부합하면 양도도 가능함.



문의처 : 010-3590-979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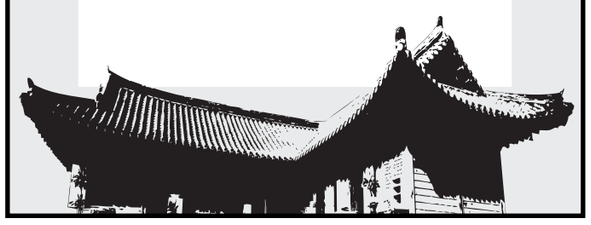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⑱

복을 상징하는 '박쥐'

얼마 전 신부가 흡혈귀가 되는 내용의 '박쥐'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배트맨 시리즈'는 이미 유명한 오락영화로 자리 잡았고, 영화 '드라큐라'도 박쥐를 연상시키는 망토를 두른 드라큐라 백작을 주인공을 등장시켜 오랫동안 흡혈귀 계열의 공포영화로 전 세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박쥐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듯 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박쥐를 혐오동물의 부류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박쥐는 우리가 단순히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려 단정지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는 1000종이 넘는 박쥐의 종류 가운데 피를 먹는 흡혈박쥐는 불과 세 종류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이 세 종류의 박쥐들은 소나 말, 염소의 피를 먹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박쥐들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6200만년전 땅두더지의 일종에서 시작해 혁명적인 진화를 거친 박쥐는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 중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탁월한 존재이다. 박쥐는 땅과 속세(俗世)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와 초월의 경지를 상징하는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해탈의 상징인 것이다.

아름답고 유려한 허리선을 자랑하는 청화백자 편복문 사발(사진)은 고려 백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중국 원, 명대의 희고 단단한 경질백자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었던 분원(分院)에서 만들어진 조선조 최고의 고급 백자 중 하나이다.

사실 편복문(蝙蝠紋, 박쥐문양)은 중국 상고대에 도교에서 비롯된 신선사상과 음양오행설을 가미하면서 불로장생하고자 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다 이 전통 문양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특히 궁궐과 왕실의 사랑을 받아 널리 민간에 까지 퍼지게 됐다. 그래서 한국 대부분의 민속품이나 자료들에서 박쥐문양이 여러 가지 형태를 거듭하면서 시문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복(福)자와 같은 음을 지닌 박쥐를 뜻하는 복(蝠)은 수복병의 글씨를 시작해 갖가지 의복, 가구장식, 식기, 떡살, 능화판(菱花板)등의 용기류, 방석까지 사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 박쥐문양을 사용하는 곳은 사실 쌍가락지이다. 조선조의 여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이 장신구는 두터운 두 개의 은으로 만든 가락지 두 개에 박쥐문양을 음각으로 조각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부유한 양반가에서 은장이를 불러다가 숙식과 쌀 5~6가마를 제공하면서 사랑채에서 재료를 주고 주문해 만든 경우도 있었다.



청화백자편복문문(조선19세기). 조선조 최고의 고급 백자 중 하나이다. 자유롭게 삼단으로 날아다니는 박쥐들의 모습과 생동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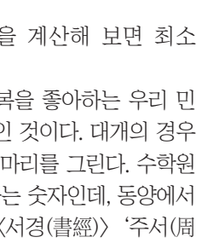
땅의 한계를 극복한 해탈의 상징
중국 도교에서는 신선·불로장생 상징
우리나라에 도입돼 왕실 · 민간에 전파

요즘 시세를 따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최소 80~100만원에 이른다.

복을 상징하는 박쥐는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문양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박쥐를 시문할 때는 다섯 마리를 그린다. 수학원론에서는 5는 승리를 뜻하는 숫자인데, 동양에서는 유학(儒學)의 경전인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편에서 오복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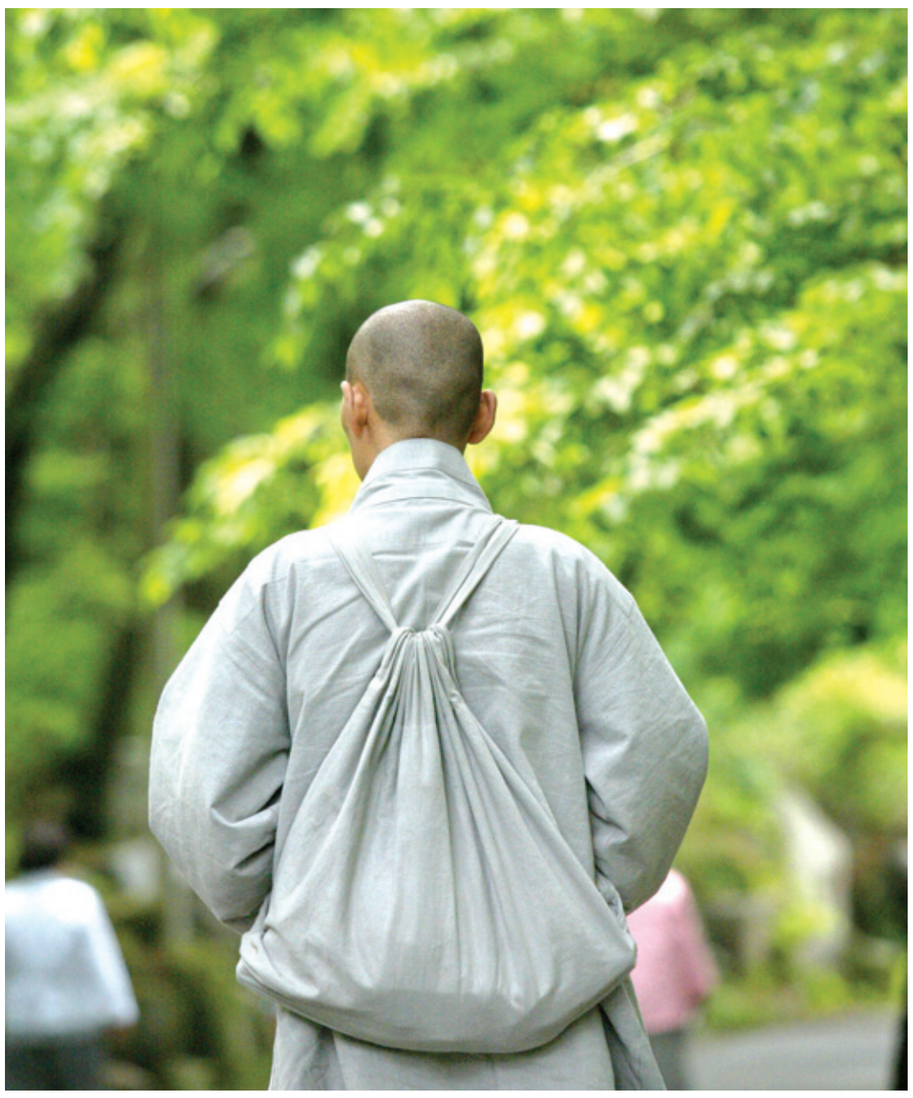
오복의 수(壽)는 장수(長壽)하는 것, 부(富)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강녕(康寧)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 유호덕(攸好德)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고종명(考終命)은 천명(天命)을 다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박쥐가 날개를 편 모양을 살펴보면, 조선조 양반의 외출복인 두루마기와 스님들의 장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가사 아래 장삼을 펴면,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편 것처럼 장삼의 팔에 덧댄 옷자락은 무릎아래까지 내려온다. 마치 박쥐의 손가락에 붙어있는 날개처럼 보인다. 어떤 민속학자에 의하면, 두루마기와 장삼이 박쥐의 날개를 편 모습에서 나왔다고 한다. 왜 박쥐의 모습이 경륜을 얻어 자기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를 이루어 백성들에게 교화를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유학자를 상징하는 선비들과 오탁악세를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어 불성을 이루려는 스님들의 의복의 원형(原型)이 되었을까? 그 것은 박쥐의 물성(物性)과 한계를 초월한 초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스님들도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박쥐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9



지옥과 극락

어제 남긴 말 한 마디가 지옥을 한 칸 지었다. 나를 떠난 말이 나를 가두었다. 내가 던진 말에 내가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지옥이 아니고 또 무엇일까. 오늘은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지옥을 짓는다. 입만 열면 지옥이 한 칸 씩 생긴다.

여름 안거가 끝났다. 치열했던 한 철 걸망에 담아 길을 나서는 스님의 뒷모습이 한가롭다. 내려놓기 위해 짊어졌던 그 걸망엔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을 담았을까. 저 작은 걸망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걸으면 걷는대로 길이 담기고, 들으면 듣는대로 물음도 담길 것 같다. 담고 싶은 것 담고, 내려놓고 싶은 것 내려놓고, 짊어지고 싶을 때 짊어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스님의 걸망이 극락이지 싶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또 지옥을 짓고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오늘도 말 한마디로 지옥을 짓고, 누군가는 작은 걸망 속에 극락을 짊어진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22 조선 취미수초 선사의 '한천촌(寒泉村)'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네

野外橫微逕 (야외횡미경)
林邊有數家 (임변유수가)
兒童驅鳥雀 (아동구조작)
雨露潤桑麻 (우로윤상마)
物喜逢春景 (물희봉춘경)
人忘過歲華 (인망과세화)
何干帝力在 (하간제력재)
耕鑿自生涯 (경착자생애)

들판에 가로 난 작은 길
수풀가에 있는 몇 채의 집
아이는 참새를 쫓고
이슬비는 뽕과 삼나무를 살찌우네.
만물은 기쁘게 봄빛을 만나고
사람은 세월 가는 것도 잊네.
제왕의 힘이 있다한들
밭 갈고 우물 파는 나의 삶에 무슨 상관있으랴.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스님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에게서 자랐다. 어느 날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 왜 이리 더니 오느냐는 소리를 세 번 듣고 출가했다. 이때가 13세였다. 스님은 타학문에 배타적인 시선을 '담장에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고 하며 불법의 홍포를 위해 유가의 경전을 토론하고 시문으로 수창했다. 스님의 명성을 듣고 계곡 장유(谿谷張維; 1587~1638)가 마련한 강석의 자리를 "도덕이 있는 곳에 산문도 다스려지고 높은 교화도 떨치는 것이지 도덕 없이 이름이나 훔치고 법규를 없애면 총림은 깨진다"해 물리쳤다. 임종할 때는 "아침에 길 떠나 저녁에 쉬는 것이지 길만 걷고 쉬지 않는 이가 없다. 나도 쉬려 한다. 너희는 각기 자기의 마음을 믿지 부질없이 밖으로 내닫지 말라"고 당부했다.

위의 시는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들판에 난 길을 따라 소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들판에 가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몇 채의 집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농촌풍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다음 씨앗 뿌려 놓은 밭에서 새 쫓는 아이와 아슬비에 더욱 윤택해지는 나무들을 올망졸망 묘사했다.

이 시골에서 사는 온갖 동식물과 사람은 즐거워 밤낮 가는 줄 모른다. 스님은 촌마을을 한 폭의 시로 그려내는 진정한 이유를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고 우물 파서 마신다는 태평성대를 노래한 격양가(擊壤歌)를 이끌어와 결구에 담아내었다. 참으로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詩中有畵), 시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詩中有話) 시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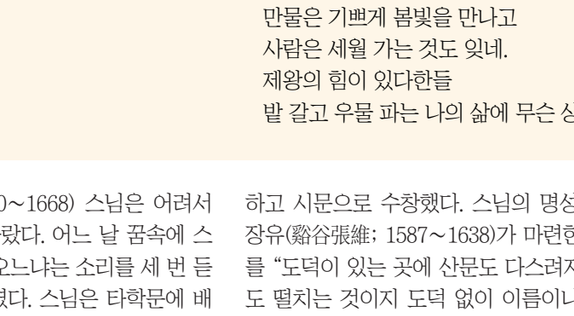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대행 스님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마음이 벗어날 수 있어야

이 제주도 한마음선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자체를 똑똑히 알아 두어야 되겠습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의 생명까지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한 까닭은 그 불로 인해서, 불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통하고,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머리 깎고 목탁 치는 스님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우리 삶의 생활이 그대로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생명 아닌 것이 없고 같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 둘이 아닌 까닭에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교가 따로 국한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자체가, 생활이 불교니만큼 그대로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는 부처도 있고 사대 성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모두가 생긴 거죠. 가정도 그렇고 모두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절이나 하고 물건이나 놓고 빌고 이러는 것을 불교로 알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지인이 돌아가는 삼세의 뜻을,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영원히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일러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기복에 끄달려서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을 내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는 이익이 없는 것이며 모두가 허덕허덕하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 때 인연에 따라서 모인 팀들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 그 모습, 그 의식 자체가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여서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집합소! 한 덩어리가 생산이 되고 형성이 될 때 영혼의 근본 자체와 더불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모든 악업 선업이 모인 팀들입니다. 우리 몸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의 근본 자체가 바로 불씨인데 그 불씨에 의해서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자기 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옛날에는,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이내 인생 태어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서 이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즉 몸을 빌려서 이 내 인생 태어나니라를 알아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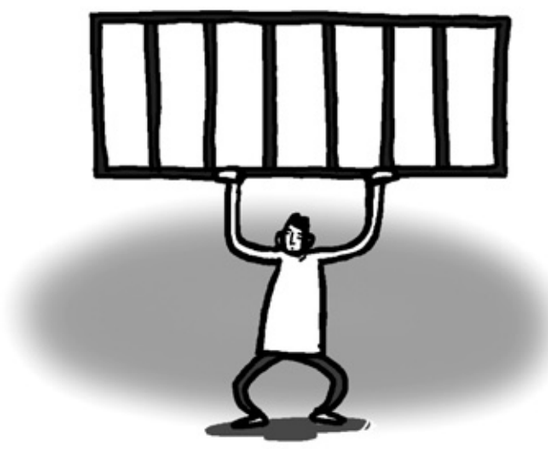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나를 형성시켜서 바로 나의 속에 들어 있으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은 바로 나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며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쳐 주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끌고 다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은 여러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몸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바로 불성의 씨는 큰 에너지와 같고 그 마음은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철학일 수도 있고 천문학일 수도 있고 천체물리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완전히 깨칠 때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마음이 허덕거리고 벗어날 줄 모른다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다녀오실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어디 뭐가 놓여 있고 안방에는 뭐가 놓여 있고 신발장 위에는 뭐가 있고 그런 것도 다 아시겠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묘하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의 법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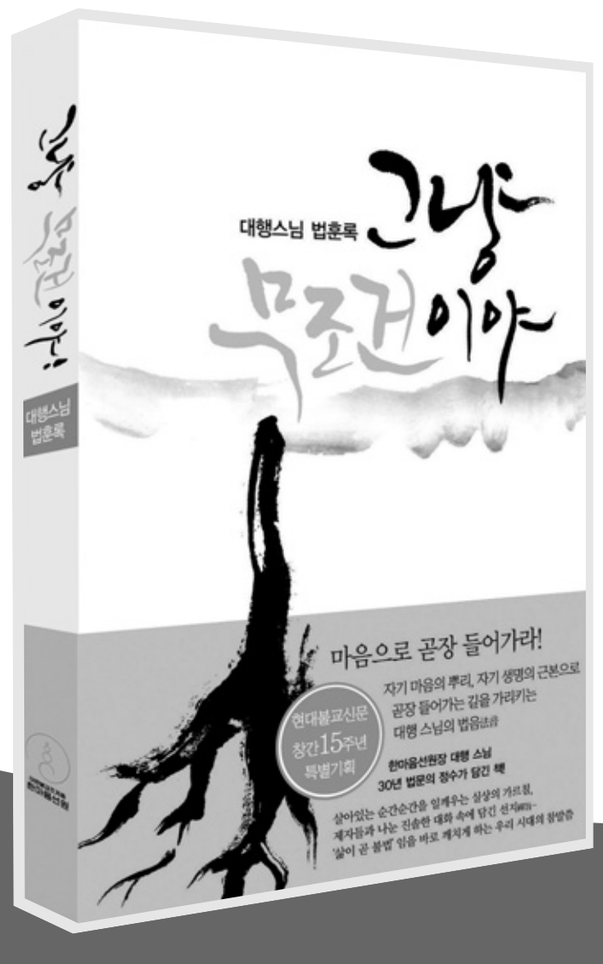
그래서 대중대중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지금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항 속에서 사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손들어 보십시오. 공기가 한 치만 없어도 우리는 허공에 몸을 그대로 서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 광대해서 공기가 있든 없든, 멀든 가깝든, 땅속이든 물속이든, 어디고 빛보다 더 빨리,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음으로써 그 바탕으로 하여금 광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전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자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통신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없다면 광력이든 통신력이든 전력이든 자력이든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이 마음의 도리를, 광대무변한 도리를 다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어디에 선다 하더라도 구김살이 없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사실 것입니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는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제불 가운데는 일체 중생이 있고 일체 중생 가운데는 일체 부처가 있습니다. 중생이 없고는 부처도 없을 것이고 부처가 없고서는 중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일체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은 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이 어떻게 상대가 있으며 종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하셔서 자유스럽게 되신다면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세상은 에누리없이 자기가 한 대로 주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내가 나를 모르고는 상대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는, 안테나를 나한테 세워 놓지 않고는 통신이 올 수도 없고 통신을 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가 올 수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워 놓지 않는다면, 기복으로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빌고 온통 잘되게 해 달라고 아무리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공덕이라 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무거운 것을 들 때 열 손가락으로 다 함께 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 도리, 즉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제불의 마음, 일체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닌 한 마음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내면에도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같이 거들고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는 없습니다. 나라는 게 따로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없노라. 네가 있다고 하지 말라. 네가 했다고 하지 말라. 네가 산다고 하지 말라. 네가 줬다고 하지 말라. 네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라. 했다고 하더라도 함이 없느니라. 수억 마리가 바로 너인데, 네가 그렇게 많은데 따로 네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이 몸뚱이에 업식이 모두,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이 모두가 다 부합돼서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끌어오고 이러는 작업을 바로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있는 악업 선업은 바로 숙명통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고 또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건 좋은 일을 했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자꾸 입력이 돼서 돌아가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육신 속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서 그 생명의 의식들이 더도 없고 덜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된 거는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닦아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네가 사는 것이고 내 몸은 집합소며 바로 심부름꾼이며 바로 관리인일 뿐이니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너다. 너 한 귀퉁이만 없어져도 나는 몸이 쓰러지고 송장이 돼! 그러니까 내 의식들이, 모두 한데 뭉쳐진 의식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력으로 인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팔자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파악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이 모습이 떠나기 전에, 사대로 흩어지기 전에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알았으면 실천하면서 물질계나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실험하고 체험해서 자기 자신이 자유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을 일해야 월급을 받아 오듯이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한 대로, 생각한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못 꾸고도 꿈을 잘못 꿨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되는 것이지 생각을 너그럽게 해서 '둘이 아닌 까닭에 잘못됨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화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뿐이다.' 하고서 바꿔 놓는다면 헌 물이 들어오는 거를 새 물로 바꿔 쓰는 거와 같습니다.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이 광대한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라고 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진짜 살아나가려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뜻으로 푼 천수경이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하는데, 들으면서도 거기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염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수경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뜻으로 푼 것입니다. 또 뜻으로 푼 반야심경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그대로 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불은 염불이 아니라 바로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서 지혜를 넓히고 발전을 시키고 창조력을 길러서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무술을 하는 데도 신검을 만들려면 내 혼을 다 넣어서 칼을 갈고 갈아야 바로 신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시잠깐 캠핑하듯이 나와 가지고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세세생생을 말려서 허덕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짐승이나 미물로다가 몸을 바꿔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그대로 모습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원사에 꿩이라나 까치라나,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까치의 알을 구해 주기 위해서 구렁이를 쏴 죽였는데 그 구렁이의 부인이 원수를 갚으려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십리 밖으로나 물러났다가 힘껏 날아들면서 그 종을 쳤답니다. 입 주둥아리가 다 무너지고 피가 낭자하게 되어 거기에 엎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 분을 살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업신여깁니다. 미물의 짐승도 우리 인간보다 낫습니다. 개라고 고양이라고 소라고 돼지라고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하겠죠. 돼지는 돼지 대접을 하겠죠. 소는 소 대접을 하고 개는 개 대접을 하겠죠. 허나 모든 짐승들도 은혜를 알고 나쁜 거 좋은 거를 알고 은혜를 갚는데, 인간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낳아 주신 육의 부모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길러 준 은공도 모르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천을 안 하니까요.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정코 고맙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 길러 줘도 어린애를 낳으면 또 자기 자식까지 맡기죠. 집을 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을 거저, 또는 돈 내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저 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도 바람도 공기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당장에 공기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고 당장에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불이 없어도 죽고 흙이 없어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장 길러 준 부모한테도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 자식한테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한테 닥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이, 언짢은 일을 했으면 언짢은 것대로 이렇게 닥치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보배이면서도 채찍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 채찍. 그래서 그 채찍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나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지 다른 데 신이 나를 도와주고 다른 데 신이 나에게 벌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식(惡識)에 의해서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나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나 바로 한군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한마음 속에서 투표를 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으며 악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모두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집합소 안에서 아마 투표를 해 줄 겁니다. 그 투표는 안에서 해 주는 것이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악하게 쓴다면 악한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니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돌아간다면 바로 허공에 연꽃이 필 것이요, 그 마음이 우주간 법계에 두루 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체제불이 찰나찰나 드시면서 나시고 나시면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살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증득될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는 방식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틀렸어요. 말로 토론을 해서만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욕을 해 재끼고 잘못한다 해서 때리기만 하고, 너는 고렇게 하니까 깡통밖에 못 찬다는 둥 너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밖에는 못한다는 둥 이렇게 한다면 그 음파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녕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첨단을 넘어서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 마음의 발전을 하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용도가 가정에 닥치든지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럽게 해 주되 '너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너만이 저 사람을, 저 애를, 저 부모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참답고 슬기롭고, 정말이지 아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그렇게 해 준다면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애들도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붙들어야지 육신을 붙들려고 아무리 잡아도 육신은 자꾸 달아나갑니다. 마음이 달아나가니까 육신도 달아나가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면 육신도 잡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모두 밝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업을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또는 과학자든지 기술자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바로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마음과 마음으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도리로써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복으로 잘되게 해 달라고, 어느 바위 앞이나 어느 부처님 앞에 가서 그저 칠성, 무슨 산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병이 들면 약사를 찾고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산신을 찾고 각종의 이름을 다 부르고 다니시죠. 그런데 이런 거 보셨습니까? 관세음상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에 작은 관세음상이 두루두루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 상이 웃는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난 상, 찌푸린 상, 아주 쾌활하게 웃는 상, 시무룩하게 있는 상, 여러 상이 있습니다. 열 개의 상이 있다면 똑같은 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8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이 광대한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안 되죠.
여러분이 부처라고 했고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데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쓴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려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알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불자 세상보기

강해진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기회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국가신용등급 AA+로 강등에 전세계 증시 동반 하락 줄이어 사태 해결의 열쇠는 사람 심리에 IMF 극복한 위기관리능력 보일 때"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처음으로 AAA에서 AA+로 강등되자 전 세계의 증권시장들이 새로운 기록들을 경신하며 긴장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70년간 유지해온 수퍼파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들은 미국의 3대 패권인 달러, 군사력, 국가브랜드라는 성역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악재가 발생하자 외풍에 약한 한국 경제가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해졌을 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마구 팔아치우면서 한국거래소는 선물가격이 5% 넘게 급락하면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제로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출렁이던 증권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느낌이지만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서울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서울을 읽으면 세계증시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서울은 세계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란 표현이 등장한다. 시장개방도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고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성장동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외국투자자들이 완화된 규제속에서 맘껏 활기를 칠 수있는 시장으로 변모해 왔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 번에 몰리는가 하면 한편으로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매우 불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장점이면서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키는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에 있어 사람들의 기대심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은 경제적 상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비관적인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는 정반대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어느 투자증권 전문가의 표현대로 주식은 다분히 심리전이고 극복이 되지 않은 위기가 없다며 용기와 평상심을 유지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미 금융자산 30억대와 개인자산 100억대 이상을 가진 부자 중의 부자그룹인 수퍼리치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추가투자를 하겠다고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실 이런 위기에 소액투자자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수퍼리치들은 이러한 위기가 곧 그들의 기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긍적적이고도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융이 매우 불안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투자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또 다른 금융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고 급격한 경제적 파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의 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경제규모 대비 외채 수준이 영국과 일본 보다 적은 순채권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금융위기 정도는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사부대중 칼럼

신라 향가가 불교 노래?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향가음악 가운데 신라향가는 불교 음악 이해하는데 긴요해 '제망매가' '처용가' '도솔가' 등 유명한 향가는 불교사상이 배경"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뜻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고대음악문화를 찾아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음악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신라향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음악은 문화의 한 현상이다. 신라음악은 신라 문화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신라음악에 대한 이해는 신라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불교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긴요하다 하겠다.

신라 향가 가운데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로는 '제망매가', '원왕생가', '도솔가', '풍요', '도천수대비가', '우적가', '처용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제망매가'는 인간 존재의 허무를 절실하게 표현하면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구제와 관련지어 희망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작자(월명사) 자신의 종교적 낙관주의를 주제화하고 있는 서정가요이다.

'도솔가'는 승려인 월명이 왕명으로 산화공덕을 짓기 위해 조원전에 재단을 열고 지어 부른 노래다. 이 노래는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신라 땅에 맞아 미륵하생의 이상국토를 실현함으로써 일체의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불국토 신라에 더 이상 日怪 따위 재앙이 있을 수 없게 한다는, 불교적 염원을 기조로 하고 있다.

'풍요'는 불교가 융성하던 선덕여왕(632~647) 치세에 영묘사(靈廟寺) 장육삼존불 조성이라는 일대 불사와 관련하여 부른 것으로,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라 광주의 선남선녀들이 성토 즉 진흙을 공양하러 가면서 부른 제의적 성격을 띤 공덕가이다.

'도천수대비가'는 신라 경덕왕 때 경주 한기리에 사는 희명이라는 여인이 다섯 살에 갑자기 눈이 먼 어린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분황사의 북쪽 벽화 천수대비상 앞에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로써 기도한 한 노래다. 이 벽화는 7세기 전반 솔거가 그렸다고 하는 관음상으로 세상에 신화로 알려져 왔으며, 그 영험이 당시 일반에게 널리 신봉되었다. 특히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세간의 중생이 그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하면 즉시 구해주며, 구원을 청하는 이의 형편에 따라 시방의 여러 나라에 그 몸을 나타내는 대자비에 철저한 보살이다. 이 노래는 희명의 그러한 영능(靈能)을 갖춘 관세음보살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동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그와 같은 신앙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우적가'는 높은 덕을 갖춘 국선도에 속한 낭도승 혹은 낭도승 출신의 영재가 90가까운 노년에 은거처를 가다가 60여명의 도둑을 만났으나 이들을 모두 깨우치고 감화시켜 그를 따라 지리산에 들어가 불자가 되게 한 중생제도적 성격을 띤 노래다. .

'처용가'는 그 관련된 설화에 의하면, 이민족의 문화인 불교사상이 신라에 수용되면서 형성된 호불호국적인 용신신앙이라는 독특한 민족신앙을 그 배면에 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처용가'를 이해하면 이 노래가 '각의 경지' 또는 '무아의 경지'에서 세속적인 인간애욕을 지양한 '사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신을 교화한 높은 정신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망매가'와 '원왕생가'는 미타정토왕생신앙을, '도솔가'는 미륵하생신앙을, '풍요'는 극락왕생을, '도천수대비가'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우적가'는 중생제도를, '처용가'는 불교적 깨달음에 의한 교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1500년 전 향가라는 불교노래를 통해 신라는, 종교적 신념, 불교적 염원, 제의적 성격, 눈먼 아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도둑을 감화시킨 중생제도적 성격, 다문화 가정을 포용한 관용과 소통 등의 정신적 가치를 보여줬다. 오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社說

불교방송 청탁건 엄정히 밝혀라

BBS불교방송 경영진이 법조계 출입기자를 통해 검찰에 사건청탁을 해왔다고 한다.

BBS불교방송 장용진 노조위원장은 8월 8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장 노조위원장은 "이사장 영담 스님을 위해 자신이 검찰에 행했던 청탁은 10여 년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2009년 부천 스포피아 사건, 법보신문 권모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건 등 영담 스님과 관계한 사건들에 자신이 직접 검찰에 청탁을 했고, 청탁을 거부하자 춘천지사로 좌천됐다는 주장이다.

모 부장검사는 장용진 노조위원장에게 "기자가 수사에 개입하면 곤란하다.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니 오늘 이야기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장 노조위원장은 "자신을 전보발령한 후에도 다른 법조계 출입기자들에게 청탁 지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장용진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당연히 공공재인 언론을 사유물화한 청탁 당사자들은 책임져야한다. BBS불교방송은 사바세계 중생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 태어난 방송이 아니던가.

총무원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장용진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낱낱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부처님 법음을 전파해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겠다는 불교방송의 설립이념을 더럽혀 삼보정재를 훼손한 바라이죄이다. 거짓이라면 장 노조위원장부터 사법처리 돼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나서는 이유

한진중공업 크레인 앞에서 법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8월 10일 '한진중공업 문제해결과 김진숙 무사귀환을 위한 생명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정우식 대불청 중앙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도법 스님은 지난주 108배로 노동부 등을 찾아 호소한데 이어, 이날 한진중공업 현장을 찾았다. 무엇이 이들을 부산까지 달려 내려가 절규하게 만들었을까.

혹자는 크레인 위의 김진숙 씨를 '꾼'으로 비하하기도 한다. 희망버스는 좌익 세력의 사회분열 책동의 방편이라고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법 스님이나 대불청을 빨간 색안경을 쓰고 봐서는 안된다. 도법 스님이 좌익인가? 대불청이 좌익단체인가? 그렇지 않다. 부처님 법은 좌·우가 없다. 모든 시비를 여읜 것이 부처님 법이거늘, 하물며 이념 따위에 편을 들어줄 리 없지 않은가.

한진중공업 사태에 나선 이들의 까닭을 묻는 이에게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전한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내게 왔다/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耗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蔴(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게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안타는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